# 현대불교

제 815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12월 22일 수요일 (음력 11월 25일 · 불기 2554년 · 주간)










# "정부, 종교 상대 흥정말라"

## 조계종, 예산 거부… 정부·여당과 소통 단절 거듭 천명

조계종 총무원은 12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 통과로 4대강국민논의위원회를 통한 4대강 논의가 중단되고 템플스테이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로마교황청 등을 방문했던 자승 스님이 업무에 복귀한 17일 하루 동안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국팀장 전체회의, 교구본사주지회의, 템플스테이운영사찰 전체회의, 원로회의, 중앙종회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했다.

17일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오로지 정법으로 삿됨을 끊고 정진하라"는 유시를 통해 조계종 총무원 입장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교구본사주지회의와 템플스테이운영사찰들도 각각 결의문을 내고 총무원을 지지했다.

13일 기자회견에서는 조계종이 정부 · 여당과 소통을 단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문화재 관련 종책 변화, 사찰 규제 철폐와 불교문화재 반환 요구 등 대정부 대책 등이 쏟아졌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4대강을 추진해 사회 갈등을 깊게 했고, 서민 예산을 모두 삭감한 예산안 처리는 국민의 삶 · 미래를 위한 투자를 포기한 것"이라며 "조계종은 국민과의 소통, 서민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책무를 포기한 정부와 한나라당을 존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화쟁위원회는 정부 · 한나라당 종교계 야당 시민단체와 진정한 화합의 길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이 '국회 예산안 처리를 미루겠다'고 약속해 놓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 법안을 처리한 것은 더 이상 신뢰를 줄 수 없는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 원로회의 "정법으로 삿됨 끊으라" 유시
### 자승 스님 "불이익 감내 변화해야 한다"

MB정부 들어 계속된 종교편향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원담 스님은 "정부가 종교갈등을 중재하고 이를 막는 제도적 노력대신 이를 두고 각 종교에 대한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 템플스테이도 문화 프로그램이 아닌 종교적인 문제로서 은혜를 베풀 듯이 간주한다"면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예산 등도 전액 삭감시킨 장사치의 시각에 민족 문화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정부 · 여당에 대한 항의가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정부 · 한나라당이 "삭감된 템플스테이 예산을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에 관해서는 "국민과 불교계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계종은 이번 템플스테이 예산 안 사태를 사찰 등 문화재 보전에 관한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이다.

원담 스님은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더 이상 템플스테이 예산지원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7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템플스테이) 예산문제를 떨쳐버리고 진정한 변화를 통해 신도들의 힘으로 자생할 것과 의식전환을 이뤄야 한다. 한목소리로 불교가 새롭게 태어나야 하고, 아쉬움과 불이익을 감내해서라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구본사의 이해관계 따라 종책 드라이브에 수차례 브레이크가 걸렸던 전례로 볼 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총무원의 '정부 · 여당 관계자의 사찰 출입 금지' 공포 후인 16일 범어사 천왕문 화재 위로 방문차 범어사를 찾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를 범어사 측이 받아들인 것이 그 예이다. 정여 스님은 김무성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당직자들에 현장을 소개한데 이어 점심 공양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의 전언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국팀장 전체회의에서 "범어사 천왕문 화재를 빌미로 찾아 온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에게 덕담한 것 자체가 문제이다. 이래서는 총무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외로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여 스님은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교구본사 책임자로서 종단 지침을 엄수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참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론은 냉정하다. 한나라당 당직자의 범어사 방문 소식에 "조계종은 손발이 안맞는 것 같다"라는 말이 들린다.

한편, 봉은사 사태로 "정권의 하수인" 취급을 받아온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번 파문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눈 내린 조계사의 아침** 12월 17일 이른 아침, 조계사(주지 토진) 앞마당에 하얀 눈이 내렸다. 스님들과 종무원들이 쌓인 눈을 쓸어내고, 쓸어낸 마당 위로 또 다시 눈이 쌓였다. 마치 한 해가 저물고 저무는 시간 위로 또 한 해가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박재완 기자

# "사찰, 아낌없이 내주고 거침없이 나섰다"

##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전통사찰 인식 변환 촉구



"전통사찰은 일개 종교시설물이 아닌 민족문화유산의 보고(寶庫)로 봐야한다."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12월 16일 통도사에서 봉행된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출판 봉정식에 이은 기자간담회에서 "KTX 울산역의 통도사역 병기가 이웃종교 반발로 무산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됐다"며 말을 꺼냈다.

스님은 "호국 · 구국으로 불교가 흔히 설명된다. 통도사도 창건 이래 1300여 년을 우리 민족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지내왔다"고 말했다.

임진왜란 때 통도사는 스님들이 직접 왜구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곳이었다.

정우 스님은 "왜구들의 보복으로 대웅전이 소실되면서 통도사는 50년 가까이 대웅전이 없던 시절도 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일본강점기에는 통도사 주지였던 구하 스님이 통도사 대중과 통도중학생 등을 이끌고 항거하다 통도중학교가 폐교된 적도 있었다. 한국전쟁 때에는 국군통합병원에 준하는 규모의 야전병원으로 절을 내주기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정우 스님은 "개산 이후 1300여 년 동안 민족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도 통도사에는 국보 등 4만 여 점의 성보문화재가 있다"며 "전통사찰이라면 종교를 떠나 민족문화의 보고로 바라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5면)

조동섭 기자

## 정찬주의 행복한 禪 이야기 ⑦

### 말인사 3

중국불교에 대한 수불 스님의 단상이다. 몇 년 전 스님이 북경시 어느 절 관음원의 계단을 내려서는데 난생 처음 보는 중국불자가 스님을 보더니 땅바닥에 엎드려 삼배를 했다고 한다. 그 불자가 얼마간의 돈을 두 손으로 이마에 받쳐 들고 보시를 하자, 뒤따라오던 스무 명쯤 되는 중국신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삼배를 하여 옆에 있던 안국선원 신도들이 크게 감동받았다는 것이다. 그때 스님은 "과연 우리 한국불자들도 저런 신심이 있을까, 중국불교가 사라졌던 게 아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간여하고 있지만 그 밑뿌리에는 알게 모르게 저력이 있구나, 언젠가 좋은 입장으로 밖으로 나올 때가 있겠구나" 하고 느꼈다고 한다.

## 중국불교의 미래는 밝다

성철 스님은 "오대산, 보타산이 따로 없다. 신심이 성지(聖地)다. 신심만 있으면 문수보살이나 관음보살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나는 중국의 젊은 스님들을 만나고 나서 좀 실망을 했다. 당에서 파견된 당원의 지시를 받거나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안휘성 무호시 어느 절의 방장스님을 뵙고는 생각이 달라졌다. 노스님은 절 이곳저곳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니 산문을 나와 차를 탄 우리 일행을 향해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배웅했다. 나와 일행 모두의 아상을 깨뜨려 준 하심(下心)의 한 방망이였다. 한국불교 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도 그 노스님의 깊은 신심을 생각하면 미구에 중국선종이 되살아날 것 같고, 제2의 당송시대 불교가 도래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19면에 계속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도 시원한! 사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 원산 · 제조 : 한국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등
◇ 가격 : 3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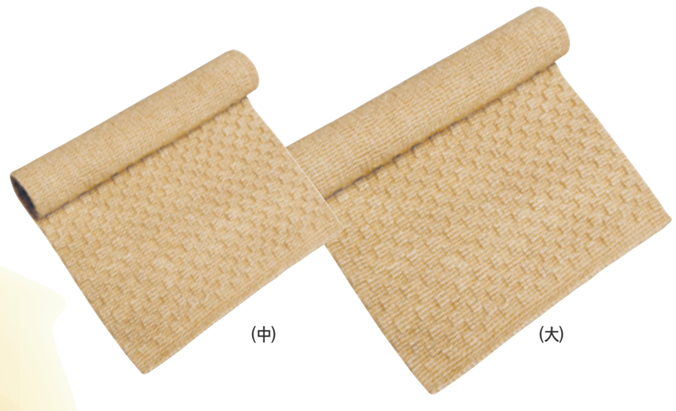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삼베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120,000원
■ 삼베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60,000원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사용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기 고] 불교학박사, 청보리법사 김재영

# “정부지원금 거부만이 능사 아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건립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대전제로 하여 그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헌법전문은 단순한 선언문이 아니라 헌법본문의 조항들과 같이 구체적인 규정력을 지니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구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정부가 수행해야할 헌법적 책무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란 무엇일까?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G20정상회의 때, 우리 정부는 용산 국립박물관에서 공식 만찬행사를 개최했다. 여기에 맞춰 ‘고려불화전시회’를 기획했다. 또, 미륵반가사유상과 경천사지다층석탑을 대표적인 민족문화로 전면에 내세웠다.

무엇 때문일까? 우리나라가 불교국가도 아니고 정치와 종교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더더욱 장로 대통령인데, 어째서 불상과 불화 불탑 앞에서 세계 정상들을 모아 가장 중요한 국가적 행사를 하는 것일까? 왜 두려울 것이 없는 이 땅의 개신교인들이 ‘특정종교 편향’이라고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정통성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고, 불교문화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민족문화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기꺼이 동의하고 합의한 헌법적 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불교 아니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어디 있는가? 불교문화 아니면 자랑스러운 민족문화가 어디 있는가? 불교정신 아니면 반만년 민족국가의 명맥을 지켜온 불굴의 민족정신이 어디 있는가? 기독교가 이 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인가? 기독교가 이 땅의 민족문화인가? 기독교가 이 나라를 지켜온 불굴의 민족정신인가? 대체 불교 아니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불교를 부정하는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고, 불교문화를 ‘특정종교’로 폄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발상이 아닌가?

템플스테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문화적 교육적 사업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후손들에게 계승시키는 것이고, 세계인들에게 널리 홍포하는 것이다. 매년 수만 명의 시민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하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매년 수천 명의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문화를 익히고 간다. 템플스테이를 거쳐 간 서양인들이 불교도가 되겠는가? 그들은 코리아를 이해하고 코리아 문화를 사랑하는 코리아의 팬, 코리아의 친구들이 되는 것이다.

템플스테이 사업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이고, 우리 불교계가 당당히 요구할 헌법적 권리이다. 장로정권의 농간에 화가 나서, 우리 스님들은 “(정부지원금을) 안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정당한 분노이고 선언이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뭘 못하겠는가? 안 받으면 그 자들 농간에 지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무엇이 두려워 움츠러들 것인가? 스님들, 힘내고 나가야 한다.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산문 폐쇄는 이제 그만 거두고, 잘못한 자들 불러다 호통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이다.



# 투명운영이 사찰 살린다

## 불교시민단체, “사찰운영 제도개선이 봉은사 사태의 끝”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12월 16일 만해NGO센터에서 개최한 집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직영사찰 운영제도 개선을 통한 종도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도법 스님(조계종 화쟁위원장) 지홍 스님(화쟁위원, 불광사 회주) 퇴휴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동출 스님(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실행위원) 법안 스님(화쟁위원, 조계종 종회의원)을 비롯해 김원보 교단자정센터 대표, 박경준 동국대 교수 등 불교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봉은사 사태 발생의 원인을 △선거과정에서 갓바위 등 직영사찰 해제를 둘러싼 정치행위 △소통 부재의 일방적 직영사찰 지정 결의 △종단과 주지 개인의 갈등 격화 △불교계 정치 의존 현실에서 청와대 외압설 제기 △화합승가 훼손과 대중공의 부재 △소통부족과 신도대중 소외 등 이라고 짚었다. 봉은사 사태는 불교계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 일부가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다.

**# 불교시민사회 역량 커져**

도법 스님은 이날 집담회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민사회가 제안했고, 화쟁위원회가 이를 받아 문제해결을 진행한 이 과정을 향후 불교발전의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봉은사 문제를 대화와 합의를 통해 매듭지은 일에서 불교시민사회 역량이 증대됐고 이는 큰 성과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시민사회가 작금의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휴 스님도 “정부여당과 불교계가 대치하는 현 상황은 근본적으로는 불교와 국민들과의 문제로 불교시민사회가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종도 불신, 국민 인식 극복해야**

동출 스님은 “94년 개혁 이후 갓바위 선본사 등 직영사찰이 감사보고서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운영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종도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힘들게 했다”고 진단했다.

김원보 대표는 “국민들은 봉은사 사태를 염불의 문제가 아닌 잿밥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봉은사 사태 이후 화쟁위 수습과정도 강남포교거점 마련의 직영사찰 지정 명분에 의하면 후임 주지 인선을 공개적으로 했어야 했다”고 화쟁위 활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도 “화쟁위가 불교계의 정치 의존적 인식을 살피지 못한 점은 문제였다. 봉은사 역시 불교의 자주화 문제를 제기하기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봉은사 신도라고 밝힌 진전 거사는 “화쟁위원회가 직영사찰 지정을 정당화했고, 직영을 반대하는 신도들의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신도회가 어용화돼 평신도들에게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사찰공영화로 투명성 이끌어야**

이날 집담회 참가자들은 ‘직영사찰 운영제도 개선’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박경준 교수는 “사태의 본질을 화합승가의 생명력이 훼손된 점이다. 앞으로 화합승가 전통승가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합 승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사찰 공영제가 도입돼야 하며 그 과정으로 직영사찰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법 스님은 “직영사찰은 94년 종단개혁의 성과로 이로 인해 교육·포교의 재원이 마련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제도 개선을 통해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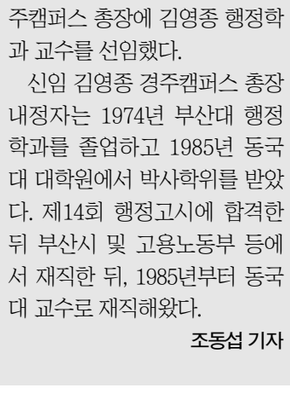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황과의 만남**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김희중 대주교(카톨릭), 이광선 목사(개신교), 김주원 교정원장(원불교), 한양원 회장(민족종교), 최근덕 성균관장(유교) 등 한국종교지도자들은 12월 9~16일 이스라엘과 로마 바티칸을 방문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5일 교황청 궁전을 방문해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만나 2013년 조계종이 개최할 지구촌 갈등극복을 위한 ‘세계종교지도자 포럼’에 교황청이 뜻을 함께 해줄것을 요청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로마 교황청 제공

# 동국대 새 총장 김희옥 재판관

## 경주캠 새 총장에는 김영종 교수



동국대 제17대 총장에 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이 선임됐다.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는 12월 14일 동국대에서 제257회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동국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선출된 김희옥 총장 내정자의 임기는 2011년 3월 1일부터 4년이다.

김희옥 총장 내정자는 1972년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6년 제1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대구 대전지역 검사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거쳐 2006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발탁됐다.

불자인 김희옥 총장 내정자의 법명은 당래(當來)이다. 김 총장 내정자는 1980년 혜암 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은 것을 비롯해 1999년 2월에는 백담사 회주 오현 스님에게서 수계를 받았다.

김희옥 총장 내정자는 1996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법연수생들의 불교신행단체인 ‘다르마 법우회’를 결성해 지도하는 등 법조계 내에서 불교모임을 이끌어 왔다.

김 총장 내정자는 이사회 정견 발표에서 “동국대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의 구현을 위해 △‘자율과 책임’의 대학 경영 실현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 △미래대비 교육체계 마련 △최적의 교육·연구인프라 구축 등을 대학경영의 원칙과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총장 내정자는 “헌법재판소 임기 중 퇴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기본권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기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남은 일을 철저히 마무리한 후 퇴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사회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에 김영종 행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신임 김영종 경주캠퍼스 총장 내정자는 1974년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부산시 및 고용노동부 등에서 재직한 뒤, 1985년부터 동국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조동섭 기자

# 퇴휴 스님

## 국가인권위 위원 사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직을 사퇴했다.

실천불교는 1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인 결정들과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자진사퇴 할 것과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에 대한 올바른 인사시스템 보장을 촉구한다”며 사퇴이유를 밝혔다.

이상언 기자

# 조계종, 교강사 지원 확대

## 교육원, 7개분야 20명에 연 400만원 지급

교육원(교육원장 현응)은 12월 15일 제1차 종단 교수아사리 심사위원회를 열고, 승가교육 및 연구를 담당할 교수아사리(교수사)를 위촉키로 했다.

교수아사리는 한문불전,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불교사, 계율과 불교윤리, 응용불교 등 7개 분야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교수아사리에 위촉된 스님에게는 매년 4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조계종 교육·연구기관 외래교수 임용 시 우선 추천된다.

종단 교수아사리 지원 자격은 △박사과정 수료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 △전문교육기관 전문과정 졸업 후 교육·연구경력 3년 이상 △전문교육기관 연구과정 졸업 후 번역 및 연구 성과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원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1월 2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2월 중 서류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최종 교수아사리를 선발할 계획이다.

심의위원장은 종범 스님 심의위원은 법산, 무비, 태원, 지안, 해주, 법인 스님 등 7명이다.

노덕현 기자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심성치유교육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함월산의 선무도총본산 골굴사의
선무도 화랑사관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치유를 위해 제38회 (19년전통) 겨울 계절학기를 개최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1.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와 심신치유 프로그램,
2. 스님의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3.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캠프』를 지도합니다.

※ 언 제 : 2010년 12월 26일 ~ 2011년 1월 22일 (4주간)
※ 모집인원 : 1주간 참가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 수시모집 : 1주 / 2주 (3주 이상은 일반템플스테이 가능)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접수 및 문의 : Tel 054)775-1689, 054)744-1689 홈페이지 www.sunmudo.com
※ 교육프로그램
1. 건강회복·심신단련 :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2. 호연지기 :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체험에서 교육으로 전환)
3. 심성정화 : 108배, 참선, 운력
4. 정서치유 : 명상치유, 선무드라 테라피, 상담치유, 미술치유, 무용치유, 음악치유(판소리,전통악기), 생태체험학습
5. 교양수업 : 문화관광(성지순례, 박물관) 원어민 영어회화, 불교강의와 한문교육, 다도

천년의 시공을 초월한 문화의 향연
템플스테이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시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전통무용 대가의 안무와 오랜 수행경력의 선무도 시연단이 이끄는 전문공연단의
특별한 문화예술공연을 골굴사 상설무대에서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정기공연
2011년 1월 1일부터 (관람료없음)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선무도와 함께하는 ‘2011년 해맞이 템플스테이’에 초대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 (재)선무도대금강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 304번지 전화 054)775-1689. 744-1689

# 순천시가 선암사 망치고 있다

## 부실공사에 성보 도난까지… 순천시, 재산관리 '허술'

### 조계 · 태고종, 선암사 분규 해결 논의 급물살

조계종과 태고종 간 분규사찰인 순천 선암사의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순천시가 성보문화재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선암사 재산을 가로채기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순천 선암사는 13일 재산관리권 환수를 요구한데 이어 순천시는 재산관리권 포기의 뜻을 밝혔다.

순천 선암사는 조계종으로 등기됐으나 태고종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찰로 1970년 당시 무화공보부가 순천시에 재산관리를 지정했다. 현재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과 성보박물관장을 맡고 있다.

선암사는 13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의 재산관리에 부실이 드러났다며 △선암사 성보문화재에 대한 전면 재조사 △선암사 및 성보박물관 관리운영권 선암사 이양 △야생차 체험관 운영권 이전 △관람료 및 주차장비 폐지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과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양말심 선암사 신도회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성보관리 엉망, 도난 및 진위 논란

선암사 대변인 도월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순천시장의 선암사 성보박물관장 겸임에 문제를 제기했다.

선암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선암사 성보박물관에는 전문 학예사가 전무하고 임시직 1명만이 있었다. 관리부실로 수장고에는 외부인 출입의 흔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월 스님은 "선암사 성보문화재들은 모두 진위여부에 의혹이 있다. 문화재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암사 측은 원통전 불상 위조 등 선암사 문화재 도난에 관계된 전 주지 지허 스님이 주지 및 성보박물관장을 하며 성보의 문화재등록을 기피했으며 재산관리를 순천시가 이어 받으며 이후 성보박물관 자체가 방치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도월 스님은 "최근 순천시장은 선암사도 모르게 문화재 6점을 외부에 전시하기도 했다"며 "교회 안 수집사인 순천시장이 성보박물관장을 맡은 이후 문화재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순천시장이 박물관장으로 있으면서 없어진 유물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조계종과 태고종이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은 "선암사 성보박물관의 소장유물을 재조사해 진위 여부와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시에서는 성보박물관 관리부실에 책임을 지고 선암사에 운영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선암사 재산 유용의혹도

순천시는 재산관리를 맡으며 재산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등기 상으로 선암사로 등재된 곳 만을 관리해 재산 유실도 발생했다. 순천시내에 위치한 선암사 말사 향림사의 경우는 도지세를 순천시가 관리하며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부터 최근까지 약 10여 년간 약 110 억대의 복원 및 신축 불사가 진행됐는데 부실공사가 진행됐음이 드러났음에도 순천시가 특정업체에 공사를 계속 맡긴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 경내에 야생차체험관을 조성한 뒤 등기를 순천시로 등록해 순천시장의 영빈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밖에 선암사 측은 순천시가 독단적으로 사찰 입구 매표소에서 주차비와 관람료를 징수해 임의대로 사용했으며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담 스님은 "선암사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관람료 사용내역을 비롯한 재산관리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순천시는 조계종단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담 스님은 "순천시의 재산관리 지정 해제를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조 · 태 선암사 문제 논의 시작

40여년 간의 조 · 태 분규로 외부의 손에 맡겨진 삼보정재가 유실될 처지에 처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측의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조계종 중앙종회 순천선암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일문)는 12월 7일 회의를 열고 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으며 15일 선암사에 공문을 보내 "조계종과 태고종 각 5인 규모로 협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암사 문제를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조계종 선암사특위 소위는 위원장 일문 스님과 덕문 스님(조계종 선암사 주지), 정범 · 종호 · 성월 스님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계종 요구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총무원장 인공 스님을 비롯한 5인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곧바로 조계종과 정식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암사는 최근 순천시가 "선암사 재산관리권을 조계종으로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그간의 관리부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작이다. 순천시는 관리인 자격 반환 전까지 그간의 모든 재산목록과 현황을 파악해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범어사 천왕문 방화로 전소** 부산 범어사 천왕문이 12월 15일 오후9시 50분 방화로 추정되는 불로 전소됐다. 화재는 소방차 30여 대 소방관 70여 명을 투입해 3시간에 걸쳐 진화됐지만 목조건물인 사천왕문은 전소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방화로 추정하고 CCTV에 찍힌 남자 용의자를 공개수배 중이다. 사건 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2006년 개신교 집회에서 "범어사를 포함한 부산 사찰 (94개)이 무너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던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개신교 광신도가 이번 방화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제공=범어사〉

# 화쟁위, "국민을 종으로 취급 말라"

## 4대강 예산 여당 단독처리 비판… 화쟁불사 천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이(오른쪽) 정부 · 여당의 일방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가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안 강행처리를 '국민을 종으로 취급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민과 불자들에게 사태의 진상을 알리겠다고 천명했다.

12월 16일 화쟁위원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외면하는 정부 · 여당의 일방적 예산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위원장인 도법 스님과 부위원장 원택 스님, 총무위원 법안 스님이 참석했다.

화쟁위원회는 4대강 사업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적논의위원회 참여와 종교계 중재안 마련 TFT를 설치했지만 예산안 단독처리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화쟁위는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외면하는 세력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겠다고 천명했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주인으로 당당하게 야단을 쳐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화쟁위는 앞으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 · 여당이 국민 앞에 발로참회할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불교도들이 이 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불교계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화쟁위원회는 "국민적 염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불교도의 충정을 받들어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로 했다. 조계종단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소통을 위해 화쟁불사의 깃발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국민적논의위원회 지속 여부에 대해 화쟁위 위원장장인 도법 스님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사안들을 더 세밀히 검토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쟁위원회는 10월 18일 4대강사업 국민적 논의기구를 공식제안한 뒤, 한나라당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2차례의 회의와 워크샵을 갖고 종교계 중재안을 마련해 12월 20일까지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12월 8일 4대강 사업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비판에 나섰다.

박기범 기자

# 4대 종단 4대강 저지 손 잡다

## 시민불복종 · 상품불매운동 전개

4대 종단 연대회의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정권 퇴진운동, 관련 기업 상품 불매 운동을 펼치겠다고 강력히 밝혔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로 구성된 '4대강 개발저지 4대종단 연대회의'는 12월 17일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생명을 위한 저룩한 저항-시민불복종운동, 상품불매운동' 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4대 종단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상임대표인 조해봉 신부는 "폭력과 같은 4대강 개발 사업을 재고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 상황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양재성 목사는 "주인을 무시하는 심부름꾼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정권 불신임 운동과 4대강 개발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지관스님도 "불교의 중요 계율인 불살생을 어기는 이명박 정부를 불자로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장로 대통령의 그릇된 신앙관이 국민적 ·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정권퇴진운동도 불사 하겠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원불교 환경연대 홍현두 교무는 "다음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승리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원불교 환경연대는 현 정부와 한나라당, 4대강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칠 것이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기범 기자


스님이 만든 생식
곡류 50%를 발아시킨 효소 발아생식
❶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되었습니다.
❷ 유기농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❸ 99% 국내산 제품입니다.
❹ 돈을 벌기 위한 제품이 아닌 중생들의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불심 깊은 불자님 지역총판 모집합니다. 070-7629-5920
▸1일 1끼 1포(40g) × 60포 (2개월분) 100,000원

· 노동부 지원 · 사회적기업(예비) · 초의신다 최고금상 수상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4F 입점 T:061-285-0301~2
2010년 한국 보이차 연말연시 할인행사

여름에 선보였던 한국 보이차(청차 보이, 황차 보이)에 보내주셨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매진되었고 그 뒤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는 저렴한 가격의 생병(녹차 보이)을 만들었습니다. 할인 판매는 연말부터 설명절까지만 받을 예정입니다.
바로 드셔도 좋은 茶이지만 일 년 이상을 묵혀 드시면 더욱 맛있게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다관에서 우려 드셔도 좋으며, 떡차처럼 끓는 물에 넣어 다시 한 번 끓여내어 숭늉처럼 드시면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찻잎으로 만든 초의병차는 무농약, 친환경, 위생문제를 해결했으며 한국인의 미각에 맞는 깊은 맛과 향을 차인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차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초의차사업단에서 정성들여 준비한 한국보이차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 드립니다.



2010년 보이차 연말연시 할인행사 가격

| 구분 | 보이차 300g |
|---|---|
| 할인 가격 | 25,000원 → 15,000원 |
| 할인 기간 | 1월 31일까지 |
| 차 만든 시기 | 2010년 9월 1일 ~ 2010년 10월 10일 |
| | 좀 더 다양한 맛의 차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급 보이차! 가격 50,000원 (다섯 개이상 구입하시는 분께는 할인행사 보이차 1개를 더 드립니다.) |

구입 및 문의 061-285-0301, 2

(사) 초의학술문화원

입금 우 체 국 500033-05-002572 (사) 초의학술문화원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 초의학술문화원

● 입금시 주문자 이름과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 제품에 불만이 있을 경우 100% 환불해 드립니다.


▲ 2010년 국제차문화대전 참가

▲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장관과의 오찬간담회 6월 12일

▲ 2010년 목포도자기축제 참가

▲ 일본 기타나고야 시장 방문

▲ 2010년 초의선사탄생문화제—초의선사학술세미나

▲ 초의학술문화원—목포우체국 업무제휴협약 7월 22일

▲ 평택시예절교육관 한국 보이차 제다 실습 6월 17일

▲ G20 정상회의기념 어린이 행다법 시연

▲ 청와대 사랑채 다도 체험

▲ 청와대 사랑채 행다 시연 및 무료시음 행사

청와대사랑채 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행다시연 및 무료시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choyeetea.co.kr 후원 : 무안군

## 일 주 문



**용주사 단기 동안거 템플스테이**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2011년 1월 3~6일 용주사 효행문화원에서 단기 동안거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31)235-6886



**정현 스님 '지장십륜경' 강의**

철원 심원사 주지 정현 스님은 2011년 1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btn무상사에서 〈지장십륜경〉을 강의한다. (010) 8879-8400



**영주장복,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륜 스님은 12월 22일까지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054)633-6415



**대구 광명사, 백팔부처님 봉안**

대구 광명사 주지 정연 스님은 12월 17일 극락보전에서 중창불사 및 백팔부처님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053) 956-6213



**국제포교사회 15기 환영회**

박상필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2011년 1월 8일 서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국제포교사회 15기 환영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한다.



**조영훈 육화포럼 3대 회장**

조영훈 광주 증심사 사무장은 12월 14일 광주·전남지역 불교활동가모임인 육화포럼 제3대 회장에 취임했다.



**고려불화대전 뒷이야기**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은 12월 18일 박물관 내 교육관 강의실에서 '고려불화대전과 G20 정상회의'를 주제로 강연했다.

# "신행과 포교 둘 아니다"

## 부산·경남 지역 포교활동 리더 류 진 수 회장

지난 11월 5일 제22회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한 류진수 거사(대흥알엔티 회장, 법명 덕양)는 400만 부산·경남 불자를 결집하는데 공덕을 세운 장본인이다.

류 거사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지역·계층·매체 포교활동의 리더로 부산불교방송국 설립, 부산불교신도회관 건립에 앞장섰다. 특히 그는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장 등을 역임하며 부산 불교활성화에 전념했다.

류 거사는 1977년 범어사 지효 스님을 계사로 5계 수지를 받은 이후 원력보살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범어사는 물론 해인사, 쌍계사 등 인연 닿는 대소 불사에 크게 공헌했으며 범어사 신도회장을 6 년간 역임하며 신도회 활성화 및 조직화에 기여했다.

류 거사는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장을 3차례에 걸쳐 9년 동안 맡는 동안 부산의 정계·관계·언론계 등 지역사회 리더들과 지역불교 지도자들을 결집해 신년에 대덕 스님들에게 하례를 올리는 공식행사를 만들었다. 이 행사는 지금까지도 미풍으로 지속되고 있어 부산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류진수 거사는 2007년 3000㎡(900여 평) 규모의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관 건립을 주도했으며 도심포교 활성화를 위한 정기법회, 특별법회, 지



도자수련회, 세미나, 각종 문화행사 등을 개최해 포교에 진력하는 재가불자들 간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도교육의 중요성을 알았던 류 거사는 신도전문교육기관인 로터스 불교대학, 로터스 수행학교, 로터스 청년불교대학, 부산불교전문강원 등 불교교육으로 대중화를 위해 헌신했다.

또한 류진수 거사는 1994년부터 부산경남인도명예총영사로 재직하면서 인도와 문화 및 경제교류를 적극적으로 펼쳐 불교문화 발전은 물론 양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불자의 자긍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그는 2010년부터는 미얀마와 문화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류 거사는 계층포교에도 큰 활약을 보였다. 그는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개인택시불자회를 비롯한 직장·직능 불교단체를 설립·활성화하는데 기여했으며 포교상 시상을 통해 포교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알았던 류 거사는 부산불교 중학생연합회, 부산불교고등학생연합회에 재정을 지원하고 부산불교신도회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해 포교의 활력소가 되도록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류진수 거사는 거액의 사비를 보시하고 반연 있는 기업가들을 모집해 1995년도에 부산불교방송국을 설립 및 개국시켰다. 그의 업적은 부산경남 400만 불자들의 숙원을 해소 하고 부산시민과 경남도민들이 불음을 들을 수 있는 포교 공덕을 쌓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마거사의 "중생과 함께 고뇌하며 법(法)을 추구한다"는 가르침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는 류 거사는 중생 속에서 자비와 희사, 봉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를 늘 발원하는 실천가다.

그는 "개인적 신행보다는 함께하는 신행생활이 요구되는 시대라 생각한다. 신행과 포교는 따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늘 함께 해나가야 할 중요한 불자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 "수행이 공산당 압제서 견디게 해"

## 달라이라마, 다람살라서 러시아 불자에 법문



"지난 역사에서 공산당 지배로부터의 문화 말살 억압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보리심 수행의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텐진갸초) 법회가 11월 30일~12월 2일 인도 다람살라 쫄라캉(Tsuglakhang)에서 열렸다.

3일간 이어진 이번 법회에는 몽골, 부리야티아(Buryatia), 칼믹(Kalmykia), 투아(Tuva) 등지의 러시아 불자와 외국인을 포함한 티베트인 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칼믹 공화국의 전 총리와 러시아 의회 의원들 그리고 재무 장관과 카자흐스탄의 다른 고위들이 내동했다.

법회는 게쉐 톡메 상뽀(Gyalsey Thokme Sangpo)의 〈37 보리도 수행차제(37 Practices of A Boddhisattva)〉를 주제로 했다. 구야삼마자(Guhyasamaja) 관정법회로 이어졌다. 11월 30일 법회는 인터넷으로 생중계 됐고, 영어와 중국어로 동시 통역돼 FM라디오로 방송됐다.

법회 첫날 이른 아침 6시부터 기도는 시작됐다. 대중 법회 중간 10시 경 진행된 티타임에는 티베트 빵과 버터차 공양이 진행됐다. 달라이라마는 1979년 모스크바에 처음 방문 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당시 머물던 호텔은 정부 기관 소속이었는데 8시 이전에는 아침을 주지 않아 배가 고팠던 기억이 나는군요"라며 대중들과 웃음을 나누기도 했다.

달라이라마는 〈37 보리도 수행차제〉 설법을 시작하면서, "밀교 수행의 시작은 생기 차제이다. 그에 앞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수학의 과정이 있다. 구야삼마자의 생기원만차제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현교와 밀교 수행법에 대해 논해야 한다. 생기차제 관정을 시작으로 나머지 세 과정은 원만차제 수행이다. 이번 법문은 붓다의 사성제를 바로 알고 〈37 보리도 수행차제〉로서 구야삼마자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다. 생기 차제로서 수행이 확고해 졌을 때 원만 차제 수행에 바로 진입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연숙 객원기자**

## 김종빈 前 검찰총장 봉은사 신도회장 선출



봉은사 제17대 신도회 회장에 김종빈 前검찰총장이 선출됐다. 봉은사(주지 진화)는 12월 15일 신도회장·감사 인선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종빈 前 검찰총장을 신도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감사에는 한승희, 이연화씨가 사무총장에는 현 신도회 부회장 이경자 씨가 선출됐다.

김 前 총장은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및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혜총 스님, 자랑스런 동국인상 2010 동국인의 밤 열려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이연택)는 12월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0 동국인의 밤' 행사를 열고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민병덕 국민은행장, 구자선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장, 안채란 영석학원 설립자 등에게 '자랑스런 동국인상'을 수여했다. 이날 '2010 동국인의 밤'에는 동국대 재단 이사장 정련 스님, 오영교 총장과 김희옥 총장 내정자, 송석구 前 총장 등 동국대 동문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 대원불교조계종 창종 초대 종정 청봉 스님 추대

대원불교조계종은 12월12일 양산시 주진동 불광사에서 창종 및 종정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대원불교조계종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과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창종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각교단 종정 가산 스님, 세계불교 법왕종종정, 대한불교 자은종종정, 양산시장, 양산시 의원, 부산시 각 기관장, 이창상 대원불교대학장, 노세주 불광사신도회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대원불교조계종 초대 종정에 추대된 청봉 스님은 "지금은 생활불교, 현대불교, 나아가 세계불교를 지향할 시기"라며 "모두의 불교, 자연과 더불어 하는 불교, 무진연기 세계와 함께하는 불교, 개방불교, 다원불교, 실용불교, 마음불교 운동을 동체대비사상으로 과감히 매진하자"고 법문했다.




대원불교조계종 창종식 후 초대 종정 청봉 스님과 사부대중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대원불교조계종 승정원장 원정 스님은 "초대 종정에 추대된 청봉 스님은 용맹정진하는 수행가풍으로 후학 양성에 앞장서 왔다. 또, 한일 종교문화교류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불교문화 포교 활동에도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 〈열반〉 태고종 승정 혜경 스님



태고종 승정 혜경 스님(봉원사 회주)이 12월 14일 오전 2시 봉원사 운수각에서 법랍 73세, 세수 92세로 원적에 들었다.

스님의 영결식은 16일 오전 11시 봉원사에서 봉원사장으로 봉행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였던 혜경 스님은 1939년 봉원사에서 만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다. 1945년 일파 스님을 법사로 입실건당한 스님은 1946년 불교전문강원수료, 1975년 국묵담 선사로부터 비구계를 수계했다. 경기교구 총무원 총무국장, 제8·9대 영산재보존회 회장, 봉원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


# (사)세계선불교문화교류연맹 총재 영공 도성 대선사 건당식 (비구·비구니)

이 땅에 부처님의 법이 파종 된지 2000여년 보우 국사님의 육조선맥 뿌리내려 어언 1400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와서 함께하기 보다는 기득을 지키고 배타하여 집단과 개인의 이익를 먼저하는 다수인에 의해 일불 제자임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가 하나 되고 세계인이 함께하는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불제자들이 모여 선불교 역사를 재조명 할 수 있는 시작을 2010년 9월 27일 부산 KBS홀에서 세속 96세이시고 대한선불교의 산 증인이며 세계선불교 지도자이신 영공 도성 큰스님을 모시고 사단법인 세계선불교문화교류연맹을 출범하였습니다.

본 연맹 1차 목표인 불교를 국교로 하는 12-30개국과 함께 상호교류를 통해 선불교 발전을 도모하고 언로를 함께하며 각국 선불교 대표 큰스님의 법을 공유하여 세계인이 함께하는 찬란한 불국정토를 이룩하는 중심에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덕망 높으신 스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세계선불교 지도자 찾아 법맥기행 -**

1. **영공 도성 큰스님 제 1회 (傳法建幢) 건당식**
   - 증 사 : 경우 큰스님, 인왕 큰스님, 무진본 큰스님, 법왕 동산 큰스님, 불심 도문 큰스님(조계종 원로의원), 무진장 큰스님(조계종 전포교원장) 외 본 연맹 장로단.
   - 일 시 : **2010년 12월 28일 14:00시**
   - 장 소 : 부산 연제구 연산 8동 383-34번지 황정사
     큰스님의 전법을 받으시고 성불 도생 하시기 바랍니다.
2. **중국 광동성 육조 혜능 대선사** (2011년 3월 20일 예정)
3. **태국 담마까이(법신사) 닷딴지도 대선사** (2011년 4월 21일 예정)
4. **캄보디아 왕사 땟풍 대선사** (2011년 6월 예정)
5. **미얀마, 스리랑카, 대만 및 달라이라마, 기타 국 계획 중.**

* 상기 일정에 (일부 및 전체) 동참하실 대한불교 각 종단 지도자 스님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법건당 법첩, 기념책자, 가사(법계에 따라 17쪽 – 25쪽), 기타 준비 관계로 행사 1주일전 마감합니다. (사진 3장, 본 연맹 신청서 1부 비용 50만원)

**사 단 법 인 세 계 선 불 교 문 화 교 류 연 맹**

영공 도성 근본선불교 법맥잇기 추진 위원장 **황 정** 합장 |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730번지 사무총장 김대식
전화 010-3501-3005. 053-767-8551 팩스 053-765-4814 / E-mail : koreakds@gmail.com / 입금계좌 농협 176277-51-004739

구하·경봉·월하·벽안 스님 행장 한 눈에

#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발간·봉정

국내 개별단위 사찰로는 최초로 근현대 불교사가 발간됐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12월 16일 설법전에서 월하 대종사 열반 7주기 추모 다례와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출판 봉정식을 봉행했다.

책은 근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으로 통도사에 주석했던 구하·경봉·월하·벽안 대종사의 행장을 중심으로 근현대 한국 불교에서 통도사가 지내온 길을 정리했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2007년 구하 스님이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오인돼 이를 소명하기 위한 사료작업을 진행하다보니 오늘의 통도사가 어느 한분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1차적으로 구하 스님과 함께 경봉·법안·월하 스님 등 근현대 통도사에 주석했던 네 분의 선지식을 조명·정리했다"고 말했다.

편찬 작업은 통도사 사적편찬실(실장 남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2008년 8월부터 2년 여에 걸친 작업 기간 동안 200자 원고지 1만 2000장 분량의 초고가 집필됐다. 사적편찬실은 이들 원고를 수차례 감수를 거쳐 전체 10장 상·하 각권 500쪽 분량으로 편찬했다. 각 장은 제1~3장(1900~1953년 구하·경봉 스님), 제4장(1953~1960년 경봉·월하 스님), 제5~6장(1960~1980년 월하·벽안 스님), 제7~10장(1980~2009년 월하 스님)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책에는 일본강점기 통도사에 주석했던 구하 스님이 조선소나무가 울창한 통도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일본 관리를 구슬러 다른 지역의 소나무를 대체 간벌했던 이야기, 만해 스님이 구하 스님의 도움으로 통도사에서 〈불교대전〉을 집필할 수 있었던 이야기 등이 수록됐다.

이 가운데 발간 전부터 종단 안팎의 관심을 끌었던 1998년 조계종 사태 당시의 조계종정이었던 월하 스님 행적에 대한 기술은 서론·결론과 2장의 사진으로 대체했다.

통도사 사적편찬실장 남현 스님은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교계 안팎의 의견을 수용해 후대 불교사학자 몫으로 남기고자 완성된 원고를 발간된 책자에서는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통도사는 책을 종단 구성원 및 불교단체와 불교학자를 비롯해 정치인, 대학·지자체 도서관 등에 무상 배포할 예정이다. 또, 〈근현대 불교사〉에 이어 〈통도사 사지〉와 〈사적지〉 등 편찬도 준비하고 있다.

정우 스님은 "통도사 관련 기록을 정리·편찬하는 것은 1400년 역사의 한국불교를 조명하는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통도사가 계승·발전시켜야 전통을 찾고 정체성을 밝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초우 스님이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를 불단에 봉정하고 있다.

다례재와 봉정식 후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를 주제로 출판기념 학술행사가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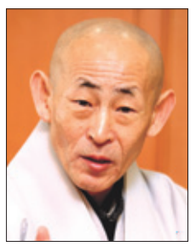
행사에는 △한동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이 '근대불교계와 통도사 주지 구하 스님의 독립운동' △김광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경봉 스님의 수행 교화 불법수호의 원융사' △이경순 신구대학 외래교수가 '월하 스님의 종단 정화운동과 교단개혁활동' △박부영 불교신문 전략기획실장이 '벽안당 법인대종사의 종단관과 생애'를 주제발표했다.

특히 한동민 학예팀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오인됐던 구하 스님이 독립자금으로 비밀리에 지원했던 당시 돈 1만 3000원을 지출한 내역을 조목조목 밝혀 눈길을 끌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1998년 조계종사태 기록 빠져 아쉽다"

### 통도사 사적편찬실장 남 현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가운데 '제9장 개혁세력의 분열과 정화개력회의의 등장'은 (멸빈됐던) 제 입장에서 당연히 써서 알릴 부분입니다. 아직은 1998년 사건을 말할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에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양산 통도사 사적편찬실장 남현 스님(사진)은 12월 16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출판 봉정식 봉행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1998년 조계종 사태로 멸빈됐었다. 2006년 조계종 특별심사위원회를 통해 1998년 사태로 멸빈됐던 정우·현소 스님 등을 구제할 때 남현 스님도 승적을 되찾았다. 10년 여 만의 일이었다.

스님은 "아직 종단이 1998년 문제를 논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남현 스님은 "삭제된 제9장의 첨부 시기는 1998년 사태를 놓고 종단 구성원들이 끝장토론을 벌인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현대 불교사〉는 2년 여 동안 편찬됐다.

"2007년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우 스님이 '구하 스님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됐다'며 이의신청을 위한 자료를 찾아오라더군요. 이의신청 마감 20일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남현 스님은 수십 명을 동원해 국가기록관과 전국 대학 도서관 등을 뒤졌다. 20일 만에 만든 자료를 모아 〈구하대종사 민족불교운동 사료집〉을 출간했다. 이 책이 〈근현대 불교사〉를 펴내게 된 계기가 됐다.

"한국불교근현대사에 대한 연구 서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통도사라는 개별사찰의 역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현 스님은 "지난 역사를 기록하는 문화를 갖지 못한 지형적 한계로 편찬 작업은 지난한 과정이었다"고 회고했다.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도 부족했다. 흩어진 자료를 모으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력, 재정이 필요했다.

스님은 〈근현대 불교사〉의 모든 기록마다 각주를 달았다. 당시 신문기사를 우선 인용해 자료의 객관적을 높였다.

그러면서도 남현 스님은 "이 책에 기술된 내용은 모두 내 책임이다. 제방의 비판과 견책을 겸허히 수용해 개정판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 100자 뉴스

### 군종교구, 17사단 법당에 불교도서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교육사령부 자운사와 17사단 연주사에 불교도서관을 개관한다.

군종교구는 12월 26일 교육사령부 자운사와 12월 29일 17사단 연주사에 들어설 불교도서관은 백천불교문화재단(이사장 조명하)이 불서 200종 2000여 권을 보시하며 이뤄졌다.

군종교구는 "향후 군장병 포교와 인재불사의 일환으로 군법당 불교도서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열린가람 25주년 기념법회

포항지역의 복지법인 열린가람(대표이사 난승)이 12월 9일과 10일 이틀간 포스코 국제관과 포항시청 문화복지동에서 법인설립 25주년 기념식과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이병석 국회의원과 박승호 포항시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포항지역 복지법인 대표 300여 명이 참석해 법인의 25주년을 축하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동산불교大·동산반야회 동산인의 밤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과 동산반야회(이사장 안동일)이 12월 10일 대성 스카이렉스 빌딩 지하 엘마레따에서 '동산인의 밤'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무진장 스님, 안동일 이사장, 한화갑 평화민주당 총재, 박문태 총학생회장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재가불교운동에 매진해온 동산인이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2011년 행운의 동산인'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나은 기자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종로구민 '자비나눔'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12월 15일 종로구청장실에서 자비나눔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재단측이 전달한 쌀 400포와 400개의 산타선물박스는 종로 지역 소외이웃 400가정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기범 기자

### 실상사, 겨울재가학림

남원 실상사(주지 해강)은 12월 25~30일, 2011년 1월 1~6일 겨울재가학림을 개최한다. 실상사 화엄학림은 주제를 선정하여 대화와 토론을 절차탁마하는 논강위주의 전통 승가의 공부 방법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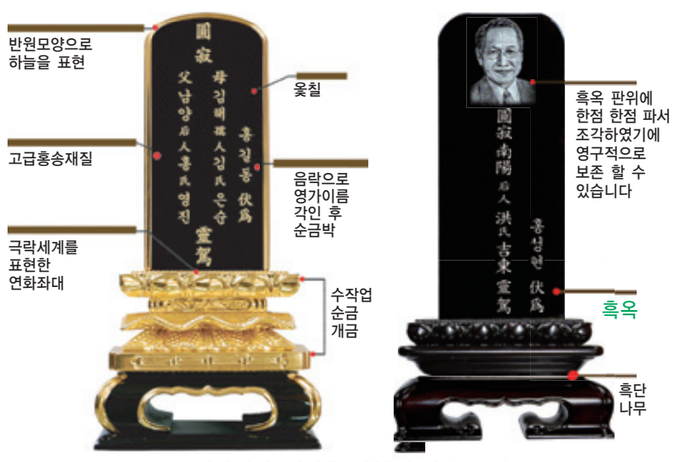
1차 학림 교수는 재연 스님과 도융 스님이, 2차 학림 교수는 재연 스님, 원묵 스님, 혜진 스님이 특강 및 차담에는 도법 스님과 해강 스님이 진행한다. 그밖에 생명평화 100배 서원 절 명상, 포행, 수행일기 쓰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정해진 수칙에 따라 생활해야 하며 참가비는 25만원이다. (063)636-3031

이상언 기자


**황금영구위패는?** ※ 디자인특허 ※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하여 제작한 황금위패로 영가위패단의 품격과 신도는 조상에 대한 승모의 뜻을 높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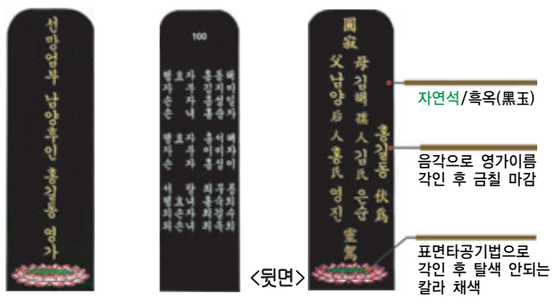

< 안 치 전 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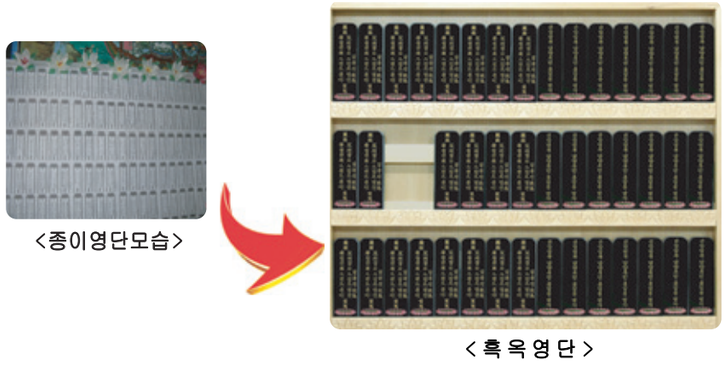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작업 조각

**흑옥위패단은?** ※디자인특허※

◈ 자연석 고급석재로 제작하여 영단의 안정감과 품격을 높여줍니다.
◈ 비용이 저렴하여 많은 신도가 위폐제작에 동참할 것입니다.
◈ 좁은 공간에 많은 봉안영구위패를 장엄 할 수 있는 맞춤형 흑옥위패 단입니다.
◈ 사찰비용없이 영단 설치와 어려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가의 문구는 각 사찰의 요구대로 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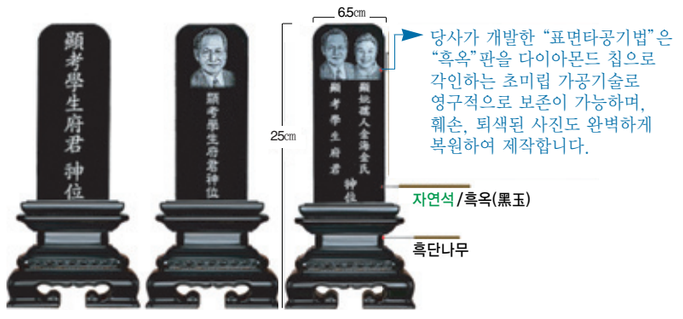


※ 전국 어디든 각 지역 사업부에서 샘플과 자료를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

**흑옥 제사용 위패는?** ※디자인특허※

◈ 제사 때나 명절에 지방위패에 조상님의 사진과 함께 제작한 지방으로 제사를 모시면 생전의 모습을 잊지 않을 것이며, 지방을 쓰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흑옥(黑玉)과 흑단 나무를 부착하여 제작하였기에 영구적으로 보존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시 사진은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제작 후 택배로 보내들입니다.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와 함께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966-9650
(주)대양아트 FAX : 02) 921-9650
본사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6-2 e-mail : dyart@daum.net

# 절에서 나누는 작은 설 · 큰 설

## 전국 사찰서 팥죽·해맞이 시민에게 팥죽 나누기



동지를 맞아 전국 사찰 및 교계 단체들이 팥죽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이 팥죽을 먹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12월 22일은 '작은 설' 동지다. 선조들은 동지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으로 봤다. 신라시대부터 사찰에서는 동지를 맞아 팥죽을 쑤어 나눠왔다. 동지가 동짓달 상순에 들면 애동지라 하고, 중순에 들면 중동지,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 했다. 상순에 든 애동지는 애기 동지라 해 일반 가정에서는 팥죽을 끓이지 않고 팥시루떡으로 액을 물리쳤다. 대신 절에 가서 팥죽을 먹고 돌아오는 풍습이 있었다. 팥죽과 달력을 나누며 한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풍습이 사찰에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12월 18일 서울 인사동 남인사 마당에서 팥죽을 나누며 전통문화를 알렸다.

조계종서대문사찰대표자회(회장 정범)는 12월 21일 서대문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공서에 팥죽을 나누고, 22일에는 유진상가, 포방터시장, 무악제역, 홍제동사무소, 노인정에서 팥죽보시를 진행했다.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는 12월 16~22일까지 동지 7일 특별관음기도를 봉행하고, 동지 팥죽과 신묘년 새해 달력을 나눴다.

보성선원(주지 한북)은 12월 21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동지 팥죽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오후 내내 진행된 행사에는 신도들이 직접 참여해 훈훈한 이웃 사랑을 나눴다.

최근 사찰에서는 동지 외에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로 새로운 신년맞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고요한 사찰에서 타종의식을 체험하고, 기도로 신년을 맞이하는 등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은 31일 조실 진제 스님과 세계적인 신학자 폴니터 교수(Union Theological Seminary)의 평화대담으로 한해를 마무리한다. 주제는 종교남북 갈등을 중심으로 1월 1일까지 대화를 이어간다. 2일에는 불교 수행자 케서린 코넬의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폴 니터 교수는 1월 5일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내적평화와 세계평화'를 주제로 강의할 계획이다.

강화 전등사(주지 혜경)은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 평화와 희망 올리기 타종식을 개최한다. 참석한 모든 사람이 직접 타종을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한다. 사전 행사로는 가족영화제, 고구마 및 떡볶이 나눠먹기 등을 진행하고, 새해 아침에는 삼랑성을 돌며 해맞이를 한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은 31일 삼보일배 대정진 새해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9㎞ 거리를 3보 1배로 정진하고, 새해맞이 타종을 하며 한해를 참회하고 서원한다.

박기범 · 이상언 기자

## 아이넷TV 아름다운동행 후원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성인가요채널 아이넷TV로부터 후원받은 글루코사민 1만 5천통을 사회복지 시설과 사찰 등에 12월 15일 전달했다.

아이넷TV는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을 위한 기부의 뜻을 밝혀왔다. 동행은 기부 받은 '글루코사민 100' 1만 5000통을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과 복지기관의 신청을 받아 배분했다. 글루코사민을 신청한 18개 복지시설 및 사찰, 포교원들은 이 날 아름다운동행을 방문해 글루코사민을 수령해갔다.

아름다운동행 관계자는 "한파추위에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게 됐다. 아이넷TV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넷TV는 한국성인가요채널로 어르신들이 집에서 가장 즐겨 보는 채널이다. 지상파 방송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성인가요를 중심으로 방송을 편성해 안방극장의 주인인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전달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 하나투어 MOU 체결**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만 · 이하 문화사업단)은 12월 14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업계 1위의 국내 여행전문업체인 하나투어(회장 박상환)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내년 1월부터 템플스테이 관광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문화사업단은 부산 범어사, 강원 월정사 · 법흥사, 경북 직지사, 경기 용문사, 대구 동화사, 전북 금산사 등 13개 사찰을 시범 운영 사찰로 선정했다. 이나은 기자

# 진각복지재단 다문화가정 지원 강화

## 회향의 밤 열고 2011년 주요 사업 발표

진각복지재단이 '2010 진각복지재단 회향의 밤'을 열고 올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 목표를 다졌다. 또 '제5회 진각복지대상'을 함께 마련해 각 부문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을 가졌다.

12월 13일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날 행사에서 복지재단 이사장 혜정 정사는 올해 사업에 대해 내실을 다지는 시기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사회복지계와의 교류, 직원 연수, 각 종 사회복지 사업이 활발히 전개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또 내년 상반기에 '진각문화전승원'을 건립하고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2011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민족복지, 문화복지, 국제협력 등을 토대로 국 · 내외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제5회 진각복지대상'에서는 태고종 관음사 포교원, 서호노인복지관,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성동구립연꽃어린이집, 안강지역아동센터, 서원어린이집이 각각 부문별 수상기관에 선정됐다.

박기범 기자

## 눈처럼 하얀마음 담은 풍경소리 31집

### 12월 30일 좋은벗풍경소리 후원의 밤




좋은벗풍경소리(회장 성행)가 31번째 찬불동요 창작곡집을 발표했다. 겨울을 맞아 발표된 음반에는 눈, 겨울사찰, 겨울바람, 풍경소리, 부처님을 소재로 한 겨울 신곡이 가득하다.

새 음반에는 △눈이 온다더니 △함께해요 △부처님 되지요 △겨울바람의 소리 △우리 절 하얀 눈 △나의 부처님 △태극기 예뻐요 △웃어요 등 총 8곡을 선보였다. 앨범에는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반주 음악을 함께 녹음해 활용도를 높였다.

음반은 전국 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 교재, 각 사찰 어린이법회, 겨울불교학교 등에서 찬불가 교재로 활용된다. 후원단체인 조계종 포교원, 천태종 교무부, 진각종 포교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불교방송, 불교TV 등을 통해 보급된다.

1~30집의 노래는 좋은벗풍경소리, 키즈붓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다.

한편 좋은벗풍경소리는 12월 30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불교문화예술공연장에서 '후원의 밤 붓다콘서트'를 개최한다. 붓다콘서트에는 공연과 함께 후원회원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www.budsori.or.kr / www. kidsbuddha.org

이상언 기자

## '불교입문' 파워포인트 CD 배포

### 강의안 · 한글반야심경 등 담아 전국 사찰에

이해가 쉬운 시청각자료를 활용해 사찰 신도기본교육과 법회 의식을 진행하는 포교 콘텐츠가 나왔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연구실장 정호)은 '불교입문 파워포인트 강의안'과 '법회의식 그래픽 영상'을 개발했다.

불교입문 파워포인트 강의안은 포교연구실에서 제작한 〈불교입문〉(조계종출판사 刊)과 〈불교입문 강의지침서〉(조계종출판사 刊)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강의안은 △절을 찾아서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생애 △진리의 세계 △불자의 신행△우리도 부처님 같이 등 6장의 주제로 22강에 걸쳐 진행하도록 돼있으며 300쪽으로 구성됐다.

강의안은 쉽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내용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각자료를 넣었다.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제1장 절을 찾아서 편에서는 합장, 가부좌, 절 등을 시연하는 모습의 시각자료를 넣어 이해를 도왔다"며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등 각 단원별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요개념을 제시하고 장의 특성에 맞는 불교적인 내지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포교연구실은 또 "글자판 전체를 이미지로 찍어 시연환경이 좋지 않은 밝은 곳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글씨로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포교연구실은 '법회의식 동영상'으로 △삼귀의(1분 7초) △한글반야심경(3분 9초) △사홍서원(1분 9초)을 개발했다.

각 동영상은 내용전달력이 높은 3D 및 모션그래픽 기법을 사용해 신심과 종교적 감흥을 일으키도록 구성했다.

정호 스님은 "불교 교리강의 및 법회를 진행할 때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다는 스님들의 요청이 있어왔다. 이번 콘텐츠 개발로 기본교육활성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현재 700개를 CD로 제작해 불교대학과 수도권 주요사찰 및 해외사찰에 보급했다.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콘텐츠 내용을 강화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교입문 파워포인트 강의안'과 '법회의식 동영상'은 종단 홈페이지의 교육→신도교육→포교자료실→신도교육자료와 '미디어포교자료' 게시판에서 각각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포교연구실에서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OS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인 어린이 영어포교 자료 '헬로 달마스쿨'과 '독경반야심경'을 개발해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www.buddhism.or.kr 이나은 기자


옥천범음대학
2010년 동계방학 특강안내

| 과 목 | 교 수 | 기 간 | 수업요일 | 수업시간 |
|---|---|---|---|---|
| 홍 고 | 김능화 스님 (영산재 범패 이수자, 범패 박물관 관장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외래교수 | 2010년 12월 27일 ~ 2011년 1월 24일 (5주) | 매주 월요일 | 오후 1시 ~ 4시 |
| 도량장엄 | 이경암 스님 (영산재 장엄 준보유자) | 2010년 12월 28일 ~ 2011년 1월 25일 (5주) | 매주 화요일 | |
| 법고무 | 이기봉 스님 (영산재 범패 준보유자) | 2010년 12월 29일 ~ 2011년 2월 16일 (6주) * 구정연휴기간 2월2일 ~ 2월9일 제외 | 매주 수요일 | |

※ 각 과목별 수업요일과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접수방법 : 특강 수강신청서 1부 (옥천범음대학 행정실)

▶ 접수문의 : 02)392-3234

유네스코 세계무형 문화유산 등재
중요무형문화재영산재보존회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이기봉 합장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 교육과목 | 교육기간 |
|---|---|
|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 14주 과정 토요일 반 |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 "만인에 봉사함이 참 불공"

## 백련문화재단, 성철 스님 불교개혁론 조명

"우리 종단은 그동안 갖가지 병폐가 누적돼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뜻있는 이들은 걱정해왔다. 우리 종단을 일대 혁신하지 않는다면 종단의 앞날은 도저히 발전을 기할 수 없고 마침내 쇠망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지난 100년간 한국불교에서는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 이래로 많은 스님들의 다양한 개혁안들이 등장해 바른 불교의 모습을 찾고자 노력했다. 한국불교의 성철 스님도 종정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1980년 12월 불교신문에 종단 개혁안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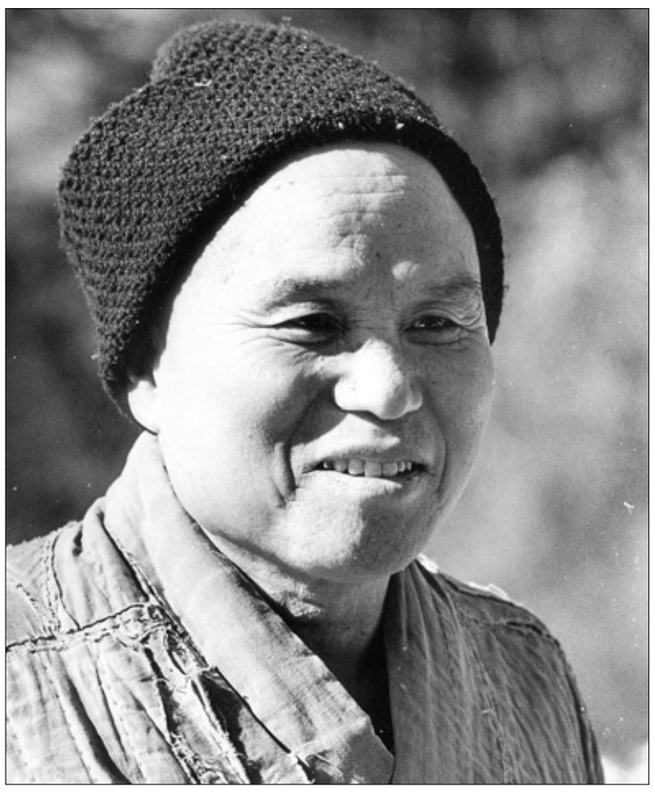
당시 10 · 27법난으로 위기에 놓여있던 한국불교의 바른 모습을 찾고자 토하셨던 그 사자후가 30주년을 맞은 지금 한국불교에게 던지는 메세지는 무엇일까.

백련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12월 14일 '한국불교 개혁론 100년과 성철스님의 개혁론'을 주제로 성철 스님의 불교개혁론을 조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경집 진각대 교수는 '1980년에 발표된 성철 스님의 종단개혁론'을 통해 성철 스님이 제안한 승려교육, 법사제도, 재정개혁, 중앙관리 제도를 고찰했다.

김경집 교수는 "성철 스님은 모순을 거부하고 과감하게 바꾸고자 노력했다. 그런 노력의 목표는 승단의 본분을 지키는 것으로 부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올곧은 수행풍토의 정립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성철 스님이 불교신앙적인 측면에서 제시한 개혁방안은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행해온 신앙관을 전환하자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신앙적 대상에게 행하던 불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불공의 제시였다"고 말했다.



성철 스님은 관습적으로 행해져 온 신앙의 대상에 대한 신앙이 아닌 만인에 봉사하는 신앙을 제시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성철 스님의 신앙에 대한 개혁은 한국불교가 사회를 위한 신앙으로 전환됨을 의미했다.

스님 스스로는 부처님 법대로 살고자 실천한 결사에서 여러 불필요한 신앙적 대상을 정리해 승가의 수행풍토를 변화시켰다. 스님의 개혁방안은 불자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참불자로 살아갈 것인지 길을 열어준다.

스님은 그 뿐만이 아닌 교단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많은 개혁적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향을 살펴보면 교육을 통한 우수한 수행자 양성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한 방향을 예견 할 수 있어야 하고, 포교를 위한 인재를 양성해 타종교에 비해 열세인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그리고 재화의 올바른 사용과 조직의 투명성을 강조해 불교의 사회적 지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김 교수는 "불교계 스스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모순의 극복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 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스님의 개혁론을 볼 때 스님이 포교에 얼마나 고심했고, 산중에 수행하면서도 불교의 사회적 발전을 위해 고심했는지 짐작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식 교수는 '근현대 불교개혁론의 지평'을 통해 근현대 불교개혁론을 연구하기에 앞서 "개혁론은 그 자체로 고정적인 대상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체와도 같기에 다면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이 요청된다"며 관계 학자들의 연구방향을 제시했다.

김광식 교수는 "1980년대 10 · 27법난을 겪으며 불교계에서는 각성 자주의 흐름이 강력하게 등장했다"며 "이런 흐름은 특히 불교계 외부에 나타난 민주화의 세례를 받고 불교의 민주화 불교의 사회화를 주장하며 불교 모순 해결에 적극 나섰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처럼 근현대 개혁의 흐름은 다면적인 활동과 성격이 개재돼던 것"이라며 △발표된 시점 · 장소 △발표된 형식 △생산 여건 △조력자, 동의자, 동참자 △존속기간 △영향 · 파장 △성과 △제도화 등 세분화해 개혁론을 연구할 것을 제시했다. 또 김 교수는 △보수와 진보 △관련 이념 △노선의 일관성 △현실인식 △대안제시 측면에서 개혁론의 사상적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 "해탈과 정의 추구 같다"

〈正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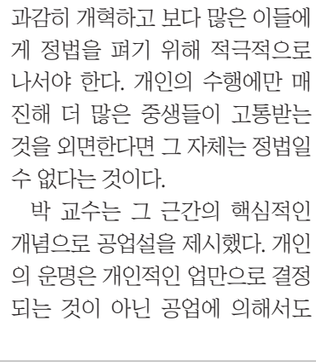
## 박경준 교수, 불교 근본 지향점은 사회참여 주장



'〈정의란 무엇인가〉가 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냐'는 질문에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 이유를 '정의에 대한 배고픔'이라 표현했다.

5000만의 한국인들은 아노미 현상(사회규범의 변화에 의한 혼돈상태)을 겪고 있다. 북한과의 전쟁은 옳은가? 4대강은 진행해야 하는가? 신문을 펼치면 하루에도 수십개의 논쟁거리가 쏟아져 나오지만 그에 대한 답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 무엇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중생들의 번뇌에 불교는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

박경준 교수는 최근 출간한 〈불교사회경제사상〉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옳다는 것, 요컨대 '불교의 정의(正義)'에 대해 정의하고 그 답을 내놓고자 했다.



박경준 교수

### 파사현정이 불교다

불교의 현실 참여를 학문적 과제로 연구해 온 박 교수가 말하는 '정의'란 보편적인 진리의 실현과 동시에 중생들이 고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생사해탈을 추구하는 것과 공동체의 정의를 지향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불교는 자리이타(自利利他),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종교다. 중생제도는 불교의 근본적인 지향점 가운데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교는 그동안 이웃종교에 비해 사회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박 교수는 그 원인에 대해 "대중적 삶과 현실에 대한 무관심을 당연시 한 일부 선가의 시대착오적 풍토에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불교인 스스로가 새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사회 · 문화적 이념의 계발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 불법이 산중, 경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최근 불교계가 겪고 있는 불교폄훼와 자주성 훼손이란 측면에서 인근 사찰을 찾아 기도 올리는 수많은 불자들은 이러한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박 교수의 지론에 따르면 불자들은 부조리한 현실을 과감히 개혁하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정법을 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개인의 수행에만 매진해 더 많은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한다면 그 자체는 정법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그 근간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공업설을 제시했다. 개인의 운명은 개인적인 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공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대반열반경〉의 '교진여품'을 예로 들었다. 교진여품에서는 "일체중생이 현재에 4대와 시절, 토지와 인민들로 인해 고통과 안락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일체중생이 모두 과거의 본업만으로 인해 고통과 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느니라"고 설하고 있다.

박 교수는 〈대승열반경〉에서 이뤄진 업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인도사회가 전쟁 등으로 예측 불허의 돌발사태가 잦고 혼란스러웠으며, 불교교단 내부적으로도 무사안일주의의 팽배와 갈등과 대립이 극심한 배경에서 나왔음을 주목했다.

박 교수는 "어지럽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업보 윤회 사상만으로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능동적인 대처가 힘들었다"고 강조했다.

### 민중불교 정신 계승해야

사회 각 사안에 대한 불교계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박 교수의 이러한 논의는 1980년대 민중불교운동에 대한 조명에까지 미친다.

박 교수는 "민중불교운동은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민중이 체험했던 사회적 고통에 대한 불교적 성찰이자 사회실천운동이었다"며 "그 짧은 역사에도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종단들의 체질변화와 불교시민단체의 태동이 그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민중불교운동의 이념을 계승해 사회적 실천을 통한 세계완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고귀명수 (鼓龜命數 : 육임운명판단법)" 할인 출시 및 "효사 활인천역집 (曉史活人天役集 : 육임종합 CD프로그램)" 리콜 (무료) 실시!

"본회 사이트 첫 화면에 아래 -·=의 '활용효과성'을 위한 설명 강의 동영상을 올려 놓았습니다"

## -.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리콜 실시 안내




1. 정 가 : 5백만원
2. 기 능 : 상담전문활용육임종합 CD 프로그램
3. 리콜(무료교환) 대상 :

가. 효사활인천역집 2010완결판
(판단의 애매성이 일부항목에서 불식되지 않음)

나. 효사활인천역집 2010완결보정판
(판단의 애매성이 일부항목에서 불식되지 않음)

다. 효사육임사주감정법
(대,세,일 운세 배치 오류 발견 됨)

4. 리콜이유 :

가. 승인(인증)기능을 없앴음.

나. 신분 직업을 미리 알수 있도록 보충 하였음.

다. 초사(初辭)와 내정(來情)의 핵심사에 대한 애매성을 불식시키기위해 아래 사항들의 낮 밤, 남 · 녀 구분 및 어간(語間)의미를 최정련 시켰음.

1). 근친상간자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를 위해 해당 천장 분별과 낮 · 밤 시간 구분 표시를 철저히 했음.

2). 남녀삼각관계(一男二女 · 一女二男)와 불비 · 부족관계에 있어서의 애매한 부분(三傳三合 / 四課 全 一 陽 · 陰)에 대한 채용 · 불채용의 적용을 명확히 했음. 이때 남자 또는 여자가 질투로 남자 또는 여자를 살해하게 되는 대상 남녀의 구분도 엄중히 했음.

3). 교동(狡童 : 남자가 타인의 부인을 유혹하여 색정거래 하는 것)과 음일(淫溢 : 여자가 남자를 적극 유혹하여 가출하려는 것)의 낮 · 밤 시간 판단구분을 철저히 했음.

4). 부인이 간사(姦私)로 남편을 살해하는 대상 여인도 엄중히 구분해 적시 했음.

5). 데릴사위 신분임을 철저히 구분해 적시했음.

6). 처에 의한 소송을 당하는 남자를 철저히 구분해 표시 했음.

7). 부부이별 하는자에 대한 구분을 철저히 표시 했음.

8). 상신(傷身) 또는 불구(不具) 여부가 본인 · 처첩 · 자녀 · 부모 · 형제 중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엄중히 표시 했음.

9). 혈광사의 대상과 암매사의 대상을 양일(陽日)과 음일(陰日)로 분명히 구분시켰음.

10). 고등(사법 · 행정 · 외무 · 변리 · 회계)시험과 대학입학 시험 합격자 및 선거 당선자 여부를 별도로 표시 했음.

11). 12귀신(作事鬼 病鬼) 중 '여귀(女鬼)' '음귀(陰鬼)' '가택귀(家宅 鬼)'의 종류를 새로 보강 했음.

12). 12부정(邪崇)중 부정침범부위(신변 · 가택 등)를 철저히 구분해 표시 했음.

13). 산소탈 14부 중 묘지속 상태에서의 '뱀굴' 여부 · '복골' 여부 · '水듬' 등 여부를 재정련 시켰음.

14). 집안에 귀물(鬼物 : 木 · 火 · 土 · 金 · 水)이 있는 경우 이를 표시 했음.

15). 기타에 있어
가) 이 사람이 왜 왔는가?
나) 이 사람의 전체적 상황은 어떠한가?
다) 이 사람의 구체적 문제는 무엇인가?
라) 이 사람의 비밀사안은 어떤 것인가?
마) 묻고자 하는 일이 이미 벌어졌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바) 바깥일인가? 집안 내부 일인가? 후회하는 일인가?
사) 밝혀도 되는 일인가? 숨기고 싶은 일인가?
아) 上人(男)에게 유리한 일인가? 下人(女)에게 유리한 일인가?
자) 내 말을 신뢰 하는가? 설득해야 하는가? 자기 고집이 있는가? 등 위 프로그램에 장착된 15종 600여가지 사안 중 위 큰 항목 1 · 2 · 3 세가지와, 작은 항목 1-15 내용을 정련 · 보강 · 삭제 시켰으므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5. 위 1항 대상외 기존 "효사활인천역집 Ⅰ · Ⅱ · Ⅲ CD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환 시기가 수차 있었기 때문에 금번 리콜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6. 2010.12.13일 - 12.31일 동안만 할인가 25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 =. 고귀명수(鼓龜命數) 출시

"안녕하십니까?"

중동지절(仲冬之節)에 저 고복자 효사 문안드립니다.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鼓龜命數)'를 시작한지 4년만에 드디어 완성 시켰습니다.

선입금 하시고 지금껏 기다려 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귀명수' - 혼신을 기울여 무섭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사주(四柱)에 연연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시간의 방문자마다, 이어지는 다음 사람들까지, 또는 출생 연월일시별로, 표시해 놓은 해당 쪽수만 펼치면 거기, 군더더기 하나 없는 속 시원한 내용 들이 또박 또박 써져 있을 것입니다.

읽고 해석해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인 부동(不動) 단구(單句)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간추려 드리건대 **수명 관계 / 건강 · 질병 관계 / 직업 · 신분 관계(來情과 命運 겸용) / 배우자 성정 · 용모 관계 / 명운 관계 / 부부 선후사(先後死) 관계 / 일생 귀인조력 · 유무 및 그 거소지 관계 / 일생 구해(仇害)인 유무 및 그 거소지 관계 / 육친별 상신불구(傷身不具)관계 / 출산자녀친구(親仇)관계 / 매년 나이별(신수) · 길흉관계 / 띠별 현재 상황 관계 / 여자운명 관계 / 초년 · 중년 · 말년 길흉 및 육친 불행 관계 / 초 · 중 · 말년 12작사귀 · 12병귀 · 침범관계 / 신변 · 가택 · 초 · 중 · 말년 12부정 침범관계 / 산소탈-육친 중 누구에 의한 파가(破家) 또는 흥가(興家) 하겠는가? 관계 / 묘지속 '뱀굴' '복골' '水듬' 관계 / 남녀 혼인기(期)관계 / 전체 인생정체(定體) 관계 / 구체적 인생 행로(行路) 관계 / 살인 · 색정 · 생사별 · 사고 · 사건 관계 / 12궁위(本命 · 財 · 兄弟 · 田宅 · 子息 · 奴業 · 夫婦 · 病危 · 遷移 · 官職 · 老後福德 · 相貌) 길흉 관계까지**, 육임의 장점인 정확도 · 신속도 · 그 효과성에 맞춰 최대한 - 후회없이 - 잘 살펴 놓았다는 점을 주지해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을 일별할 수 있게 한 일,

曉史集 第二十七集
鼓 龜 命 數
고 귀 명 수
- 육임운명판단법 -
鼓卜子 曉史 共著
龜五子 乙山
도서출판 朱雀

통권 1권 · 순별6권 · 60갑자 매일별 60권 / A4 · A3 크기 중 선택하십시오.

즉 복 · 명(卜 · 命)을 합쳐 '명운(命運)'과 '당면사정(當面事情)'들이 모두 한 면 한 눈에 들여다 보이게끔 구성시킬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일상(日常)을 떠난 세월'과 '육임에 대한 역사성'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못해 낼 작업이었고, 애제자 귀옥자 乙山의 외지조응(外之助應)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귀명수'의 완성은 '육임이 복(卜)일뿐 명(命)에는 약(弱)하다'는 오해를 단 한번에 불식시킨 쾌거로서, 수천년 육임사에 이 책과 같은 '명 · 복 활용서'로 까지 만들어진 예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 개인의 불행사가 육임 '고귀명수'를 만들어내게 한 소명으로까지 이해하고 이 책의 완성과 함께 제 인생의 완성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운에 있어서 -이 책처럼 딱딱 부러지는 '정형화(定形化) 되어있지 못한 것'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분명히 써 놓아야만 흑 · 백이 가려질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한 눈금의 오차가 없어야 할 우리 활인 천역자들의 '잣대'이면서 '칼'임에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선입금을 받고도 4년을 끈 저의 진의는 바로 이점 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여기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미리 알고 권위있게 먼저 하게 될 말씀들을 애써 기록한 것입니다. 대 만족하실 것 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책 값은 3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 소식을 접한 분들께서는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겠기에 **2010년 12월 13일 - 12월 31일** 사이 동안만 150만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또, 기존 저의 각 활용서(래정비법시리즈)를 실비에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70-7514-8680에서 제가 직접 주문 받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庚寅 仲冬 鼓卜子 曉史 拜上

**고복자(鼓卜子) 저술 소개** 진정한 프로를 위한 진검승부적 위상을 제고시킨 육임활용 · 학습서들 입니다. 육임공부를 하지 않아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로 쉽게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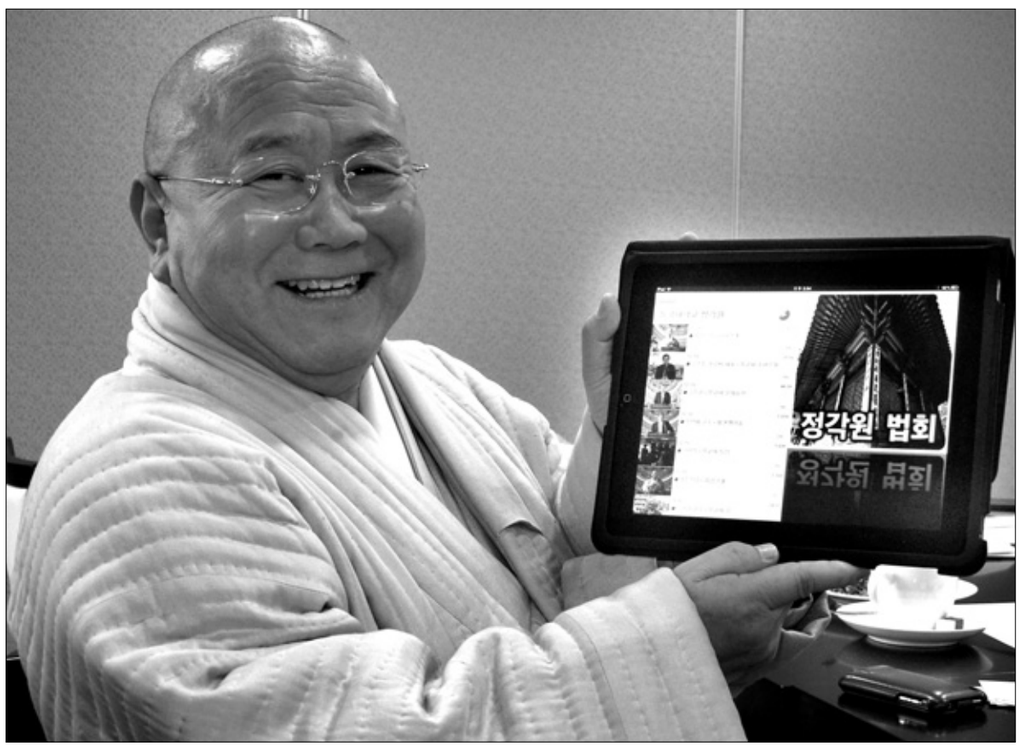
**활용서**
-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최종 2011 완결판
- '효사육임산책'(휴대용) · '효사육임복변집'(좌정용)
- 도사에게물어봐(2011 증보판)
- 출산길일길시택일비법(2011 개정판)
- 육임풍수(2011 개정판)
- 육임 1년신수비결(2011 개정판)
- 육임래정비법(증보개편판 : 휴대용 좌정용)
- 도정기(道程記) - 신간
- 불가법요집(佛家法要集) - 고품격완성도 / 해당법문 경구 색인 수록 / 법회의 감동심 고취 구성 / 각종행사 30여 발원 · 기도문 게재 등 새 지평이 제시됨.
- 육임대계전서(2011 개정판)
- 본 효사활인 천역집(2011판 완결최종판 CD프로그램)
- 본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鼓龜命數)
- 효사육임강의 CD(2011년 최신판)
- 오행제례의식집(2011 개정판)
- 효사육임복변집부록(2011 개정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2011 개정판)

**학습서**
- 효사육임강론(曉史六壬講論) 2011 보정완결판 /
  · 上권 : 육임각법종합구성 / 2050쪽(학습용)
  · 下권 : 육임서 역대저자 머리글 / 육임대요문답/ 사과삼전보기요령/항목별주요신장제시 /사과삼전표 / 천지반표 / 과 / 격 / 초사 / 국수해설 / 항목별성부단정 수록 / 2015쪽(임상용)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070-7514-868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www.taotemple.net

# 아이폰으로 정각원 법회 들어요

희망법당
**동국대 정각원**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이 아이패드로 아이튠즈에 접속해 정각원 법회를 소개하고 있다.

## ‘대학 최초’ 불교 콘텐츠 폰 서비스… 아이튠즈서 다운로드
## 아이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 말씀 들을 수 있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는 말이 있다. 반대로 부처님이 내 손안에 있는 상황도 있다.

〈금강경〉 〈반야심경〉 〈유마경〉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롯해 불교를 접목한 학문을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동하면서 들을 수 있게 됐다.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과 동국미디어센터(센터장 유흔우)는 12월 15일 아이폰 팟캐스트(Podcast)에 불교 법문 컨텐츠를 송출하기 시작했다.

정각원과 동국미디어센터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 환경에 부응하고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아이폰 팟캐스트에 법회 컨텐츠를 송출한다”고 밝혔다.

정각원은 “2007년부터 매주 진행하고 있는 정각원 토요법회를 학내 교육방송국 직원들이 촬영, 녹화, 편집해 인터넷으로 방송하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언제 어디서든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환경에 맞게 재구성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시작된 팟캐스트는 미국 애플사가 개발해 운영 중인 새로운 형태의 방송서비스로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를 통해 아이튠즈 코너에 접속해 오디오와 비디오 방송을 다운로드 받아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폰 방송이다.

아이폰 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이튠즈에 접속해 ‘불교’ 혹은 ‘정각원’ ‘법회’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법회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할 수 있으며 정기구독이 가능해 자동으로 다운로드돼 시청할 수 있다.

현재 팟캐스트에는 △법타 스님의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해주 스님의 〈화엄경〉 강의 △한완상 前 통일부장관의 ‘불교와 통일’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의 ‘불교와 문화유산’ △정병조 동국대 교수의 〈반야심경〉 강의 등 불교계 큰 스님, 동국대 교수진, 그리고 각계 명사들의 가르침과 신행담 20여 개가 업데이트 됐다.

정각원은 팟캐스트를 통해 사회 저명인사들의 강연과 함께 학내 교수진과 스님들의 경전별 법문 등으로 법회를 세분화해 방송 서비스를 다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법타 스님은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불교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제 기다리는 포교가 아닌, 언제 어디서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포교를 게을리 한 탓에 한국 불교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 법당에는 오지 못해도 지식인과 사회 활동하는 젊은 불자들이 이동하면서 법문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국미디어센터장 유흔우(동국대 철학과) 교수도 “동국미디어센터는 이미 지난 7월 자체 기술로 아이폰 앱 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멀티미디어 환경에 맞는 온라인 법문 서비스를 정각원과 함께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종립대학과 불교계가 협력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는 이번 정각원 법회의 팟캐스트 서비스 외에도 학내 방송인 교육방송국(DUBS) 학생국원들이 직접 제작한 다큐멘터리 ‘산사를 찾아서’ 도 팟캐스트를 통해 송출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까지 3회가 방송된 다큐멘터리 ‘산사를 찾아서’ 는 대학생들이 직접 사찰을 찾아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참 나를 찾아간다는 기획으로 ‘운길산 수종사’ ‘파주 보광사’ ‘삼각산 진관사’ 편이 방송됐다.

이 밖에 동국미디어센터는 아이튠즈 유(iTunes U) 채널을 활용해 불교 및 동양철학 등의 강의를 송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

동국미디어센터 대학미디어팀 유권준은 “아이튠즈 유에서 U는 Unversity의 약자로 학술 컨텐츠를 모으는 사이트를 뜻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마이클 샌델의 하버드대학 강의 등을 아이튠즈 유에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한국대학에서 진행한 명강의 등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동국대는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해 이를 잘 활용할 구상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아이폰 · 아이패드 · 아이팟 터치 사용자는 아이튠즈 접속→‘불교’ ‘정각원’ ‘법회’ 키워드 검색으로 법회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다. 동국미디어센터는 향후 갤럭시S, 갤럭시 탭, 안드로이드 폰용 컨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다.

### # 팟캐스팅이란?

팟캐스팅(Pod casting)은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려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팟캐스트를 선택해 정기적 혹은 새로운 내용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방송을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팟캐스트는 ‘Personal On Demand broadcast’ 의 줄임말이다. 주로 MP3와 같은 미디어 파일을 웹에 올리고 RSS파일의 주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배포하며 애플사의 아이튠즈와 같은 응용프로그램으로 팟캐스트를 검색하고 구독하며, 컴퓨터에서 직접 재생하거나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로 전송한 뒤 재생한다.

##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저는 영혼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영혼과 종교는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영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자께서는 영혼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군요.

불교 관점을 중심으로 영혼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육체를 떠나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실체로서의 자아(진아, 아트만)나 영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나의 외부 저 밖에 창조주, 절대자, 영혼 등의 어떤 존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께서 궁금해 하는 영혼 자체가 불교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는 물질[몸뚱이, 色], 느낌[受], 인식[想], 심리현상들[行], 알음알이[識]의 다섯 가지 무더기[蘊]의 적집(오온)일 뿐 이라며, 나라는 존재를 해체해서 설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존재’ 는 12처로, ‘세계’ 는 18계로, 진리는 사성제로, 생사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보게 되면 모든 존재(諸法)의 무상 · 고 ·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무상 · 고 · 무아를 통찰함으로 해서 염오하고 탐욕이 빛바래고 그래서 해탈 · 열반 ·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다섯 가지로 해체해서 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 혹은 자아(아트만)라는 고정 불변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불변하는 나를 찾아서 온갖 노력을 다해봐야 얻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자체는 인식[想, 산냐]이 있을 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초기불교와 주석서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생생히 전개되는 이 마음을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 으로 설명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제법들로 분해하고 해체해서 보면, 자아니 인간이니 중생이니 영혼이니 창조주니 절대자니 하는 무슨 변하지 않는 불변의 실체가 있다는 착각이나 고정관념을 깰 수 있고, 이렇게 법들로 해체하면, 이러한 법들의 찰나성[無常]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찰나를 봄으로 해서 제법이 괴로움[苦]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법은 모두가 독자적으로는 생길 수 없는 연기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Q** 현재 본인이나 본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본인의 과거 업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로부터 정해진 업이 인연에 의해 현재 일어난다면, 본인이 현재의 상황을 바꾸고자 노력한다고 해도 업이 바뀌지는 않는 것 아닌가요? 다만 지금의 노력이나 변화가 미래나 후생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가요?

만약 노력으로 현재의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것 또한 과거의 업이 현재의 어느 시점에서 바뀔게 정해진 것이 인연이 도래돼 바뀐 것일 뿐 아닌가요?

**A** 상담자께서는 인연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상담자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과거세의 원인으로 인해 현세에 결과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다음 세계에 다가가는 것 보다는 현재에 닥친 고통에서 헤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더 절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불이법(不二法)과 제행무상(諸行無常)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지요. 그렇다면 현재의 고통을 과거세의 인연법으로만 보고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한다고 한탄하며 포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헤쳐 나갈 수 있을까? 고심하며 최선을 다하여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어진 생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생을 바꿀 수 있을지를 고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제공 : 불교상담개발원**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 불교에서 영혼은 있습니까?
## 고정불변한 어떤 실체도 없습니다


## (사)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입 종 안 내

본 종단은 문체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제2010-17호)를 받은 정법수호 종단입니다.
종헌 제80조에 의거 사설사암을 창건한 승니 및 신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과 상속권을 영구히 보존합니다. 제방에 참신한 종도들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입 종 서 류**
- 법복 착용한 반명함판 사진 4매
- 주민등록등본 1통
- 법당 내외 사진 각 1매
- 주민등록 앞뒤 복사 1통
- 입종원서 (종단양식)

**행 자 모 집**
승려(재가승 포함)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나 사암(포교원)을 운영하시려는 분의 교육을 위해 본산에서 행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총무원에 문의)

**교 부 서 류**
입종 완료와 동시에 주지 임명장, 사찰등록증, 승려증, 본종 사단법인 등록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수 계 득 도**
본 종단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득도, 사미(니), 비구(니) 수계를 미루어 오신 스님들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금강계단을 설단합니다. (총무원에 문의)

입종문의 : 전화 054)231-3101 (총무원) / 팩스 054)292-9301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474번지 구운사
(사)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총무원장 보월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76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작법반 (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 신행과정 ( 1 년 )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 ( 1 년 )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12월 中
◆ 개강일시 : 2010년 12월 中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겨울방학 신나게 행복하게 스님이랑 깔깔깔



## 전국사찰 겨울방학 프로그램 다채



이상언 · 이나은 기자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새학년 성적은 물론 대학이 뒤바뀐다.'

학부모와 자녀들은 이 말을 흘려듣기 힘들다. 머리를 맞대고 겨울방학 계획을 세우다보면 온통 학원이다. 안쓰럽지만 어쩔 수 없다. 학생이 공부는 해야 하니 말이다.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마음에는 여유를 주고, 학업능률은 높이는 프로그램을 선물해 보고 싶다면 과감하게 사찰로 눈길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이색프로그램을 선보여 관심을 모은다. 깨끗한 자연 속에서 전통 불교문화체험은 물론이고 영어, 스키, 역사탐방, 리더십 프로그램, 선무도, 승마 배우기, 청소년 비전 워크숍 등 취미 생활이나 부족했던 경험이나 체험의 기회가 가득하다.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본부장 혜오, 이하 문화원)은 '청소년 명상리더십 캠프 겨울 방학 대인배 프로젝트' 를 내놨다. 대인배 프로젝트는 사회교육 전문가 그룹인 에듀맥스의 리더십 프로그램에 불교 명상과 선무도 등의 수행을 접목했다. 이는 불교의 절 명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마음에 여유를 주고, 캠프 후에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남양주 봉인사, 속초 신흥사, 대구 동화사, 강화 연등국제선원 등에서는 외국인 스님, 원어민과 함께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영어를 통해 전통불교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도록 했다.

해남 미황사, 서산 부석사, 남해 용문사는 한문 마당을 마련했다. 경주 골굴사 수련은 종합체험세트다.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 명상 · 무용치유, 불교강의와 한문교육, 원어민 영어회화, 문화관광 등을 일주일 단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지 역 | 사 찰 | 대 상 | 일 정 | 프 로 그 램 | 연 락 처 | 참 가 비 |
|---|---|---|---|---|---|---|
| 서울 | 비로자나국제선원 | 중 · 고등생(수험생 환영) | 1.8~9 | 자우 스님과 함께하는 깔깔깔 마음 찾기 청소년 겨울캠프 | 02-6012-1731 | 10만원 |
| 서울 | 공생선원 | 중1~고2 | 1.1~1.29 | 스님법문, 절(108배), 참선, 잔상훈련, 듣기훈련, 읽기훈련, 모둠활동 등 | 02-900-2448 | 5만원 |
| 경기 여주 | 신륵사 | 초등생 | 12.27~12.29 | 신륵사 문화답사, 찬불가, 발우공양, 부처님의 일생, 촛불의식, 긍정명상, 수계 회향식 | 031-885-2505 | 3만 5000원 |
| 경기 안성 | 활인선원 | 중1 이상 | 12.25~12.29, 12.31~1.4, 1.14~1.18<br>1.21~1.25, 1.31~2.4, 2.18~2.22 | 법문, 점검, 행선, 좌선, 예불, 선어록 독송, 요가, 단식, 묵언 산행 | 1644-5266 | 60만원<br>(장려금 20만원 환급) |
| 경기 화성 | 신흥사 | 초등생 | 12.24~26 | 선재동자 성불놀이, 범종 법고 운판 목어 체험, 태권도, 교화공원 꾸미기,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031-357-2695 | 5만원 |
| 경기 화성 | 신흥사 | 중 · 고등생 | 1.7~1.9 | 선재동자 성불놀이, 범종 법고 운판 목어 체험, 태권도, 교화공원 꾸미기,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031-357-2695 | 5만원 |
| 경기 남양주 | 봉인사 | 초6~중등생 | 1.7~1.9, 1.14~1.16 | 청소년 영어명상 템플스테이 | 031-574-5585 | 10만원 |
| 인천 강화 | 연등국제선원 | 초4~중 · 고등생 | 12. 27 ~ 12.29, 12. 29 ~ 12.31,<br>1.3 ~ 1.5,1.5 ~ 1.7 | 외국인 스님에게 영어로 듣는 불교 이야기, 나는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며 배우는 참선,<br>108배, 강화도 역사탐방 (마니산등반) 혹은 신나는 우주여행 (옥토끼우주센터) | 032-937-7033 | 7만원 |
| 강원 인재 | 백담사 | 중 · 고등생 | 1.3~1.29 | 자기 주도적 학습력 개발과정 청소년 비전 워크숍, 효과적인 시간 관리법,<br>매일 집중명상 훈련(호흡법, 단전호흡, 절 명상, 걷기명상, 차 명상 등),<br>겨울 대청봉 정상 산행, 스키 및 보드 강습, 동해 해맞이 | 010-7456-8809 | 200만원 |
| 강원 속초 | 신흥사 | 유치부, 초 1,2년 | 1.14~1.16 | 선체조, 한국불교무용, 독서토론, 빙구타기, 찬불가 배우기 등 | 033-637-7044 | |
| 강원 속초 | 신흥사 | 초3~6년 | 1.14~1.16 | 헬로달마스쿨, 참선, 108배, 마음 성장 드리미 the Less the More, 다도명상, 독서토론, 빙구타기 | 033-637-7044 | |
| 대구 동구 | 동화사 | 초4~중2 | 1.3~8 | 미국교과서를 이용한 과목별 수업, 영어 스피드 퀴즈, 팝송 배우기, 영어 발표,<br>사찰예절교육, 다도체험, 전통놀이 | 053-982-0101,0223 | 50만원 |
| 전남 해남 | 미황사 | 초4~6년 | 1.2~8 | 한문학당, 숲 체험(전문 숲해설가의 달마산의 숲과 나무의 설명, 나무목걸이 만들기),<br>별자리탐방, 탁본체험, 땅끝바다 체험, 달마산 산행, 산사체험, 다도, 요가명상 | 061-533-3521 | 30만원 |
| 전남 영광 | 불갑사 | 초4학년 ~ 중등생 | 12.24~12.26, 1.14~1.16 | 스님들의 일상을 체험하고 눈싸움, 썰매타기, 캠프파이어, 고구마 구워먹기 등 | 061-352-8097 | 초 3만원, 중 4만원 |
| 전남 나주 | 심향사 | 초 · 중등생 | 12.29~1.1, 1.9~1.15 | 부모은중경 배우기, 애니어그램을 통한 나 알기, 눈썰매장, 독서토론 | 061-334-2880 | 12만원, 25만원 |
| 전남 나주 | 심향사 | 고등생 | 1.3~1.5 | 애니어그램을 통한 나 알기와 치유 | 061-334-2880 | 20만원 |
| 충남 공주 | 태화산<br>전통불교문화원 | 중 · 고등생 | 1.3~5,1.6~8,1.13~15,<br>1.17~19,1.20~22, 1.27~29 | 소통 · 긍정 · 실천 · 협동 · 감성 · 비전 · 창의 · 감사 리더십프로그램,<br>절 명상, 백범의 명상, 선무도, 연극 등 | 041-841-5050 | 35만원(2인 이상 할인) |
| 충남 공주 | 태화산<br>전통불교문화원 | 초등생 | 1.10~1.12, 1.24~1.26 | 소통 · 긍정 · 실천 · 협동 · 감성 · 비전 · 창의 · 감사 리더십프로그램,<br>절 명상, 백범의 명상, 선무도, 연극 등 | 041-841-5050 | 35만원(2인 이상 할인) |
| 충남 공주 | 영평사 | 초6~중등생 | 1.7~1.9, 1.14~1.16 | 청소년 영어명상 템플스테이 | 031-574-5585 | 무료 |
| 충남 서산 | 부석사 | 초4~6년 | 1.16~1.22 | 한문교육, 산사체험, 다도, 참선, 발우공양, 단청 그리기 | 041-662-3824 | 20만원 |
| 전북 전주 | 참좋은우리절 | 초등생 | 12.24~26 | 공부로부터 벗어나 즐겁게 놀아보기, 발우공양, 108배, 사찰예절, 찬불가, 미니올림픽, 촛불의식 | 063-236-6633 | 3만원 |
| 경북 김천 | 직지사 | 중 · 고등생 | 1.10~1.14 | 108배, 명상, 염주만들기, 연등만들기, 부모은중경, 반야심경사경, 다도, 발우공양, 암자순례 등 | 054-436-6084 | 15만원 |
| 경북 김천 | 직지사 | 초등생 | 1.17~1.22 | 108배, 명상, 염주만들기, 연등만들기, 부모은중경, 반야심경사경, 다도, 발우공양, 암자순례 등 | 054-436-6084 | 15만원 |
| 경북 성주 | 도솔암 | 초4~고등생 | 1.1~3 | 청소년 겨울수련법회 | 054-931-0175 | 3만 5000원 |
| 경북 영천 | 은해사 | 초 · 중 · 고생 | 상시운영 | 1일 문화체험형, 1박 2일 숲속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 054-335-3318, 2277 | |
| 경북 경주 | 골굴사 | 초 · 중등생 | 12.26~ 1.22 |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 명상치유, 무용치유,<br>불교강의와 한문교육, 원어민 영어회화, 문화관광(성지순례, 박물관) | 055-775-1689 | 1주 49만원, 2주 90만원 |
| 경남 합천 | 해인사 | 초등생 | 1.14~16 | 해인사 겨울 수련회 | 055-934-3110 | 7만원 |
| 경남 합천 | 해인사 | 중 · 고등생 | 1.21~23 | 해인사 겨울 수련회 | 055-934-3110 | 8만원 |
| 경남 고성 | 옥천사 | 중 · 고등생 | 12.30~1.1 | 숲속걷기명상 및 사불, 떡국먹기, 전통문화체험, 탁본, 심리검사 및 토론,<br>명상 실습, 집단상담 무의식의 자기표현하기 | 055-672-0100 | 10만원 |
| 경남 남해 | 용문사 | 초 · 중등생 | 1.3~6 | 한문학당, 인성교육, 생활예절교육 발우공양, 참선, 산행 | 055-862-4425 | 20만원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봉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 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불자몰 ▼ www.buljamall.com
불자종합쇼핑몰 BuljaMall
불자용품, 사찰홍보용품, 판촉물, 기념물, 답례품
인쇄물전문(봉투, 전단지, 초대장 등)
최대 50% ~ 70% 할인
소량구매도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문의전화 : 070-7257-0408

# 고창군 개발에 시름하는 문수산 단풍숲

## 고창 문수사, 전주지법에 '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축승인 취소' 제기

### 산악오토바이 코스 수행처 통과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문화재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개발에만 몰두하는 고창군의 일방적인 행정에 더 이상 인내만 할 수 없다."

호남 불교계가 문수사 생태환경 보호와 문화재, 수행환경 보호를 천명했다. 전북 고창군(군수 이강수)이 천연기념물 463호 단풍나무 숲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한 고창 문수사(주지 선법, 조계종 24교구 선운사 말사) 주변에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공사 착공식을 감행했다.

호남지역 5개 교구본사(금산사, 대흥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를 비롯해 대불청,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찰생태연구소 등 12개 단체는 '문수산 생태보호, 문수사 문화재보호,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법만, 이하 대책위)를 꾸리고 문화재청과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축승인 취소' 소장을 전주지법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대책위는 12월 15일 전북불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계는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의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도 공익과 공공성 이라는 이름아래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며 적극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고창군의 사과 △팜스테이 빌리지 조성사업 즉각 중단 △천년고찰 문수사와 천연기념물 단풍나무 숲 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문수사 주지 선법 스님, 금산사 일원 스님, 선운사 포교국장 심학 스님, 교무국장 도운 스님, 포교국장 종진 스님 등이 참석했다.

고창군 '신기 팜스테이 빌리지 조성사업' 은 '2010 전북향토사업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총 사업비 3억 2000만원의 예산(국비 · 군비 각 1억5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이 투입된다. 문수사 단풍나무 숲과 일주문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민박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수사 측의 사업 재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12월 1일 착공식과 함께 공사 감행을 단행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고창군은 문수사 계곡에 산악용 4륜 오토바이(ATV) 코스 조성사업, 농촌체험장 조성, 임산물 판매전시장, 전통식당가 조성 사업이 포함됐다. 이중 우선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문수사 단풍나무 숲을 통과하는 ATV사업은 문수사와 협의 없이 계획됐다.

문수사 주지 선법 스님은 "지역주민에 이익이 된다면 본사인 선운사와 조계종 총무원과 협의를 통해 숲에서 떨어진 곳의 문수사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무시됐다"며 "고창군은 문수사와 고창군, 마을주민들과 협의할 것을 약속했으나 문화재청의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공사착공을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투명한 행정과 문화재를 보호하고 사찰의 수행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하는 사업을 요구할 뿐이다" 이라고 덧붙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터미널 주변 모텔 속 꿈꿔온 정토

### 군산 성불사 창건 30주년 맞는 종 명 스님



예나 지금이나 군산지역은 타 종교의 교세가 드세고 불자들이 많지 않은 반면, 항구도시의 특성상 무속 신앙도 공존하는 지역이다. 1981년 전법도량으로 창건된 성불사는 군산 고속버스와 직행버스 터미널이 바로 앞에 법당을 세웠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점을 터전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터미널부근의 지리적 특성상 주변에 모텔이 들어서는 등 입지조건이 좋지만은 않았다.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은 예토를 정토로 바꾸겠다는 원력으로 30년 동안 지역의 포교 도량이 돼왔다.

군산 성불사는 종명 스님의 은사 벽송당 재훈 스님이 1981년 창건했다. 처음 가정집을 매입하여 2층에 법당을 신축하고 관음보살을 봉안하고 기도정진에 매진한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때 종명 스님은 은사스님과 함께 불자 직행버스 기사들의 법회를 지도하기도 했다. 터미널의 바로 뒤편에 도량이 위치하고 있어 버스기사들이 틈만 나면 절에 와 참배하며 안전운행을 기원했다. 스스로 기사 불자들을 모집해 정기적인 법회를 봉행하기도 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배려도 남달랐다. 신도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불자들의 집에 매월 쌀을 보내 격려하고, 경로 시설인 수심양로원과 전북의 순창양로원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해 왔다.

"창건 30주년을 맞아 지역 불자들의 신행활동 프로그램을 고민 중입니다. 내년 봄부터는 보다 세련되고 알찬 신행프로그램으로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도울 계획입니다."

올해로 창건 30주년을 맞는 군산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은 불자들의 새로운 신행활동에 주력한다.

"내년부터는 신도조직을 개편, 활성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포교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가족법회나 거사림법회 창립을 포함해 지금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종명 스님은 기도정진을 일관하고 있다. 종명 스님은 자비도량참법기도, 천수다라니 독경, 금강경 독경, 사경법회 등 다양한 신행활동을 통해 지역실정과 불자들의 근기에 맞게 신행생활을 지도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 bud1080@naver.com

## 광주전남신도회, 조직화 주력

### 광주불교회관 건립

광주전남신도회 활성화와 재가불자회 발전 방안에 대한 워크숍이 진행됐다.

광주전남신도회(회장 지용현)는 12월 11일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불교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 △사찰신도회의 활성화 △홈페이지 및 홍보활동의 강화 △신도회의 교육강화 프로그램 개설 △광주불교회관 건립 △지역불교문화의 개발 및 활성화 등을 통한 조직화에 입을 모았다.

행사에는 지용현 회장 송광사 신도회 곽종형 회장, 광주전남 포교사단 정영균 단장, 광주광역시 시청불자회 송승종 회장 등 30여 광주전남 신도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지용현 회장은 "서두르지 않고 신도조직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겠다"며 "단계별로 시군구 신도회장을 선임하고, 신도회의 산하조직을 구성, 시민들과 함께하는 불교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로 만든 김치 나눠요"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센터장 정선, 대광사 주지)는 12월 11일 대광사에서 스님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김장을 담그고, 38가구에 300여 포기 김치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10일 소년소녀가장 20여 세대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광주동구불교協 신임회장 혜명 스님

광주동구불교협회 신임회장 혜명 스님 취임법회가 12월 11일 조선대 여자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법회는 전 회장인 지각 스님 이임법회와 함께 불교영산작법 제5차 시연회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는 혜명 스님, 前 동구불교협의회 회장 지각 스님(동원사 주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 유태명 동구청장, 박주선 민주당 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혜명 스님은 취임사에서 "불교의 발전은 존중에 있다. 종단과 성별 등의 차별을 떠나 종도들의 소통을 통해 동구불교의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각스님은 이임사에서 "광주지역 불교1번지 동구지역의 불교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적은 시간, 작은 나눔이 생명 살린다"

### 광주생명나눔, 2010 생명나눔의 날 후원자 및 봉사자를 위한 나눔 잔치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12월 11일 콜롬버스시네마 하남점 대연회장에서 '2010 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나눔의 날에는 1년간 노력한 자원봉사자, 후원자에 대한 포상과 치료기금 전달, 축하공연 등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현지 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을 비롯해 백혈병 환우가족, 후원회원과 자원봉사자 등 15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생명나눔차봉사단 문금자 단장, 원효사 청년회 박근용 회장에게 감사패를 , 목포 보현정사 청년회 박성철 씨에게 조혈모세포기증 감사장을 전달했다.

자원봉사 대상에는 매주 주말을 이용해 89시간을 봉사한 수완고 윤미라 양이, 시장상에는 매년 60시간 이상을 봉사한 조대여고 박한솔 양이 수상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콜럼버스시네마(대표 임장택)에서 모집한 헌혈증 4000매와 아름다운 나눔의집 모금함 458만원, 김은희 후원회장의 500만원 전달식도 진행됐다. 현지스님은 "생명나눔의 실천은 결코 어렵지 않다. 적은 시간, 작은 금액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 된다"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hanmail.net

## 독경대회 교정 프로그램 새 모델

### 선각종 10년째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 열어

교도소 재소불자들을 위한 독경과 노래자랑이 새로운 교정 프로그램의 새 모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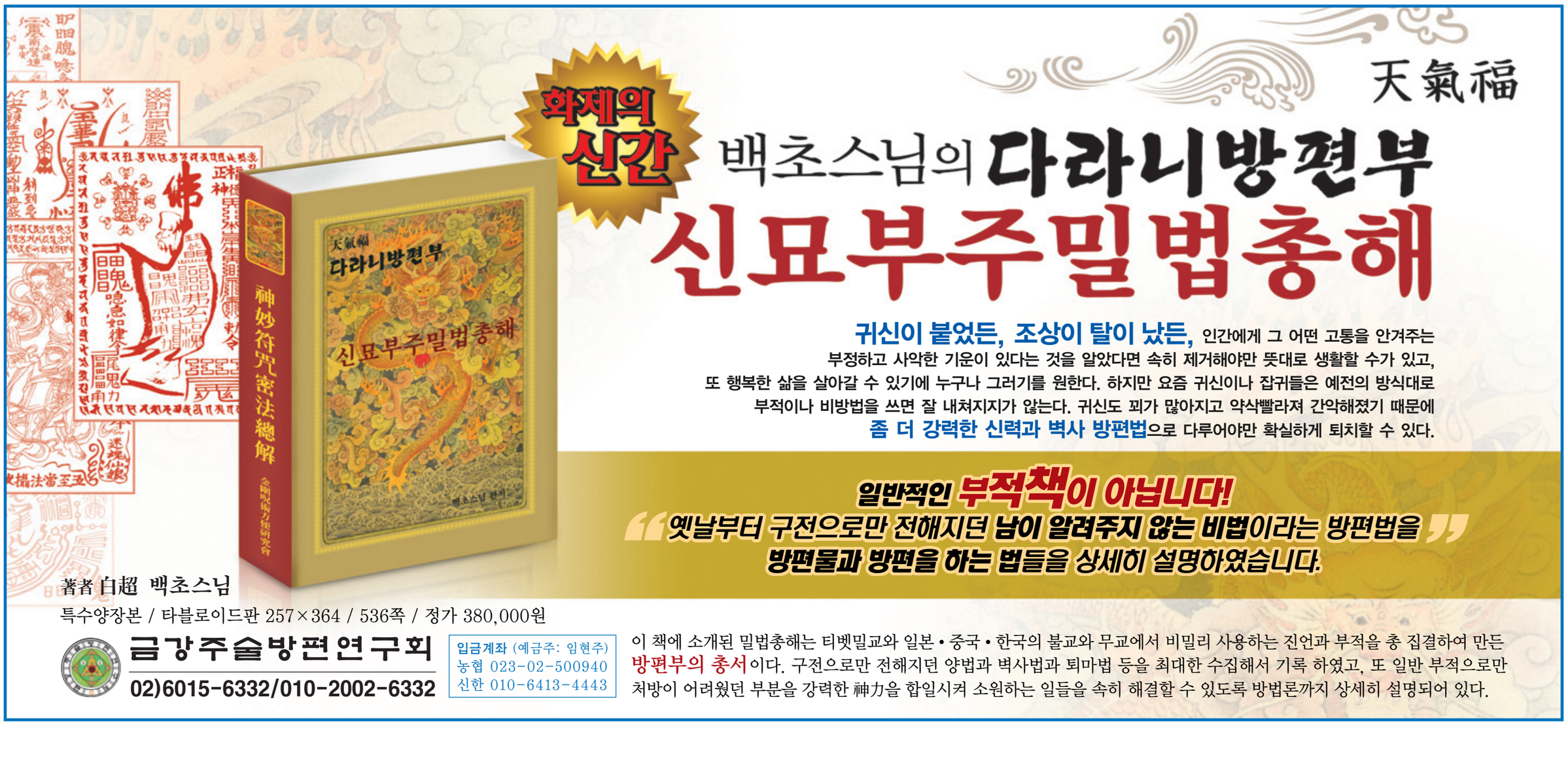
대한불교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12월 15일 광주교도소 대강당에서 300여 재소자가 동참한 가운데 '제10회 불교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 를 개최했다.

정암 스님을 비롯해 선각종 종단 사찰 스님들과 신도 3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36명의 재소자가 10개 팀으로 참여해 경연을 벌였다.

대상에는 '혜연선사발원문' 을 독경한 정재열 씨가, 우수상은 '사대주' 를 독경한 박원락 씨가 수상했다.

정암 스님은 격려사에서 "독경대회는 단순히 부처님의 말씀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는 자리보다는 불교의 진리를 실천하는 자리이다. 재소불자들은 독경과 염불을 통해 참회의 삶을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⑰

선원총림의 조직과 기구(6) - 전좌(典座)와 직세(直歲)

# 음식 공양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매진

## 전좌, 대중공양 중시한 선원총림 음식 전담
## 직세는 도량과 당우 관리에 울력 동원 권한



해인사 공양간에서 스님들이 공양 후 설거지를 하고 있다.

### 밥 주걱과 나무 망치에 담은 공심(公心)

6지사의 하나인 전좌(典座)는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할 음식 · 반찬 등을 만드는 직책으로 오늘날 주방장과 같은 소임이다.

본래는 대중의 상좌(床座)인 침상, 포단(좌구), 와구(臥具 · 침구) 등의 관리와 음식(飮食)을 맡았던 소임이었다. 그러나 대중들의 공양을 중요시했던 선종사원(총림)에서는 음식만 전담하게 됐고, 주방의 일을 총괄 · 감독한다.

율장의 하나인 〈사분율〉에는 "부처님이 기사굴산에 계실 때, 탑파마라자 비구가 대중 가운데 뽑혀서 뭇 수행자들의 상좌(床座)와 와구(臥具), 그리고 음식 분배를 맡았다[典衆僧床座, 臥具乃分飮食]"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것이 전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전좌에 대해서는 〈승사략〉과 〈조정사원〉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승기률〉에는 관련 업무에 대해 침상, 좌구, 와구, 방사(房舍), 의복(衣服) 등 아홉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 전좌의 화두는 깨달음 밑바탕 되는 공양

전좌를 우리나라 사찰 소임과 비교하면 원주(院主)를 보좌하는 별좌(別座)와 같은 소임이다. 그러나 〈선원청규〉 등 청규서에는 '별좌'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직명으로 추정된다.

전좌를 공양주(供養主) · 공두(供頭) · 반두(飯頭)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설명도 아니다. 공양주 · 공두 · 반두는 모두 밥 짓는 소임으로 채공(菜供 · 채두), 갱두(羹頭 · 국 끓이는 소임), 미두(米頭) 등과 함께 전좌 밑에 있는 소직(小職)이다. 그 밑에는 공두를 돕는 공두행자(供頭行者) 등 여러 행자들이 있다.

전좌는 상주하고 있는 대중과 신도, 외부 손님 등을 고려해 쌀과 반찬 등 식자재를 꺼내 왔다. 매일 짜여진 고정 식단이 있고 수시로 새로운 식단과 특별 음식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공양했다. 부엌살림을 총괄하려면 무엇보다도 오랜 경륜이 있고 인내와 이해심이 많아야하기 때문에 주로 전좌직은 나이 많은 이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전좌의 화두는 무슨 반찬과 음식을 만들어야 대중들이 맛있게 공양하고 그것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밑바탕이 될까하는 것이었다.

#### 음식 장만을 선수행의 일환으로 생각

일본 조동선의 개창자인 영평도겐(永平道元: 1200~1253)이 〈전좌교훈〉에 쓴 송(宋) 유학기를 보면 노(老) 전좌 스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도겐 나이 24세인 1223년 초봄, 그는 선불교를 배우기 위해 본 고장인 송(宋)으로 가는 상선(商船)에 몸을 싣는다. 그러던 어느 날 도겐이 타고 있던 배에 아육왕사 전좌 스님(61세)이 올라왔다. 스님이 40여 리를 걸어서 영파항에 정박하고 있는 일본 상선(商船)을 찾은 것은 뽕나무 오디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대중들에게 특별히 국수공양을 올리려고 하는데, 마침 국수 국물을 내는 뽕나무 오디(말린 오디)가 그 일대에서는 품절됐던 것이다.

도겐은 전좌 스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눈 뒤에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일찍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자 그는 "내일 대중들이 공양할 국수는 자신이 직접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내 나이가 61세로서 전좌직을 맡았는데, 이것이야말로 노인이 돼서도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전좌의 일은 잠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소"라고 밝혔다.

도겐이 다시 "번거롭게 전좌직을 맡아서 일만한다면 무슨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자 전좌 스님은 "일본의 젊은 스님, 그대는 아직 판도(辦道 · 선 공부)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군"하며 자리를 떴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한다. 대체로 반찬 등을 만드는 일을 싫어하는데, 이 노(老) 전좌들은 반찬 만들고 음식 장만하는 일을 노년의 선 수행, 곧 판도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도겐이 지은 〈영평청규〉에는 특별히 전좌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것이 '전좌교훈'인데, 여타 청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도겐은 전좌가 무엇보다 청결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주의로 음식물이 상하거나 세균에 오염됐을 경우 만든 음식을 모두 버리게 되고, 만일 대중들이 먹고 배탈이라도 난다면 수행하는 대중들이 고통을 받고 자칫하면 동사(화장실)가 범람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 대중을 위하는 진심 가장 중요

〈선원청규〉 3권 전좌장에는 "전좌직은 대중의 재죽(齋粥 · 밥과 죽)을 맡은 소임이다. 모름지기 도심을 움직여 때에 맞게 음식을 바꿔 대중들이 안락함을 수용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재료(齋料)를 낭비하지 말라. 주방을 점검해 깨끗이 하라. (…) 음식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직접 살펴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음식의 가지 수를 정할 때에는 미리 고사(庫司 · 감원)나 지사(知事 · 감원)와 상의하라. 장(醬)과 말린 나물 등은 모두 전좌가 관장하되 그 때를 잃지 말라. (…) 주방에 솥이나 기물이 오래돼 파손된 것이 있으면 그 때마다 교환, 보충하라"고 이르고 있다.

또한 "행자를 시켜서 공양물을 승당(또는 중료)으로 보낼 때는 모름지기 하나하나 지도하되 분명하게 알게 하라. (…) 전좌는 주방에서 공양할 때 대중이 먹는 것과 달리하지 말라. 재(齋 · 밥)와 죽(粥)이 준비되면 먼저 승당을 향해 분향 예배한 다음 음식물을 보내야 한다"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이 가운데 "전좌는 주방에서 공양할 때 대중이 먹는 것과 달리하지 말라"는 말은 주방을 담당하고 있다고 혼자 좋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齋 · 밥)와 죽(粥)이 준비되면 먼저 승당을 향해 분향 예배한 다음 보내야 한다"는 말은 전좌의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말로서 참으로 향기 나는 말이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대중들을 봉양한다면 좌선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수행은 그것으로서 끝났다고 할 수도 있다.

〈선림비용청규(禪林備用淸規)〉에는 "전좌 소임은 진심으로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승당의 전당수좌와 상의해 대중을 잘 봉양할 수 있는 자로 뽑아야 한다. 만(萬)에 하나라도 잘못돼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당말의 선승 설봉 의존(822~908) 화상은 가는 곳마다 전좌 소임을 전담했다. 그는 행각할 때 항상 쌀 이는 조리와 밥 푸는 주걱을 가지고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전좌 소임을 맡았다고 한다.(雪峰, 擔笊籬木杓行脚, 到處作典座. 출처: 원오의 〈불과격절록〉) 항상 자기 손에 익숙한 조리와 주걱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방장 소임을 자임한 것이다. 그가 중국 선종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것도 이 조리(笊籬)와 주걱 때문이다. 조리와 주걱 속에서 조사(祖師)의 마음을 발견한 것이다.

주방의 정식 명칭은 고원(庫院)이다. 또 주고(廚庫), 고리(庫裡), 고당(庫堂), 향적실(香積室), 향적당(香積堂)이라고도 한다. 향적당은 향기가 가득 쌓여 있는 음식이라는 말로서 대승경전인 〈유마경〉 향적품에 나오는 말이다. 고원은 주방과 식자재 창고(쌀과 식품 등)가 붙어 있는 건물로서 매우 크다. 산문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급수 시설이 매우 좋아야 한다.

#### 도량과 당우 관리는 직세

직세는 6지사의 하나로 도량과 당우(건물)의 보수 및 관리를 담당한다. 〈선원청규〉 직세장에는 "직세직은 무릇 선원과 관련된 작무(作務 · 보청, 울력)는 모두 직세가 맡는다. 직세의 직무는 요사(寮舍), 창문, 담장 등 당우 수리(修理)를 담당한다. 그리고 방앗간(정미소), 유방(油坊 · 기름 짜는 건물), 농막, 마굿간, 전원(田園), 선거(船車) 등을 관리하며 산림(山林)을 보호하고 도적을 방호(防護)한다. (…) 모름지기 공심(公心)으로 일을 하되 때를 알고 옳은 바를 분별해야 한다. 만일 큰 공사(工事)나 큰 울력이 있을 때에는 주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직세의 업무 영역과 주의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도 새로운 것은 직세가 울력 동원령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직무상 감원이나 도사(都寺) 등이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직세가 갖고 있다는 것은 의외이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도량과 당우의 보수 및 관리 담당인 직세가 울력 동원령을 갖고 있는 것이 더 타당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누구보다도 울력해야 할 일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소임자가 직세였기 때문이다.

또 직세의 직무가 도량이나 당우만이 아니라 총림 소유의 산림(山林)까지 관리했다. 산림 간수(看守)까지 겸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대체로 원주가 울력 동원령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직세(直歲)라고 말은 '한 해(歲)를 맡는다(直)'는 뜻으로 본래는 1년마다 돌아가면서 맡았기 때문이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changhwa9@hanmail.net

현지사 소개
그 열번째 주제
– 대적광전 –

## 그 누가 알리오? 그 어느 성자가 불(佛)의 三身(열반경의 伊字 ∴ 點)을 알것인가?
## 석가모니부처님 이후 가섭과 아난, 수보리, 사리불 외 청정법신을 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현지사 대적광전에 모셔진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석가모니부처님의 법신(法身)을 말합니다. 시방삼세의 모든 붓다들의 소의처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주 온 법계와 완전한 계합을 이룬 우주적 무형의 무량억종광입니다. 그 비로자나불의 광명은 시방법계 뿐만 아니라 중생의 마음까지도 비추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대적광전(大寂光殿)은 이러한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신 전각입니다.
현지사의 대적광전 역시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신 곳이지만 여기에는 여타의 대적광전과 다른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바로 붓다에 의해 점안된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 깨우친 그 자리(空 · 마음 · 자성광)는 청정법신이 아니다

깨달음의 자리, 즉 공(空) · 자성광의 세계는 아라한의 수준으로 붓다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영역입니다. 마음의 자유로움을 이야기하는 아라한의 수준으로는 육도윤회하는 중생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대승경전에 나오는 니르바나(Nirvana)의 세계인 정토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삼신(三身), 특히 청정법신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무량억종광으로 이루어진 청정법신은 붓다의 영역으로, 청정법신이 머무는 상적광세계는 붓다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 법계의 가장 깊은 심연의 영역, 청정법신의 상적광세계

수행자의 공부가 깊어지면 천안(天眼)이 열리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여러 세계의 경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세계에도 주(住)하지 않고 일념정진하면 공(空)의 자성광을 만나게 되니 이를 증득한 이를 아라한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팔정도 칭명염불을 통해 부처님 가피에 힘입어 더 깊이 수행해 나아가면 보살의 영역인 극락정토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토에서도 한참을 지나서 도달하게 되는 무량광의 세계를 상적광세계라고 합니다.

◆ 불과를 이룬 대성자가 점안한 세계 유일의 성지

우주적 존재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대적광전에 점안하기 위해서는 점안의 주체가 붓다의 영역에 이르러야 합니다. 붓다의 삼매인 대적정삼매를 통과하여 상적광세계에 자신의 법신을 둘 수 있어야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바세계의 수많은 대적광전 중에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점안된 곳은 오직 이곳 현지사의 대적광전 뿐입니다. 부처님의 두 상수제자 가섭과 아난이 이 땅에 다시 몸을 받아와 불과를 이룬, 겁에 한번 있을 붓다회상이기 때문입니다.

◆ 우주적 위신력을 이땅에 놓으시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현신하실 때면 우주 온 법계의 모든 보신 부처님이 석가모니부처님의 청정법신으로 들게 됩니다. 이때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이외에 법계에는 어떤 보신의 부처님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주 자체의 대생명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우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한정이 없습니다. 못이룰 것이 없기에 우주의 이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 중생들을 위해 한량없는 가피를 주시게 됩니다.

◆ 매월 음력 1일, 청정법신이 현신하는 경천동지(驚天動地)의 순간

매월 음력 1일은 현지사 재일로 가섭과 아난, 두 상수제자의 원력으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이 현신하시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우주적인 능력을 지니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 전 인류적인 혹은 온 우주적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적 자리에 참석한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신심있는 불자들이라면 겁에 한번 있을 무한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붓다회상의 재일에 참석하여 역사의 한페이지에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절찬리 방영중!!
(QOOK 550, BTV 521, U+108번)

효(孝)를 실천하는 현지사에서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미증유한 천도대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현지사의 천도대재는, 부부 각각의 친 · 외가쪽 조상님 40여명과 인연 깊은 3~40명의 윗대 무주고혼 조상 영가님 모두를 삼매의 힘으로 수배하여 영가의 현주소를 파악, 집전 장소로 데려옵니다. 복위자의 업을 소멸시켜주며 도량과 복위자의 집을 이전보다 더 맑을 정도로 깨끗이 영적인 청소를 해줍니다. 또한 조상 영가님들을 부처님께 공양올린 공덕으로 한단계 높은 곳으로 천도해 드립니다. 네 번이면 무주고혼과 지옥의 영가들을 하늘 천국까지 올려드리는 세상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희유한 천도재입니다.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력 8일, 23일 http://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1795 / 대전 분원 042)525-5325, 5345 / 부산분원 051)554-5150

# 박물관 벗어나 제자리로 돌아가야 '성보'



## ❼ 타향살이 하는 부도와 탑비 국립중앙박물관

웅장한 국립중앙박물관. 대리석으로 장엄된 마당에서 우리나라에 부도가 처음 만들어진 시절의 걸작들을 만나게 됩니다. 염거 화상탑(廉居和尙塔, 국보 제104호), 봉림사 진경 대사 보월능공탑(鳳林寺 眞鏡大師 寶月凌空塔, 보물 제362호), 보리사 대경 대사 현기탑비(菩提寺 大鏡大師玄機塔碑, 보물 제361호), 흥법사 진공 대사탑과 석관(興法寺 眞空大師塔과 石棺, 보물 제365호), 거돈사 원공국사승묘탑(居頓寺 圓空國師勝妙塔, 보물 제190호)이 한 줄로 서 있습니다.

경복궁 뜰에 서 있다가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옮겨 오면서 함께 이사를 온 부도들은 마당에 전시품으로 서 있습니다. 이 부도들은 박물관에 서 있기만 한다면 선사의 생애를 담은 신령스런 표상이기 보다는 그저 하나의 유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학술적인 연구를 위해 잠시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나라를 빼앗은 자들이 제멋대로 감상이나 하려고 자리를 옮겨다 놓은 것을 해방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박물관의 유물 리스트, 전시목록에 그 현주소를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보로서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한 점의 유물로 박물관 뜰이나 지키고 서 있는 부도와 탑비들. 오래 전 이 부도와 탑비의 주인들은 쩌렁쩌렁 한 시대를 이끌던 고덕들이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로 약탈됐던 조선왕실의궤와 외규장각도서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시점에 나라 안에서 부당하게 자리를 옮겨진 채 한 세기가 다 되도록 타향살이를 하는 이 성보들은 어째서 박물관 마당을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성보로서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한 점의 유물로 박물관 뜰이나 지키고 서 있는 부도와 탑비들. 오래 전 이 부도와 탑비의 주인들은 쩌렁쩌렁 한 시대를 이끌던 고덕들이었습니다.

저려오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부도밭 아닌 부도밭으로 다가갑니다. 맨 앞에 자리 한 염거 화상(?~844)탑은 844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부도의 시초는 강원도 양양 진전사의 도의 국사 부도이고 그 형태가 석탑에서 부도로 전이되는 과정이란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도의 국사의 제자인 염거 화상의 부도는 팔각원당형 부도의 전형을 이룬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도 역사에서 최초의 팔각원당형부도인 셈입니다. 제 짝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지대석 위에 온전한 하대석과 중대석 그리고 상대석, 제법 두께를 가진 탑신 고임돌과 문비와 사천왕상이 조각된 탑신, 기왓골이 정연한 옥개석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륜부는 모두 상실됐습니다.

이 귀중한 부도는 1914년 일제에 의해 서울 탑골공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경복궁으로 갔다가 지금은 용산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도가 있던 원래의 자리가 어디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조선미술사〉나 '조선금석문' 등에는 원주 흥법사지가 원래 자리라고 적었으나 이는 일제에 의한 조작이라는 설도 있어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염거 화상의 부도는 역사적으로나 미술사적으로 국보 중의 국보임이 틀림없지만 못난 후학들은 그 주소조차 분명하게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구산선문의 하나인 봉림산문의 개산조 진경 대사(855~923)의 부도가 서 있습니다. 진경 대사 심희(審希)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탑비인 '보월능공탑비'에 따르면 진성여왕과 경명왕이 대사를 줄곧 존경해 왕궁으로 초청해 법석을 열곤 했습니다. 그런 선지식으로 개창한 봉림사는 지금 초라한 빈터로 남아 있고 진경 대사의 부도는 박물관 마당에 서있습니다. 1919년 일제가 경복궁 뜰로 옮겼고 다시 용산으로 온 것입니다. 이때 탑비도 함께 옮겨졌는데 지금 박물관 마당에는 탑만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탑비 하나가 서 있습니다. 양평 보리사 터에 있던 대경 대사 현기탑비입니다. 안내판을 읽어 봅니다.

"이 탑비는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활동하던 성주산문의 대경 대사 여엄(麗嚴 862~930)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이다. 대사가 입적한 지 9년이 지난 고려 태조 22년(939)에 세워졌다. 거북받침돌(龜趺)의 거북 머리가 용머리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탑비에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머릿돌(螭首)의 구름과 용은 매우 생동감 있게 조각됐다."

양평 보리사도 지금은 밭으로 변한 옛 절터일 뿐입니다. 대경 대사가 당대에 얼마나 존경받던 고승인지는 부도탑과 탑비를 세우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비문의 한 문장이 잘 말해 줍니다.

"학업을 전해 받은 제자 융단과 흔정 등 500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손히 스님의 도덕을 펴고자 비석을 세울 것을 윤허해 달라는 표(表)를 올렸다."

그토록 존경 받던 대덕이었지만 그가 입적한 절이 역사의 파도에 휩쓸려 폐사가 되고 나니 절터는 밭으로 변했고 거기 있던 대사의 탑비는 박물관에 와있습니다. 1914년 일제가 경복궁 뜰로 옮겼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500여 제자들이 왕에게 건의해 세웠다는 대경 대사의 부도는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대학 본관 뒤편에 총장관사가 있고 그 후원에 이렇다 할 표지석도 없이 부도만 덩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한 부도는 부도가 아니라 장식물일 것 같아 가슴이 아립니다.

'대경 대사 현기탑' 다음 칸에 서 있는 부도는 옆에 석관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원주 흥법사지에서 올라 온 진공 대사 탑입니다. 석관과 부도가 함께 전하는 드문 사례입니다. 석관은 부도의 주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책을 비롯한 유품들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 석관이 암시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당시에는 고승의 장례법으로 화장과 매장이 함께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진공 대사 충담(忠湛, 869~940)은 신라 신덕왕과 고려 태조의 왕사를 지냈던 고승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직접 비문을 지어 그의 생애를 기록한 탑비는 지금 조각난 채 박물관에 보관돼 있는데, 임진왜란 때 왜군이 일본으로 싣고 가려다가 죽령에서 두 동강이 나버렸다고 전합니다. 1913년 깨진 조각 4편을 찾아냈고 언제부터인가 원주 주청사에 보관되다가 1913년 창경원 이왕가박물관으로 옮겨지고 다시 광화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뒤 지금은 용산에 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입니다.

진공 대사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을 계승 했고 중대석의 운룡문양은 압권입니다. 생생하게 살아 있는 용의 몸통이 휘감고 있는 원형의 중대석은 탑의 주인이 영원토록 발산하는 법력을 표현하고도 남습니다. 상쾌하게 처마 끝이 들려진 옥개석과 가지런하게 드러나는 서까래 문양들도 정연한 세상 이치를 상징하는 것 같아 사뭇 엄숙해집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마당의 부도 전시장 맨 마지막에 서 있는 부도는 거돈사 원공 국사(930~1018) 승묘탑입니다. 높이 268㎝의 이 부도는 거돈사지에 잘 모셔져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서울에 사는 일본인이 자신의 집 마당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1948년 경복궁으로 옮겨졌고 다시 용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부도는 처음에 국보 제314호로 지정됐으나 재조정돼 보물 제190호로 강등됐습니다. 제 자리를 잃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설움도 모자라서 이름표를 격하시키는 수모까지 주었으니 오늘의 후손들은 원공 국사에게 참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나마 원공국사승묘탑비는 현재 거돈사지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탑비도 처음에는 국보 제119호였으나 보물 제78호로 재조정 됐습니다. 탑비만 있던 절터에 2007년 승묘탑 재현품이 세워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마당의 부도 및 탑비 야외전시장. 이 부도들은 박물관이 아닌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흥법사 진공 대사탑과 석관

원공 국사 승묘탑은 화려한 치장은 하지 않았지만 중대석에 새겨 넣은 팔부신중이 탑신의 사천왕과 함께 고승의 덕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도들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유물로 서 있고 재현품이 원래의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이 부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절터에 재현품 조차 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재현품을 박물관에 전시하고 진품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던지.



임연태 =(시인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요법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 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핫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림건강 (주)은 철,칼슘,마그네슘, 셀레늄,등이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획득 제10-096707 호 발명의 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그제조




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핫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한의원,산후조리원, 복지원,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면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기능성을 갖는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핫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6>

# 같다 다르다 말하지 말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佛)이고 마음(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너는 마음이고 나는 부처야. 받들어 모시고 모시지 않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해라."
학승이 말했다.
"스승은 없지 않으나, 받들어 모실 수야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럼, 네가 나를 교화해 봐."

問 如何是佛心
師云 你是心我是佛 奉不奉自看
學云 師即不無 還奉得也無
師云 你教化我看

## 부처는 다신으로 나타나 중생 제도
〈多身〉
## 위·아래 없는 게 법이니 서열도 없어

〈화엄경〉에서는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이라고 했다. 마음·부처·중생 이 셋은 같다는 말이다. 학승이 부처와 마음에 대해 물은 것에 조주 스님은 누구든지 중생을 교화하면 그가 곧 부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다. 중생이 곧 부처이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길을 일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곧 부처이다. 좋은 선생을 부처로 존경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선문(禪門)의 뜻이다.

조주 스님은 법왕의 칭호에 대해서는 "나는 법왕이 아니다"라며 한 없이 겸손함을 보였지만 부처라는 칭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스스로 부처라고 말했다. 마음에 차별심이 없으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르던지 개의치 않는 법이다. 조주 스님은 스스로에 대하여 때로는 '발가는 노예'라고 했고, 때로는 '수고우(발가는 소)'라고도 했지만, 여기서는 스스로 '부처'라고 스스럼없이 말했다. 우주가 나이고 내가 곧 우주이다. 조주 스님은 '나'를 무엇이라 부르건 상관없는 대자유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학승이 물었다.
"법신·보신·화신 삼신불 중에 어느 것이 본신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

問 三身中那箇本來身
師云 闕一不可

부처님은 일신(一身)이면서 다신(多身)으로 나타나 중생을 제도한다. 부처님이 하는 일을 3가지로 압축해 표현한 것이 삼신불이다. 법신은 법성신이고 진리의 당체이다. 보신은 중생이 원하면 언제라도 나타나서 구원해 주는 부처이다. 화신은 중생의 교화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이다. 석가모니불은 화신불이다. 삼신이지만 크게 보면 하나의 부처이다.

삼신 중에 어느 것이 본신일까? 이것 어리석은 질문이다. 사람도 여러 일을 하듯 부처님도 많은 일을 한다. 그 중에 하나를 들어서 "이것이 본신이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법이 곧 본신이고, 보신이 곧 본신이고, 화신이 곧 본신이다. 하나라도 빼 먹으면 부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삼신이 곧 본신이고, 우주가 곧 본신이다.

학승이 물었다.
"이 땅에서는 누가 조사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달마가 온 이후로 이 땅은 모두 다 조사이다."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는 몇 대 조사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서열에 들어가지 않아."
학승이 물었다.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 귓속에 있어."

問 未審此土誰爲祖師
師云 達磨來這邊總是
學云 和尚是第幾祖
師云 我不落位次
學云 在什麽處
師云 在你耳裡

선(禪)은 부처님으로부터 6조 혜능까지 한 사람이 대표가 됐다. 그러다 혜능 스님 이후로는 여러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이 땅에 들어와서는 누구든지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혜능의 손자가 되는 마조 스님은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뛰어난 제자는 서당·남전·백장이다. 마조 스님이 말하길, 선(禪)은 백장으로 이어가지만 이 중에서 남전이 홀로 뛰어난 인물이라고 했다. 조주 스님은 그 남전 스님의 법을 이었으므로 당연히 육조 혜능 계열의 조사이다.

그러나 조주 스님 자신은 본 문답에서 서열이 없다고 했다. 철저히 선적인 대답을 한 것이다. 위도 아래도 없고 시간도 없는 법인데, 거기 무슨 서열이 있겠느냐는 뜻이다. 과연 선사다운 답변이다. 요즘 앞 다투어 큰 스님의 인가를 받았다고 세상에 공표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번 음미해볼 만한 대담이다.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하고 묻는 말에, "자네 귓속에 있어"라고 대답한 말이 의미심장하다. 본 〈조주록〉 초반 행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었는데, 계류의 찬 물을 마실 때는 어떠한가 묻는 말에 "콧구멍으로 들어간다"고 대답했다. 이 말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본 납자의 사족은 다음과 같다. "그곳은 너무 넓어서 주객(主客)이 보이지 않는다."

학승이 물었다.
"극히 적은 차이(差異)가 있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로 벌어진 거야."
학승이 말했다.
"극히 적은 차이(差異)도 없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로 벌어진 거야."

問 毫釐有差時如何
師云 天地懸隔
云 毫釐無差時如何
天地懸隔

부처의 경지에 완전히 다가간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 조주 스님은 약간의 차이라도 나면 천지현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저히 도(道)에 근접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약간의 차이도 나지 않을 때는 어떠할까? 즉, 부처의 경지와 똑같아진 것이라면 어떠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주 스님은 역시 천지현격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왜일까? 도(道)는 벌어진 것도 없고 같아진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다, 다르다 말하지 말라.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면 천리만리 어긋난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26 십우도(十牛圖)

# 소를 주제로 대승보살도 여정 그려

〈십우도〉는 소를 주제로 해 수행과 깨침과 교화의 여정을 열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 소는 각자의 마음을 비유한 것인데, 소의 비유에서 소를 파악해 그것을 잊어가는 과정과 검은 소를 흰 소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과정은 그 출발점이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십우도는 소에 대한 그림과 그에 상응해 게송으로 표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많은 〈십우도〉 가운데 텍스트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3종이 기본이다.

1. 〈주정주양산곽암화상십우도송병서〉 1권. 〈선문제조사게송〉 권4 수록. 그 열 단계의 순서는 심우(尋牛)·견적(見跡)·견우(見牛)·득우(得牛)·목우(牧牛)·기우귀가(騎牛歸家)·망우존인(忘牛存人)·인우구망(人牛俱忘)·반본환원(返本還源)·입전수수(入鄽垂手)이다.

2. 〈신각선종십우도〉 1권. 그 열 단계의 순서는 미목(未牧)·초조(初調)·수제(受制)·회수(回首)·순복(馴伏)·무애(無碍)·임운(任運)·상망(相忘)·독조(獨照)·쌍민(雙泯)이다.

3. 〈보명선사목우도송부제대선사화송〉 1권. 명대의 운서주굉(雲棲株宏)이 1609년에 서를 붙여 간행한 것이다. 여기에 후에 15명이 화송을 붙였다.


십우도(十牛圖) 중 기우귀가(騎牛歸家), 송광사 승보전

〈십우도〉는 선 수행에서 발심·수행·깨침·보살도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그림과 게송을 통해 보여준 글이다. 곧 본래성불의 근거가 되는 불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중생의 입장으로부터 시작해 마침내 본래 청정한 자성을 자각해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나아가는 것으로 조사선에서 내세우는 대승보살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1의 심우는 한 손에는 믿음을 상징하는 채찍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정진을 상징하는 노끈을 들고 소를 찾아나서는 발심을 가리킨다. 제2의 견적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방향을 파악하고 스승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제3의 견우는 이제 막 공부가 진척이 돼 수행에 대한 확신에 차 있는 모습니다. 제4의 득우는 실제로 정진에 힘을 받는 단계에 해당한다. 제5의 목우는 자기의 마음이 순화돼 더 이상 곁길로 빠지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모습이다. 제6의 기우귀가는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에 자유를 터득한 경지이다. 제7의 망우존인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마음이라는 객관 내지 경계에 대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단계이다. 제8의 인우구망은 주체와 객체의 모든 상황에 자유를 터득해 법인이 성취된 경지이다. 제9의 반본환원은 구경의 묘각지에 올라 수행이 완성된 경지이다. 제10의 입전수수는 깨침의 완성으로서 중생교화에 매진하는 경지로서 자리와 이타의 실현이다.

곽암 〈십우도〉의 성격은 화송(和頌)을 붙인 자원화상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무릇 제불의 진실한 근원은 곧 중생에게도 본래부터 구비돼 있다. 그러나 그런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삼계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이에 그 도리를 깨치면 곧바로 사생을 벗어난다. 때문에 제불에게는 그 나름대로 제불이 된 이유가 있고 중생에게는 나름대로 중생이 된 이유가 있다. 곧 본분상으로는 중생과 부처, 미혹과 깨침 등의 분별과 대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증상으로는 미혹과 깨침, 중생과 부처가 있다. 때문에 부처님은 중생을 불쌍하게 여겨 널리 여러 갈래의 방법을 시설했다. 이론적으로는 방편과 진실을 시설했고, 접화수단으로는 돈오와 점오를 시설했고 추잡으로부터 미세에 이르는 방법과 얕은 곳으로부터 깊은 곳으로 이르는 길을 시설했다. 그리고 최후에는 푸른 연꽃과 같은 눈동자를 깜박여서 마하가섭의 파안미소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만약 그 도리를 터득하면 근원적인 원리를 초월하고 구체적인 방식을 초월한 모습이 마치 허공을 날아가는 새의 길에 흔적을 남지 않듯이 자유롭다. 그러나 그 현상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언구에 얽매여 미혹한 모습이 마치 신령한 거북이라 할지라도 진흙에다 꼬리의 자국을 남기는 것과 같다."

이에 근래에 청거호승(淸居皓昇)이 중생의 바탕을 살펴보고 질병에 맞는 약을 처방했다. 곧 소를 치는 모습에 비유해 그림으로 그려서 각자의 수준에 맞도록 가르침을 베풀었다. 처음에는 까맣던 소가 점차 흰 소로 변해가는 것을 보여서 수행이 완성되지 못했음을 드러냈지만 점차 완전히 길들어 완성이 되어가는 진실에 이르러서 그 능력이 점점 원숙해짐을 드러내었다. 그리하여 최후에는 사람과 소의 모습이 사라지는 경지에 도달해 마음과 교법까지도 모두 사라지는 경지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 도리에 대해서는 이미 근원까지 철저히 궁구했지만 그 교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중생교화를 위한 행위에 매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하근자는 잘못 생각해 단견의 허무에 빠지지나 않을까, 혹은 상견의 고정관념에 빠지지나 않을까 염려해 청거선사는 〈목우도〉를 보여주었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누워하는 참선 + 와선체조

와 臥禪 선

중단전챠크라(명치,화병,상기병)단전
시원하게~ 뚫어 줌

호흡초월, 몸뚱아리 초월, 공(空)삼매 즉석 체험
머리에서 잡생각 망상이 개미떼 벌떼처럼 빠져나감
엄청난 오로라 전신에 꽉 찬 황홀경 누구나 체험
진짜 달콤한 감로침! 행복감 체험

피로회복 · 면역력증대 체험 100%
발 무릎 꼬리뼈에서 냉기, 병기, 나쁜 기운 빠져나감

스트레스해소 · 우울 · 불안 · 고민해소체험 100%

▸대상 : 누구나, 스님, 선생님, 교수님, 연구직, 예술가 템플스테이 운영자, 출가예정자, 참선, 위빠사나 고시생, 수험생, 유능한CEO, 사회지도자

- 아나빠나사띠 수행이 잘 안 되시는 분
- 심장박동, 생각, 마음 보기 뚜렷한 체험이 없는 분
- 참선, 염불, 절, 명상수행의 진전이 없으신 분
- 목, 뒷골, 어깨, 명치, 단전이 저절로 풀리고, 뚫림 체험
- 꿈 많고, 자다깨다 반복 잠에서 빨리 깨어나지 못하는 분
- 스트레스지수 면역력 콜레스테롤 엔돌핀, 토파민, 세로토닌 검사해 보시면 100% 놀라운 확신

♣ 청견스님 직접 교육 수행지도 ♣

☎ 02)456-0035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법당)

www.법왕정사.kr (와선특강)

▶매주 화요일: 절교육, 2011년 1월부터 수행템플스테이 운영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인 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 일 정 | 지 도 | 인 원 | 대 상 |
|---|---|---|---|
| 2011년 1월 15일 - 1월 21일 [6박 7일] | 우또다나 사야도 | 15명 (선착순) | 일반인 |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 작 날 - 1월 15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1월 21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2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방한쇼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 : dhamma53@hanmail.net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이상
절감 효과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 아름다움에는 그립고 아쉬움이 따라야

맑은 눈과 말을 할 때 가끔은 더듬는 모습이 선하게 다가왔다. 사진쟁이도 어렸을 적 말을 더듬었었다. 지금도 더듬지만 화가와는 달리 성낼 때다. 법정 스님을 회고하고 자신의 삶을 조금씩 꺼내 보이는 어쩌면 '화톳불 피어 놓은' 추억의 자리에서 화가의 눈(目)과 말(言)은 꾸밈이 없었다.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쟁이 이종승

"벽에 그림을 걸어놓으니 오두막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아이 표정이 참 좋습니다. 목에 두른 보랏빛 스카프도 잘 어울려요. 봉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 · 눈길이 갈 때마다 말없는 그 표정이 마음에 듭니다. … · 두런두런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내 말벗이 되어줄 것입니다. 봄이 와서 山에 꽃이 피어나면 진달래라도 한 아름 꺾어다 우리 봉순이에게 안겨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입니다. 곁에 봉순이가 있어 내 속뜰이 한결 풍성해질 것입니다. … · 2003. 2. 17. 法頂 합장."

2002년 박항률 화백 개인전시회에 오신 법정 스님, 까까머리 소년이 그려진 그림 앞에 앉아 계셨는데 그림 속 까까머리 소년과 너무 닮았다. 깜짝 놀란 박 화백은 전시회를 마친 뒤 스님을 쏙 빼어 닮은 그 그림을 스님에게 드렸다. 이때 스님은 우린 맨날 머리 깎고 다니는데 또 까까머리냐? 난 소녀가 좋더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래서 부랴부랴 새로 그려드린 게 봉순이다. "저는 스님이 늘 어려웠어요. 스님 앞에서 말씀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어서 (인터뷰 요청을 받고) 고민 많이 했어요."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아뜰리에에서 만난 박항률 화백은 올해 환갑을 맞은 이답지 않게 당신 작품 속 소녀보다 더 수줍고 조심스럽다.

## - 사촌누이 그리고 갈래머리 소녀

경제학자였던 아버지 눈으로 보면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려대는 소년 박항률은 이단아였다. 드센 아버지 반대에 부딪혀 그림을 못 그리게 되자 공부마저 제쳐두고 만화만 그려댔던 소년은 고등학교 1차 시험에서 떨어지고 만다. 2차로 가면되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 시험 칠 시기를 놓치고 고향인 김천으로 내려가 농업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눈 밖에 나 쫓겨 간 그곳에서 꿈에 그리던 미술반에 들었다. 과수원이나 논두렁, 강가로 나가서 아스라한 시골정취를 고스란히 화폭에 담으며 그림 그리는 재미에 흠뻑 빠져들었다. 덧붙여 박 화백 그림 깊숙한 곳에 깔려 있는 아릿한 사촌누이와 인연도 시작되었다.

"그 시절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같은 그림 못 그릴 겁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사촌누이는 중3이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애였어요. 문학소녀였던 걔 영향으로 시도 깔짝거리기 시작했고, 위안을 많이 받았죠. 제 동무 노릇을 톡톡히 해줬어요."

사촌누이는 척추장애를 앓아 발육이 좋지 않은 탓에 중학교 3학년인데도 초등학교 3,4학년으로 보일 만큼 조그맸다. 박항률은 누이를 업고 산에 오르고 들로 강가로 나다녔다. 그것도 잠시, 지나치게 자유를 만끽한 탓인가? 그곳에서 한 해 남짓 학교를 다닌 박항률은 병을 얻어 서울로 올라와 두 해 동안 학업을 멈춘다. 공부를 썩 잘했던 누이동생도 서울로 유학 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인연이 이어지는데.

"그 병이 아주 처참하고 무서운 병이에요. 걔는 고2때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세상 뜨기 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있어주곤 했는데, 세상 뜨는 순간까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그림에 슬픈 표정이 있다는데, 아마도 그런 게 우러나오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시련을 겪으며 살아간다. 그런저런 아픔을 그저 스쳐지나가는 통과의례처럼 여겨 쉬이 잊고 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릿하고 비릿한 아픔들을 무의식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 삭히고 삭힌 끝에 두레박으로 물 길어 올리듯이 애잔하고 애틋한 그리움으로 풀어내 코끝을 싸하게 만드는 박항률 화백 같은 이가 있다.

"…어쩌면 내 그림 속에/빈번히 등장하는/까까머리 소년 모습은/아직도 내 마음속을/차가운 정적으로/응시하고 있는 그녀 눈망울에 비친/내 자신일는지 모른다." - 詩 '사촌누이' 일부

아버지는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 왜 시키지 않느냐?"는 친구와 친지들 설득에 못 이겨 아들을 서울예고 2학년에 편입을 시킨다. "그림 그리는 애들만 모여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유럽에 다녀오시면서 그 당시 구하기가 힘들었던 모딜리아니 화집과 피카소 화집을 사다 주셨어요." 그 모딜리아니 화집에 소년 박항률 눈길을 사로잡는 그림 한 점. 〈갈래머리 소녀〉다. "천도복숭아 같은 갸름한 얼굴에 홍조띤 붉은 뺨과 붉은 입술, 오똑한 코가 당당하게 앞을 응시하는 눈동자에 신비로움을 더해주고, 단아하게 땋은 갈래머리와 이마를 자연스럽게 덮은 애교머리가 푸른 창밖 배경으로 인해 애잔한 슬픔으로 다가오는 소녀 초상화였다." 박 화백 시집 〈그림의 그림자〉에 나오는 글이다. 이 갈래머리 소녀가 박항률 운명을 바꿔놓는다. '아무래도 그림을 그려야겠어.'

## - 해돋이는 100미터 높이서 봐야 제격

법정 스님과 인연은 어떻게 맺었을까? "96년에 집사람하고 인도여행을 하면서 바라나시를 갔는데, 여행을 하다보면 입에 맞는 음식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중국음식은 웬만하면 입맛에 맞으니까 중국집엘 갔어요. 주인이 방명록에다 글을 적으라고 하대요. 적으면서 보니 한글로 '000은 시켜 먹어도 되고, ×××는 한국사람 입맛에 맞지 않으니 시켜 먹지 마시오. 류시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적힌 대로 시켜먹었더니 입맛에 잘 맞더라구요. 그때 집사람이 류시화씨 책에 한참 빠져있을 때였어요. 집사람이 좀 극성맞은 데가 있거든요. 돌아와서 출판사를 통해 류시화씨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어요." 만나보니 류시화도 마침 박 화백 그림을 좋아해 포스터 액자를 구해서 안방에다 붙여놓고 있었다. 이렇게 만난 인연. 필연이었을까? 서로 팬임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레 화제가 법정 스님 이야기로 옮아갔다.

"법정 스님은 화실에 딱 한 번 오셨어요. 길상사 달력 만들 때. 오셔서는 '슬라이드 다 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림은 모두 스님이 직접 고르셨어요. 절대미감을 지니셨잖아요. 표지화가 지금 길상사 선열당에 걸린 그림인데요. 스님이 고르신 작품 가운데서 '스님 이걸 표지로 쓰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해 드렸어요."

"한 번은 스님이 여행지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해돋이는 100미터 높이서 봐야 제격이라고요. 스님이 좋아하셨던 이 그림도 스님한테서 그 말씀을 들은 그 뒤에 그린 겁니다. 그 말씀을 의식하고 그린 것은 아니지만 그만한 높이에서 바라본 풍경이죠." 라며 펼친 그림첩. 2004년에 그린 '일몰'이란 제목이 붙은 해넘이 그림이다. 화폭 오른쪽 위로 나는 갈매기와 곧 바다 위로 떨어질 해 그리고 뭍에 묶인 배에 걸친 노가 어슷하게 내리흐르고, 조그만 외딴 섬에 소나무 한 그루가 왼쪽으로 완만하게 드리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우리 전통 그림처럼 트라이앵글 구도를 가진 파스텔화(54×65). 고즈넉한 해넘이 풍경으로 여백미가 한껏 드러나는 작품이다. 스스로 빛을 발하려 들지 않고 대상을 선선히 받아들이는 그 넉넉함이라니. 그림에 취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박 화백 법명을 떠올렸다. '진공(眞空)' 참 비움. 스님 발을 묶어둔 까닭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아름다움에는 그립고 아쉬움이 따라야 합니다. 덜 채우면 그 빈자리에 생기가 돌아서 시들지 않는 품격이 감돕니다." 법정 스님이 2007년 가을 법석에서 하신 말씀이다. "위대한 예술가 배후에는 드러나지 않는 따뜻한 가슴이 받쳐 주고 있습니다. 박 화백이랑 차 한 잔 드시고요." 2005년 정초 스님이 박 화백 곁님 무염지 보살에게 보낸 연하편지다. 그림을 그리는 내외를 향한 각별한 스님 사랑이 흠씬 묻어난다.

## - 한 송이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

박 화백이 새를 그리기 시작한 건 대학 다닐 때부




이재복 지음(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 살림
정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터였다. 그러다 추상으로 가면서 자연스레 그리지 않게 되었는데 지금 화풍으로 바뀌면서부터 다시 새를 그리게 되었다. 제자들과 베네치아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친구 머리 위에 새가 앉은 걸 보고 그림이 되겠다 싶어서 그렸다. 그 그림을 2006년 전시회 때 크게 그려서 걸었는데 그 제자가 와서 보더니 "'선생님 저 머리가 제 머리 아니에요? 한 가지 비밀 더 가르쳐드릴까요? 실은 비둘기가 날아오게 하려고 제 머리 위에 비둘기 모이를 얹어놨었어요."하더란다. 엉뚱하다. 그런 엉뚱함, 순정(純正)함이 예술을 만드나보다.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떴어요. 조각하는 친군데, 최종태 선생님 대를 이을 만큼 훌륭한 아인데……." 말을 잇지 못하는 박 화백, 눈시울이 금세 붉어진다. 이 대목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는 시구가 떠올랐다. '한 사람 화가 탄생에 참으로 많은 인연들이 함께 했구나.' 그물코처럼 얽힌 중중 무진한 화엄세계.

"아주 흔한 건데 사람들이 그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보기를 들면 나뭇가지 끝에 잠자리가 앉잖아요. 참 흔한 풍경인데 중국화 가운데 습작형식으로 그려진 게 딱 하나 있을 뿐, 동서양을 통 털어서 제가 처음이에요." 추상작품을 하다 90년대 초 화풍을 바꾼 박항률 화백. 처음엔 까까머리 소년을 주로 그렸다. 그러다가 98년도쯤 불현듯 한복 입은 소녀를 그리고 싶어서 그렸는데 화랑을 하는 친구가 와서 납작 들고 나간다. 뒤통수에다 대고 그 흔한 걸 왜 가져가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요즘 한복 그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한번 찾아보래요. 찾아봤더니 한국화를 그리는 화가들 가운데도 한복을 그리는 화가가 없었어요. 민중미술 하는 화가들이 두루마기 입고 주먹 불끈 쥔 그림은 그렸지만, 한복 치마저고리 입은 그림은 없더라고요. 1960년대에 그린 그림들이 있을 뿐, 70년대 들어서면서 없어지기 시작해요. 80년대 들어서서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시작한 한복 입은 소녀 그리기는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이 되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관저에도 박 화백이 낳은 한복 입은 소녀가 고운 자태를 드리우며 손님을 맞고 있다.



그림 속 새가 작업실에 있었다. 벽에 붙어있기도 했고 조각으로 만들어진 채 서 있기도 했다. 화가의 영혼 속에도 새가 있는 것 같았다. 화가는 참 좋겠다. 순수를 꿈꾸니 말이다. 법정 스님은 새를 안고 사는 화가의 영혼이 좋았던 것 같다.

### - 찰나도 영원이고 영원도 영원

"70년도에 대학 들어갔을 때 직지사를 갔었어요. 말간 아침에 스님 한 분이 걸어가는데 골상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저거 한 번 만들어 봐야겠다하고는 바로 스케치하고 그 길로 올라와서 까까머리 조각을 몇 점을 했어요." 그 스님이 사월초파일 키우던 난초를 밖에 내놓고 햇볕을 쬐게 했다. 그런데 그만, 부처님 오신 날이라 모처럼 절에 온 아이들이 꽃을 다 꺾어갔다. 초파일 행사를 다 마치고 돌아와 그 광경을 본 스님은 "아, 내가 아직도 많이 모자라구나." 하면서 어디론가 떠났단다. 꽃을 꺾어간 아이들에게 화는 커녕 내 정성이 모자라는구나하는 마음을 내는 수행. 가슴 속까지 '쏴' 해지는 맑은 소식이다.

그림을 지금처럼 바꾸면서 가장 먼저 그린 그림이 바로 까까머리 소년이었다. "93년도 작품 가운데 길상사 식당에 걸려 있는 머리 깎은 와상이 있어요. 부처님 열반상에서 힌트를 얻은 건데 그 그림을 그리고 한 해 쯤 지나서 작업실에 스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팸플릿에서 본 그 그림이 마음에 드는데 포스터가 없냐고 해서 드렸는데, 그 스님이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불상보다 이게 좋다고." 그것이 인연이 됐을까? 박 화백은 몽골여행길. 그림 컨셉을 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궁리 끝에 떠오른 낱말이 메디테이션meditation, 명상이었다. "그 다음부턴 전시회를 할 때마다 전체 주제를 'meditation'이라 붙이고 부제를 달기 시작했어요. 명상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찰나에도 될 수 있는 생각에 그렸어요. 그림 제목 가운데는 '정오의 명상'이 있어요. 정오라는 것은 한 꼭지점에 지나지 않잖아요? 또 '낮꿈'이라는 건 낮에 잠깐 조는 건데 그때도 명상이 되고 그러면 찰나도 찰나가 아닌 셈이죠." 찰나도 놓치지 않고 살려낼 수 있다는 말이다. 길상사 관음상을 조각한 조각가 최종태 선생도 '찰나도 영원이고 영원도 영원이다.'는 말씀을 했는데 예술을 하는 분들 정신세계는 맥이 통하나보다.

"최종태 선생님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전임강사셨어요. 어느 날 그 분 연구실 앞을 지나는데 문이 빼꼼 열려있었어요. 문 틈새로 보인 게 가녀린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여인상이었는데 눈부시게 고왔어요.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워서 폭 빠졌어요." 너무 좋아한 나머지 최종태 선생 수업을 듣고 싶어서 당시엔 전공이 다르면 학점인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4학년 때, 3학년 부조 시간에 가서 들었단다.

이 말씀을 듣다 문뜩 외람된 생각이 떠올랐다. 길상사 지장전을 지을 때 법정 스님은 본디 이층 높이 양식 건물을 지으라고 일렀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때 스님 말씀을 따라 건물을 승효상 같은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겨 짓고, 최종태 선생과 박항률 화백 같은 분들이 불상과 후불탱화를 현대 관점으로 해석해서 모셨더라면 어땠을까.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12

## 요시시게노 야스타네 (慶滋保胤: 931~1002)

"여성 문인 후지와라(藤原)씨는 마음이 온화하고 순하며, 자비심이 매우 깊었다. 언제나 극락을 그리워해 염불을 놓지 않았다. 이윽고 만년에 이르러 말하기를 '음악이 멀리서 들려온다. 이것이 왕생의 길조인가'라고 했다. 그 다음 해에도 '음악이 점차 가까워진다'라고 했다. 다음 해에도 또한 '음악 소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가까워진다. 더구나 근일에는 침실 위에서 들려온다. 오늘이 야말로 왕생할 때구나'라고 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세상을 떴다. 몸에 고통이 없었다."

요시시게노 야스타네(931(?)~ 002)가 기록한 왕생집인 〈일본왕생극락기〉의 왕생담 중 하나이다. 상서로운 구름을 탄 아미타여래 협시인 관음보살과 세지보살



아미타여래 내영도, 교토 지은원 소장

믿음이 임종에 가까워 올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왕생집은 중국 당나라 초기 가재(迦才)의〈정토론〉에 20인의 왕생자에 대한 기록이 최초다. 극락정토의 종류나 품 등을 정해 범부도 왕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과 실재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당 중기에는 독립된 왕생전으로 문적(文吊)과 소강(少康)이 편찬한 〈서응전(瑞應傳)〉이 나왔다. 10세기 후반 이러한 내용들을 섭렵한 야스타네는 일본 최초의 왕생집을 편찬한 것이다. 후에 이를 본으로 〈속본조왕생전(續本朝往生傳)〉이나 〈습유왕생전(拾遺往生傳)〉을 비롯한 여러 왕생집이 고대말기까지 양산돼 수백 명의 왕생자를 기록으로 남겼다. 이 내용들

### 평생토록 정토왕생 발원 50대에 출가
### 45명 사례모아 일본 최초 왕생집 펴내

은 물론 그 외 여러 보살 및 천인 등을 거느리고 임종에 이른 중생을 극락정토로 인도하기 위해 오시는 내영(來迎)의 모습이 여기에서는 음악을 통해 간접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고대 헤이안 시대(794~1185) 중기부터 정토사상의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내영사상이 의식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내영의 모습을 연기하는 영접법요가 행해지고, 이를 그림으로 묘사한 내영도나 영접만다라가 유행해 정토교 미술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이 왕생담에는 당시 왕생정토하기를 바라는 신앙심이 간절하게 드러나고 있다. 요시시게는 이처럼 왕생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 총 45편을 수집해 기록으로 남겼다. 예를 들면 음악이 임종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들렸다거나, 자색의 구름이 그 집을 에워싸거나, 이색의 향기가 방안 가득했다거나 하는 주위의 체험담도 왕생의 증거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법에 귀의해 평소에 염불을 열심히 외웠다는 점이다. 또한 관상염불과 구칭염불의 구분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서방정토에 나고 싶다는 은 12세기 초 일본 최대의 설화집인 〈금석물어집(今昔物語集)〉의 주요한 소재가 됐다. 겐신(源信)의 〈왕생요집〉이 천태정토교의 입장에서 바른 염불생활을 위한 이론적인 지침서였다고 한다면, 〈일본왕생극락기〉는 진실한 염불신앙인들의 완결된 삶의 모습을 보여준 살아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야스타네는 원래 하급관리였지만 문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불법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30세에 이르러 승려들과 함께 권학회(勸學會)을 결성, 20여 년 동안 염불은 물론〈법화경〉을 논하고 시문을 지어 나누었다. 986년 50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겐신이 주도한 염불결사인 25삼매회의 멤버로 활동하였으며, 불심이 깊어짐에 따라 마침내 출가하여 적심(寂心)으로 칭해졌다.

왕생집을 편찬하는 이유는 후대에 이 기록을 보고 왕생극락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야스타네의 일생은 찬란한 중세 정토세계의 흥기를 위한 옥토를 넓혀가는 와중에 서 있음을 느끼게 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평정·긍정·만족이 행복의 척도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야 성취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 불교와 서양철학, 사회학, 심리학의 관점에서 논의한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가 1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개최한 학술연찬회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는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사회학, 긍정심리학의 입장에서 행복을 고찰했다.


미산 스님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박영환 교수
(동국대 중어중문학과)


강상진 교수
(서울대 철학과)


이진경 교수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권석만 교수
(서울대 심리학과)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가 개최한 제9차 학술연찬회에는 각계 전문가를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행복과 불행 매순간 선택에 달려"

**▶미산 스님(초기불교):**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가? 진정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 보라고 붓다는 말합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살펴보면 성취에 대한 집착인지, 쾌락에 대한 탐닉인지, 좌절로 인한 포기인지, 아니면 행복찾기에도 집착하지 않는 중도적 태도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불교와 상좌부불교에서 제시하는 행복은 바로 이런 중도적 행복입니다.

붓다는 이 중도적 행복의 성취를 위해 3가지 차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구체적인 현재 삶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성취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윤리적 규범과 계율을 바탕으로 청정한 삶을 실천하는 중도적 행복의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행복을 토대로 한 차원 더 높은 천상의 행복을 내세에 실현하기 위한 의식의 확장과 심화를 통해 중도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한 삼매의 계발과 자애와 연민 등의 수행을 통해 감사, 공감, 포용 등과 같은 긍정적 심리적 기제들을 강화해 부정적인 심적 요소들의 활동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탐·진·치라는 번뇌들을 뿌리째 뽑아내는데 꼭 필요한 지혜를 계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성제를 온전히 몸으로 체화하는 관법 수행을 통해서 잠재적 성향의 미세한 번뇌까지도 포착해 없애 중도적 행복의 완성인 열반의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 천상의 행복, 열반의 행복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했다고 해서 서로 단절돼 따로 어떤 차원이 설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붓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재가자들은 현실의 삶 속에서 법답게 행복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통치자는 왕으로서 본분을 잘 지켜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은 남들과 공유하며 현세적 삶의 행복을 유지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의무를 제시하면서 상호 존중과 돌봄의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더 나아가 재가자라 하더라도 최상의 행복을 향해 정진하면 출세간적인 지혜를 갖춰 열반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기회의 폭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행복은 매순간 연기적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차원의 행복이든 행복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더라도 얼마나 평정한 마음으로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느냐가 붓다가 전하는 행복의 핵심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행복을 주는 종교

**▶강상진 교수(서양철학):** 서양철학에서 행복은 채움에서 성립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채울지, 신적인 것에 대한 앎으로 채울지, 신이 보여준 모범에 따른 사랑으로 채울지는 문제지만, 채움으로써 행복에 이른다는 생각은 서양의 고중세 철학이 공유합니다.

서양 근현대 철학에서 행복은 종교의 소관으로 여겨지며 학문적 탐구에서 도외시 됐습니다. 그 원인은 운명의 개념이 학문적 고찰의 범위를 넘어섰다는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없는 이유는 행복이 일반적 인간행위에 대한 중요한 설명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윤리학 내부에서는 덕(德) 윤리의 부활이라는 흐름을 통해, 철학 바깥에서는 심리학의 경험과학적 탐구를 통해 학문의 집을 나갔던 행복의 개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문의 이름으로 운명에 대해 줄 수 있는 이성적 반성의 한계가 어디인가라는 물음은 이제 철학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종교에서 행복의 답을 구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 "고난 극복이 행복의 길"

**▶박영환 교수(선시):**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은 선종이 표방하는 종지입니다. 마음이 공(空)하면 만물도 공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심을 시라는 문학형식으로 풀어낸 것이 선시(禪詩)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깨우침의 경지를 옛날 선사들은 정련된 언어로 표현해 이심전심을 추구했습니다.

당대 이후 수많은 중국 문인들은 외유내불이라는 방식을 통해 자기인생에서 모순과 번뇌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송대 소식(蘇軾)은 그 대표적인 문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유명한 시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불교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온 소식은 불법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 했던 오대시안의 발생은 44세의 중년 소식의 일생을 바꿔놓습니다.

소식은 정치적 포부를 거의 포기하고 황주에서 두문불출하며 참선과 독경으로 5년간 수행합니다.

이후 소식이 쓴 선시를 보면 수연자적하는 인생관과 더불어 초연하게 비우는 달관적 태도가 나타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개개인의 사상과 인생관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난관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여유롭게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에 얽매여 힘들게 고생하다가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어떤 사상을 자신이 운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소식은 불교사상을 적극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광달함과 여유, 해학과 달관을 견지하며 고난을 창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 '나의 안녕'이 곧 행복

**▶권석만 교수(심리학):** 최근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탐구하는 학문분야가 태동했습니다. 바로 긍정심리학입니다. 긍정심리학은 과거 심리학이 인간의 부정적 측면, 즉 심리적 결함과 장애에만 편향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반성 속에서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심리학의 새로운 분야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행복에 대한 절대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연구할까요. 긍정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기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행복의 정의에는 쾌락주의적 행복관이 있는데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으로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안락감을 느끼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라고 정의됩니다. 긍정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된 행복을 '주관적 안녕'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실현적 행복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개인의 긍정적 성품과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현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또는 사회의 상생적 번영을 이루는 삶의 상태인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삶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충분한 강점을 갖지 못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대표강점을 발견해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은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전반적인 행복수준, 특히 주관적 안녕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인에게 행복한 삶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성찰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경제발전을 통해 이룬 물질적 풍요를 행복하고 성숙한 삶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 모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 기쁨 자라면 행복도 커져

**▶이진경 교수(사회학):** 인간은 누구나 '사회'라고 불리는 집단에 속해 삽니다. 좋든 싫든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이루고 삽니다. 심지어 은거하고자 하는 경우조차 어딘가에 속해 삽니다.

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조건을 연기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가'가 나 아닌 타인들의 삶에, 삶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단순히 말하자면 기쁨의 감응을 극대화하고 슬픔의 감응을 극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자들과의 관계를 기쁨이라는 긍정적 감응을 최대한 이끄는 방향으로 사는 것입니다.

삶의 긍정은 나의 삶의 긍정 만을 고려하는 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 더 나가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정리=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한국불교의 최초를 찾아서

이것이 한국불교 최초!

불상, 불화, 탑 등 한국 불교문화 각각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44가지 이야기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한국불교의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게 한 교양서

우리의 불교문화 유산들 하나하나는 최초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연을 품고 우리에게 선보였으며,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밝혀낸다. 하나하나의 주제들을 책장을 넘기며 따라가다 보면 때론 1,700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때론 불사의 현장에 직접 참여한 듯, 때론 오래된 기록물 더미에 묻힌 듯, 우리 불교문화의 발자취가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것이다.






심정섭 저 | 신국판변형 | 392쪽 | 값 15,800원

금강경 해설의 새로운 지평!!!

풍부한 일화와 다양한 사진,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넘나드는 깊고 폭넓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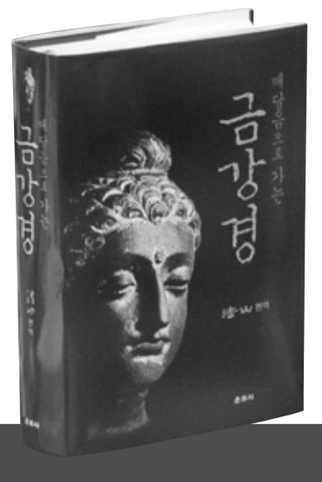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

초기불교를 자양분 삼아 더욱 풍부해진 금강경 해설!

이 책은 계율과 선정을 중시하는 초기불교와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대승불교, 번뜩이는 지혜를 강조하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수행자의 안목에서 한 맛으로 회통하고 있다.

사진과 일화로 읽는 금강경!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듯한 생생한 해설과 600여 컷의 사진자료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불법의 정수까지도 오롯이 드러내 보인다.




법산 편역 | 신국판양장 | 올컬러 | 764쪽 | 값 38,000원

● 붓다북 www.buddhabook.co.kr ● 주문 (02) 3672-7181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요절복통

# 여래네 집

#38 엄마들의 수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난 엄마들이 여래네 집에 모여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여래 엄마가 커피를 끓여 내 올 때 쯤해서 다른 엄마들은 싸가지고 온 간식 보따리를 풀어 놓습니다,




드라마 얘기, 애들 키우는 얘기, 남편 흉 등 정말 엄마들의 수다는 끝이 없습니다,




벗어만 놓으면 다 빨아주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속옷을 잘 안 갈아입어.




어떤 남자가 출장가서 일주일 동안 일을 보는데 하루는 양말을 정상으로 신고 하루는 뒤집어 신고를 반복하더래.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저녁에 숙소가서 벗어 놓은 양말을 아침에 그대로 신고 나가고 또 저녁에 벗어 놓은 걸 다음날 그대로 신고 나가고를 반복해서 그랬던 거라나.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가 문득 이야기의 주제가 처녀적 짝사랑 하던 사람 얘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31, 오늘의 운세편에서 여래 엄마도 여래 아빠와 사귀기 전 좋아하던 선배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지요,




그 때 화투점 봐주던 선배가 엄마의 속마음을 정확히 맞춘건 단지 사람의 심리가 다 비슷비슷해 선택적 지각에 의해 그런 것이라 설명했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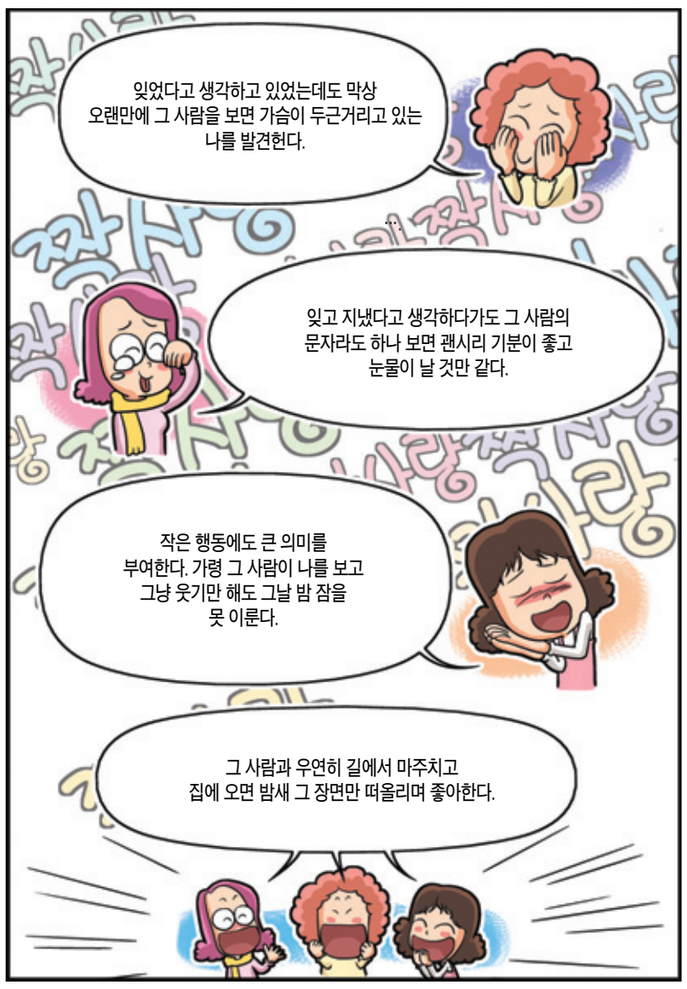
정말 얘기를 시작해 놓고 보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친김에 엄마들은 몇 가지 증세를 더 생각해 내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막상 오랜만에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는 나를 발견헌다.




이 때 여래 엄마가 짝사랑 이야기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 이주일의 화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자신의 이목으로 삼아라 그러면 밝은 눈으로 비춰보지 못할 것이 없고 밝은 귀로 듣지 못할 것이 없다

- 산림보훈 -




불기 2555년 | 단기 4344년 | 서기 2011년

백초스님의

# 핵심래정택일지

辛卯年 신묘년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 매일 운세 보는 법 공개!!

365일 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훤히 볼 수 있는 래정비법!




BEST SELLER 베스트셀러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4×6배판/ 칼라제본/ 456쪽/ 정가 20,000원
문고판(포켓용)/ 칼라제본/ 456쪽/ 정가 10,000원

著者 白超 백초스님

白超律曆學堂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입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 백초귀장술




##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02)3667-4446, 010-3813-4443

입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윤남진 REVIEW



로널드 B. 토비아스 지음

# 불교,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

고백을 하나 하자면 나는 고교시절 문학소년이었다. 청주시내 불교학생회에서 시화전을 했는데 거기에 어느 유명한 시인의 작품을 내 방식으로 각색해서 낸 적이 있다. 대학생이 되어 서울 유학하다 집에 내려와서 보니 그 작품이 액자 그대로 집에 모셔져 있었다. 너무나 부끄러워 슬그머니 가져다 부엌에서 고등학교 때까지의 모든 사진, 일기, 편지들과 함께 태워버린 추억이 있다. (이 글은 이제 태워버릴 수도 없으니 그때보다는 내가 강심장이 되었거나 뻔뻔해진 것 같다.)

사직을 하고 재충전을 위해 공부를 하던 중에 우연히 작가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어느 문화센터에서 작가지망생으로서는 왕초보들이 듣는 글쓰기 과정을 이수했다. '스토리텔링 글쓰기 과정'이었다. 물론 이 교육을 받게 된 데는 추억과 호기심 뿐 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창업을 할 때 필요한 기술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대형서점 경영 코너 마케팅 주제의 서가에 가면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란 책들이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란 쉽게 말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제품의 구매효과(설득)와 구전효과(전파)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특정한 고객을 타깃으로 하여 설득을 목적으로 발화된 '그럴듯한 이야기'가 마케팅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현대 사회의 소비자들이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배운 예를 들자면, 지포라이터 판촉 광고에서 주인공이 총에 맞았는데도 죽지 않는 장면에 이어 총알이 박힌 지포라이터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지포라이터에 '부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식이다. 별다를 것 없이 모두 성냥곽처럼 지어놓은 아파트도 광고를 할 때는 그럴 듯한 이야기가 브랜드(건설회사)마다 많기도 한 것도 스토리텔링을 통한 브랜드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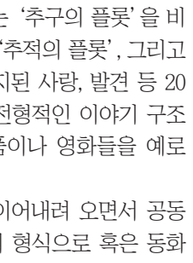
이러한 이야기들에는 구조가 있다. 대체로 이야기 구조를 발단, 갈등(전개), 절정, 결말의 4~5단계로 나눈다. 모든 흥미를 끄는 이야기는 처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관객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하며(어떻게 될까?), 절정을 거친 후 결말에 이르러 고객 스스로 답을 찾게 된다. 더 전문적인 논의가 있지만 쉽게 이 정도로 플롯을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근본적인 측면에서 플롯은 '인간의 태도를 담고 있는 청사진'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인류는 행동과 느낌의 패턴을 개발했고, 이 패턴은 너무 기본적이어서 지난 5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다가올 5천 년 동안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말한다.

바로 이 말이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점이다. 행동과 반응, 원인과 결과의 사슬구조로 이야기는 짜여진다. 잘 짜인 이야기에는 서로 대립하는 세력이 있고, 주인공의 시련이 있고, 조력자가 있으며, 반전과 승리 혹은 실패가 있다. 저자는 플롯의 유형을 몸의 플롯과 마음의 플롯으로 나눈다. 몸의 플롯은 행동의 플롯이며, 긴박감과 놀라운 기대감으로 관객을 보상하며, 마음의 플롯은 등장인물이 의미를 추구하며 인생을 점검한다. 책에서 저자는 돈키호테로 대표되는 '추구의 플롯'을 비롯하여 레미제라블 같은 '추적의 플롯', 그리고 구출, 미스테리, 변신, 금지된 사랑, 발견 등 20개의 대표적인 플롯, 즉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들을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나 영화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인류가 5천여 세대를 이어내려 오면서 공동의 경험, 규칙들은 신화의 형식으로 혹은 동화의 형식으로, 오래된 성전의 시적 양식으로 '이야기'되어왔다. 그 중에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원대한 이야기가 아마도 종교 성전의 이야기일 것이다. 모세의 이집트탈출기가 그렇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서양의 대표적인 것이라면, 붓다의 〈자타카(본생담)〉나 출가에서 성도, 그리고 전법의 결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동양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 속에는 고요한 명상이나 묵상, 내면적 체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영웅의 탄생과정과 이 세상으로의 귀환을 그리고 있다.

거기에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이 담겨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종교 성전을 도덕률로 가득 찬 교의로서가 아니라 오래된 신화 또는 인류의 근원적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한다. 내친 김에 다음번에는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종교와 신화에 대한 책을 둘러볼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육조스님 금강경〉 펴낸 원순 스님

# "경전 읽으면 못보던 세상이 보입니다"

## 내년까지 '금강경 오가+일가' 해설서 낸다
## 독송용 〈우리말 금강경〉도 함께 펴내

금강경.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소의경전. 〈한글세대를 위한 불교〉의 저자로 잘 알려진 에드워드 콘체는 '다이아몬드 수트라(Diamond Stura)'라는 이름으로 유럽에 금강경을 소개했다. 수많은 해설서가 나왔는데, 혜능 스님 당시에만도 800종이 넘었다. 그런 만큼 널리 독송되는 경전이다.

그런데 어렵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 대승불교의 교리와 기본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가령 금강경 사구게 중 첫 번 째인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즉, "온갖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나니 모양이 모양 아닌 줄 알면 바로 여래를 보리라"만 하여도, '모양이 모양 아닌 줄 알면'에서 막히고 만다. 궁극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을 쉽게 보겠다는 것이 욕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냥 어렵게 놔둬서는 안 된다.

조계종 교재편찬위원을 역임한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이 금강경 읽기의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그 방법은 〈금강경오가해〉를 하나씩 나누어 현대인의 언어 사용 습관에 맞추어 번역하고 해설하는 것. 그 첫 번째로 〈육조스님 금강경〉을 펴냈다.

원순 스님은 경전을 읽는 자세는 비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기 견해를 내세우지 말고 집중해 읽는 가운데 마음이 비워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경전을 읽다보면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송을 자주하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경전을 읽으면 못보던 세상이 보입니다."

금강경 뜻풀이 중 권위를 가장 인정받는 저술은 〈금강경오가해(五家解)〉다. 규봉종밀, 육조혜능, 부대사, 야부도천, 예장종경 등 다섯 스님이 금강경에 붙인 찬요(纂要), 해의(解義), 찬(讚), 송(頌), 제강(提綱)을 한데 묶은 것이다. 여기에 조선시대 무학대사의 수제자인 함허득통 스님은 오가해에 자신의 견해를 붙여 〈금강경오가해설의〉를 펴냈으니, '금강경육가해'라 이름붙일 수 있다.

원순 스님은 〈육조스님 금강경〉을 펴낸 데 이어 내년까지 '오가+일가(함허득통)' 즉, 여섯 스님의 금강경 풀이를 번역하고 해설을 달아 6권으로 펴낼 계획이다. "〈금강경오가해설의〉를 읽다보면 원문에 대한 선사들의 해석이 서로 다른 부분들도 많아 자칫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든 독자는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여섯 분의 금강경 뜻풀이를 저마다 각각의 금강경 해설서로 독립시켜 책으로 내는 것이 금강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를 위해 하나의 고유한 색깔을 지닌 읽기 편한 해설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전을 쉽게 번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역자가 이해한 경전의 뜻을 독자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인데, 원순 스님은 금강경 4구게 중 네 번째,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의 첫 구절을 "집착하는 모든 현실 꿈과 같으며"라고 풀이했다. 온갖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에 있기 때문이다.

원순 스님은 〈육조스님 금강경〉과 함께 뜻풀이를 새롭게 시도한 독송용 〈우리말 금강반야바라밀경〉도 이번에 함께 펴냈다. **육조스님 금강경 | 원순 옮김 | 법공양 펴냄 | 2만원 / 우리말 금강반야바라밀경 | 1만원**

**정성운 기자** woon1653@hanmail.net

# 느닷없이 물음표가 맺히는 길이 있다

## 〈시코쿠를 걷다〉… 88개 천년고찰 잇는 1200km 여정



때때로 느닷없이 물음표가 가슴에 맺힌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나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나요?

답을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다. 최소한 〈시코쿠를 걷다〉를 읽는 동안에는 답을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다.

시코쿠. 88개의 천년고찰을 잇는 1200km 순례길로 유명하다. 〈시코쿠를 걷다〉에 따르면, 1200년 전 일본불교 진언종 창시자인 구카이(空海) 스님이 이 길을 걸으며 수행한 것이 시초가 되어 순례길이 되었다. 매년 15만 명이 이곳에 와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순례자가 된다. 그리고 시코쿠 순례길에서 죽음을 맞으려는 이들이 있어 1년에 20여명이 이 길에서 죽는다고 한다. 주로 해안을 따라 걷는데, 제주도의 올레길과 비슷하다고 한다.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섬 가운데 가장 작은 섬이지만, 면적은 제주도의 10배다.

〈시코쿠를 걷다〉를 읽다보면 시코쿠에 살았던 스님, 마을 사람, 순례자, 바다, 나무, 햇살, 눈, 비 등을 통해 지은이가 일깨운 삶의 새로운 발견에 동참하는 즐거움이 있다.

"오래 씹어야 한다. 오래 안 씹으면 감사의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이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적게 나고, 오래 씹으면 굳이 감사의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감사한 마음이 절로 뭉게뭉게 일어난다는 게 그 이유다. 100번을 넘겨보라. 그렇게 하면 음식을 향해 자꾸 솟아오르는 찬미의 마음을 그 누구도 누를 수가 없다."(40쪽, 밥을 맛있게 먹는 비결)

"옛날에는, 다시 말해 개척을 하겠다고 인간이 숲을 파괴하기 전에는 아츠케시 만에 굴이 흔했다. 숲이 사라지면서 함께 자취를 감췄던 굴이 숲이 되살아나자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99, 산을 가꾸는 바다) "섬에 손님을 위한 집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에서도 마을의 노인들은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이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웃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었는데, 내 아버지도 같았다."(250, 자동차가 없는 섬)

질문은 답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저자는 위와 같은 질문이 어느 순간 느닷없이 엄습하기를, 그래서 순례를 떠날 채비를 하는 자기를 바라보기를 바란다. 〈시코쿠를 걷다〉는 삶이 나에게 질문해주기를 바라는 진언 같은 책이다.

**시코쿠를 걷다 | 최성현 지음 | 조화로운삶 펴냄 | 1만 3800원**

**정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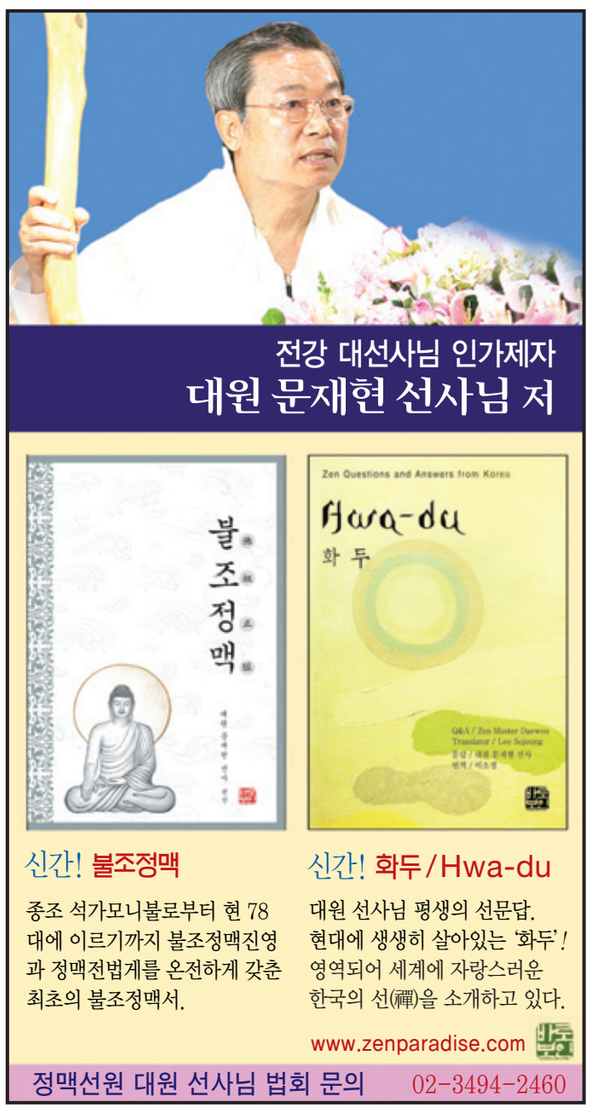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12.7

| 순위 | 도서명 | 저 자 | 출판사 |
|---|---|---|---|
| 1 | 기도 | 법륜 | 정토 |
| 2 | 스님의 주례사 | 법륜 | 휴 |
| 3 | 법정 스님 선묵 | 법정 | 다래헌 |
| 4 | 굿바이 티베트 | M. 블루멘크론 | 하얀연꽃 |
| 5 | 허공법문 | 김기추 | 고려원북스 |
| 6 | 선방일기 | 지허 | 불광출판사 |
| 7 |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 법성 | 운주사 |
| 8 | 초기불교이해 | 각묵 | 초기불전연구원 |
| 9 | 정성 성이 부처입니다 | 우룡 | 효림 |
| 10 | 불교성지순례(인도 네팔) | 대연 | 이스트워드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고, 나를 완성시켜준 이는 벗이다

☞1면에서 계속

밀인사의 특이한 전각은 경책전(警策殿)이다. 원래는 선원청규를 지키지 못한 대중이 참회하는 전각이었으나 문화혁명 이후에는 한때 위산향 관리들의 임시청사로 사용됐다고 한다. 지금은 절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산선사의 위치를 상징하듯 밀인사 전각들 중에서 만불전 다음으로 크다.

〈위산경책〉은 출가 수행자들이 수행의 첫 걸음, 즉 행자교육을 마치고 강원 1년차에서 배우는 책 〈치문〉에 나온다. 불법을 공부하는 데 승속의 구분이 어디 있겠는가. 재가자도 마음이 맑고 향기로우면 청산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터이다. 따라서 첫 마음을 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위산경책〉은 더 없이 귀하다. 경책전에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떠올려 본다.

"부처님께서는 출가자들에게 '도를 닦고 몸을 단속하는 데에는 옷과 밥과 수면, 이 세 가지를 넉넉하게 하지 말라' 고 경계하며 법도를 지어주셨다."

이른바 삼부족(三不足)으로 의부족(衣不足), 식부족(食不足), 수부족(睡不足)한 청빈한 자리에서 수행하라는 당부다. 다음의 말씀도 늘 잊히지 않는다.

"먼 길을 갈 적에는 좋은 도반과 동행해 자주자주 눈과 귀를 맑게 하고, 머무를 때에도 반드시 도반을 가려 때때로 아직 듣지 못한 것을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속서(俗書)에도 이르기를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고 나를 완성시켜 준 이는 벗이다' 라고 했던 것이다.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치 안개와 이슬 속을 가는 것 같아서, 비록 당장에 옷이 젖지는 않아도 점점 촉촉하게 적셔진다. 한편 악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나쁜 지견을 길러서 아침저녁으로 악한 짓을 하게 되는데, 가까이는 목전에서 과보를 받고 멀게는 죽은 뒤에 윤회에 들게 된다. 한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영원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충성스러운 말이 귀에는 거슬리나 어찌 마음에 새겨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먼 길을 갈 적에…"라는 구절은 순례 중인 우리 일행에게도 해당된다. 경책전에 들어 다시 한 번 새겨보는 뜻 깊은 시간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고, 나를 완성시켜 준 이는 벗이다"라는 구절이 오늘따라 가슴에 더 와 닿는다.

### 앙산이 향엄의 여래선과 조사선을 구분하다

나를 완성시켜 준 사람은 누구일까. 그를 일러 도우(道友)라고 할 것이다. 천 년 전 밀인사에 머물며 위산 문하에서 정진했던 앙산과 향엄지한(香嚴智閑: ?~898)의 우정이 그립다. 하루는 위산이 향엄을 불러 말했다.

"너는 백장 스님께서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고 열을 물으면 백을 대답했다고 들었다. 이는 네가 총명하고 영민해 이해가 뛰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바로 이것이 생사의 근본이다. 부모가 낳아주기 전 너의 본래면목에 대해 한 마디 말해 보아라."

향엄은 말문이 막혀 방으로 돌아와 모든 경서를 뒤져가며 대답을 구했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자탄했다.

"그림 속의 떡은 배고픈 배를 채우지 못한다."

이후 향엄은 기회를 내어 위산에게 달려가 가르침을 청했다. 그때마다 위산은 말했다.

"만일 너에게 대답해 준다면 너는 뒷날 나를 욕할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일일 뿐 결코 너와는 관계가 없느니라."

마침내 향엄은 평소 즐겨 보았던 경서들을 불태우면서 말했다.

"금생에는 더 이상 불법을 배우지 않고 이제부터는 멀리 만행하면서 얻어먹는 밥중 노릇이나 하면서 몸뚱이를 편케 하리라."

향엄은 위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을 떠났다. 그는 남양(南陽) 지방을 만행하다가 혜충국사 탑을 참배하고는 그곳에 머물렀다. 그런데 하루는 마당가 잡초를 뽑다가 우연히 기왓장 한 조각을 집어던졌는데, 기왓장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는 단박에 위산이 준 화두를 깨달았다. 향엄은 서둘러 처소로 돌아와 목욕하고 향을 사른 뒤 스승 위산이 있는 쪽을 향해 절했다.

"스승님의 큰 자비는 부모님 은혜보다 크십니다. 그때 저에게 그 일을 말해 주셨더라면 어찌 오늘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대중이 〈위산경책〉을 거울 삼아 참회장소로 이용하는 경책전.


〈육조단경〉을 사숙하던 청년 모택동이 머물었던 밀인사 골방.

이 소식을 위산이 전해 듣고 앙산에게 "향엄이 깨친 모양이구나" 하자, 앙산이 향엄의 게송을 살펴보고 난 뒤 "이 게송은 지견으로 따져서 쓴 것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고 했다. 이후 앙산이 향엄을 만나 말했다.

"스님께서 사제가 깨달은 것을 칭찬하셨소. 그 일을 한 번 말해보시오."

향엄이 오도송을 읊조리자 앙산이 말했다.

"이는 지난번 일을 기억으로 말하는 것이오. 정말로 깨쳤다면 달리 말해 보시오."

향엄이 또 게송을 지었다.

지난 해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금년의 가난이 진짜 가난이네
지난 해 가난은 바늘 꽂을 땅도 없더니
금년의 가난은 바늘마저 없구나.

앙산이 말했다.

"여래선은 사제가 알았다고 인정하겠소만 조사선은 꿈에서도 보지 못했소."

지난해보다 금년이 더 가난해졌다는 말은 해를 거듭할수록 깨달음이 깊어졌다는 뜻이므로 점점 닦아가는 돈수(頓修)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향엄은 물러서지 않았다. 다시 게송을 지어 읊조렸다.

나에게 한 기틀이 있어
눈 깜박하는 사이에 보네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에게

더 이상 사미라 부르지 말라.

앙산이 이 일을 위산에게 보고했다.

"반갑게도 지한 사제가 조사선을 이뤘습니다."

한 기틀을 눈 깜박하는 사이에 보는 것은 단박에 깨닫는 돈오(頓悟)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앙산과 향엄이 탁마한 것을 두고 훗날 위산의 철(喆)스님은 "눈과 서리가 없으면 송백(松柏)의 지조를 어찌 알겠는가!"라고 평했는데, 〈위산경책〉에 나오는 구절의 벗처럼 향엄을 완성하여 준 이는 앙산이 아닐까 싶다.

### 〈육조단경〉은 최고의 불경이자 노동인민의 불경

수불 스님도 순례 중에 '깨닫고 난 뒤의 갈림길'

**향엄을 완성한 이는 앙산이 아닐까**
**신라 순지선사, 앙산 가풍 신라에 전해**

을 법문하신 바 있다. 향엄이 견성하고 난 갈림길에서 더 큰 인연을 짓게끔 앙산이 이정표가 되어 준 선화(禪話)라고 할 수 있다.

"백장 스님이 위산 스님을 불씨 하나로 깨닫게 해주고 난 뒤 '이것은 갈림길에서 드러난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제 큰일을 했지만 갈림길에서 나타난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위산 스님은 백장 스님의 그 말을 믿고 공부해서 더 큰 인연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더 큰 인연으로 거듭나는 것과 보림이란 말과는 엄격하게 구분했다.

"깨달음의 눈을 뜬 사람에게는 보림이란 말 자체가 어리석은 말이지요. 그러나 부처님도 중생 편에서 근기에 따라 말씀을 하셨듯이 보림이란 말을 해야 될 때는 사용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눈 뜬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다가는 뺨따귀를 맞게 되지요. 또한 갈림길의 인연이 각자 다른 것은 업이 그러하니 그런 겁니다."

경책전을 나서니 배휴 글씨로 쓴 편액의 조당이 있다. 조당에는 위산과 앙산의 영정이 걸려 있고, 그 하단에 위패들이 봉안돼 있다. 그중 한 위패가 내 눈길을 붙잡는다.

'嗣法新羅順支禪師(사법신라순지선사)'

무슨 인연으로 신라 순지선사의 위패가 밀인사 조당에 봉안돼 있는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아무도 아는 이가 없어 국내에 돌아와 살펴보니 순지는 앙산의 7대 제자 중 한 분이다. 신라 헌안왕 2년(858)에 입당해 곧바로 앙산을 찾아 입실제자가 됐다고 한다. 순지가 밀인사에 온 것은 줄곧 앙산의 좌우를 떠나지 않고 참학한 까닭이었다. 경문왕대에 귀국해 오관산 용암사와 서운사에 머물렀으므로 순지를 오관산서운화상이라 부르기도 했다. 앙산의 일원상(一圓相) 가풍을 우리나라에 처음 전한 선사로서 세수 65세에 입적하니 시호를 료오(了悟), 탑호를 진원(眞原)이라 했다.

조당 뒤편 요사 팻말에 모택동유숙처(毛澤東留宿處)라고 적혀 있다. 침상이 하나 있는 조그만 골방이다. 1917년 청년 모택동은 영향현에 머무는 동안 평소 흠모했던 밀인사 주지스님과 3일 밤낮을 토론한 끝에 자신의 정치신념을 굳혔다고 한다. 훗날 주석이 된 그는 1956년에 영향 현위서기(縣委書記) 장학정(張鶴亭)을 만나 다음과 같은 글을 써 주면서 밀인사를 보호하도록 지시한다.

'위산은 좋은 지방으로 밀인사가 있으니 마땅히 잘 보호해야 한다(僞山是個好地方 有個密印寺 應該好好保護起來).'

모택동이 정치적인 수사로만 한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는 15살 때 모친이 앓아눕자 남악 관음대를 찾아가 기도했고, 27세 때 여금희(黎錦熙)에게 보낸 편지에서 '불학(佛學) 도서를 구해서 보내 달라' 고 요청했다. 그리하여 그는 〈금강경〉, 〈화엄경〉 〈육조단경〉을 접하게 된다. 특히 그는 〈육조단경〉을 전문가 수준으로 이해한 바, 혜능을 '선종의 진정한 창시자이자 중국불교의 조사' 라고 평했으며 〈육조단경〉의 가치를 억압받던 중국인민의 "주관적 능동성을 돌출시킨 중국 철학사상의 거대한 약진이다"라고까지 극찬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고의 불경은 바로 노동인민의 불경인 〈육조단경〉이며, 노동인민은 바로 혜능이었다"고 말했다.

위산과 배휴가 심었다는 은행나무 아래 조성된 조그만 광장 벽에 모택동의 친필 글씨가 보인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못한 중국불교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승속 간에 신심의 우물이 메마르지 않은 한 중국불교의 미래는 밝다는 느낌이 든다.

순례자 일행은 왔던 길을 되돌아 위산이 말년에 은거한 동경사 터로 가 묘탑을 참배하기로 하고 밀인사를 나선다. 묘탑은 당 대중 10년(856)에, 그러니까 위산이 입적한 3년 뒤에 이경(李景)이 위산의 묘탑을 만들어 줄 것을 상주해, 함통 4년(863)에 황제가 문도를 조정으로 불러 시호를 대원(大圓), 탑호를 정혜(淨惠)라고 정하여 내렸다. 입적한 지 10년 만이니 위산에서 장안이 결코 녹록한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다.〈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 단기출가 참선·단식

2010 겨울 12월 1월 2월 삼매체험 수련회 5일 단기출가 30일 50일 100일

## 씻을 수 없는 몸에 밴 관행 체질전환, 단기출가로 해결가능!

》금강단식 국민단식

- 물만 마시고도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을 퇴치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면역성 노화방지 발암억제 해독 아토피 피부 미용 여드름 생리연장 금연 금주
- 다이어트 1일최고 3Kg감량. 요요현상제로

나를 찾는 것은 인류가 안고 있는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처방입니다.
가장 뛰어나고 분명한 최상승 참선이 인류를 수렁에서 끌어낼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를 찾고자하는 다짐만 있다면 활인선원에서 참선공부 힘을 얻는 것은 순간의 일에 불과합니다.

<< 5일수련, 30일 50일 100일 단기출가 일정 >>

| 차수 | 날 짜 | 기간 | 장 소 | 차수 | 날 짜 | 기간 | 장 소 |
|---|---|---|---|---|---|---|---|
| 1차 | 12.25(토) ~ 12.29(수) | 5일 | | 4차 | 1. 21(금) ~ 1.25(화) | 5일 | 제주원명선원 |
| | 1.23(일) | 30일 | | | 2. 19(토) | 30일 | 시작은 원명선원에서 |
| | 2. 12(토) | 50일 | | | 3. 12(토) | 50일 | 〃 |
| | 4. 3(일) | 100일 | | | 4.30(토) | 100일 | 〃 |
| 2차 | 12. 31(금) ~ 1. 4(수) | 5일 | | 5차 | 1.31(금) ~ 1. 4(금) | 5일 | |
| | 1.29(토) | 30일 | | | 2.27(일) | 30일 | |
| | 2.19(토) | 50일 | | | 3.19(토) | 50일 | |
| | 4. 9(토) | 100일 | | | 5. 7(토) | 100일 | |
| 3차 | 1. 14(금) ~ 1.18(화) | 5일 | 제주원명선원 | 6차 | 2.18(금) ~ 2.22(화) | 5일 | |
| | 2.12(토) | 30일 | 시작은 원명선원에서 | | 3.19(토) | 30일 | |
| | 3. 5(토) | 50일 | 〃 | | 4. 9(토) | 50일 | |
| | 4.23(토) | 100일 | 〃 | | 5.28(토) | 100일 | |

※ 위 '원명선원' 지명 표기 2차 외에는 활인선원에서 행함. ( 대상 : 청소년,대학생,일반 )

活 참선전문도량 활인선원 안성맞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번지 ☎ 1644-5266, 070-7519-9929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우리나라 최초 사액서원 소수선원에는 성리학을 고려에 전해 온 안향을 배향하고 있다.

최연의 산 이야기<37> 소백산 5

# 죽령을 차지하면 천하를 얻는다

하회마을은 서애 유성룡을 키웠다.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것은 국보 제121호인 하회탈과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인 '하회 별신(別神) 굿 놀이'이다.

하회탈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탈로 고려 중엽 이후 전래된 것으로 알려진다.

국보 제121호 하회탈은 11개다. 하회탈은 처음 제작 당시에는 12개였으나 양반, 부네(젊은 계집), 선비, 중, 각시, 할미, 백정, 초랭이(하인), 이매(서민) 9개만 전해지고 있다. 국보로 지정된 하회탈에는 이웃 병산마을의 탈 2개가 합쳐진 것이다.

하회탈을 대표하는 턱없는 이매탈에 대한 전설이 흥미롭다. 허(許)도령은 신(神)으로부터 가면제작의 명을 받는 꿈을 꾼다. 가면을 다 만들기까지 작업장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전심전력으로 가면을 만들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허도령이 보이지 않자 그를 연모하던 처녀가 연심을 못 참고 허도령의 모습을 엿보았다. 허도령은 이매의 턱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숨을 죽었는데 미완의 탈이 오히려 하회탈의 특징이 됐다.

'하회 별신굿 놀이'는 허도령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음력 정월대보름 무렵 마을 사람들이 그가 만든 탈을 나눠 쓰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놀이였다. 이후 해학과 풍자를 나타내는 12마당의 가면극으로 연출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백두대간(白頭大幹) 상에 있는 소백산을 넘나드는 고개는 죽령(竹嶺)이다. 죽령의 북쪽은 단양(丹陽)이고 남쪽은 풍기(豊基)다.

죽령은 158년 죽죽이라는 신라인이 처음 개척한 것으로 삼국사기에 전하고 있으니 고개의 나이가 무려 1800살이 넘는다. 서울의 한강유역과 마찬가지로 죽령도 삼국의 쟁패지((爭覇地)였다. 적성산성에서 발견된 신라 적성비(赤城碑, 국보 198호)는 신라 진흥왕이 고구려로부터 죽령 북쪽의 단양 등 10개 군을 빼앗은 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죽령은 백제의 땅이었다가 고구려 광개토왕의 땅이 되기도 했으나 결국은 신라 진흥왕의 땅이 됐다. 고려 때는 왜구가 쳐들어오는 길목으로, 조선 때는 영남좌도 일원의 고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 되기도 했다.

조선시대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서쪽 마을인 상주 예천 선산 김천 성주 등은 경상우도(영남우도)라 하고, 동쪽 마을인 봉화 영주 안동 영양 청송 등은 경상좌도(영남좌도)라고 한다. 임금의 자리(서울)에 앉아서 보면 동쪽이 왼쪽이고 서쪽이 오른쪽인 것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영남에서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 좌도고을 사람들은 죽령을, 우도고을 사람들은 조령(문경새재)을 이용했다.

죽령에 기대고 있는 희방사는 〈월인석보(月印釋譜)〉 12권을 보존하고 있었다. 〈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참고해 세조 5년(1459)에 간행한 훈민정음 이후 최초의 불경언해서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전쟁 때 미군에 의해 절과 함께 소실됐다.

죽령에는 김유신과 죽지랑 사당이 있었다. 그러나 사당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희방사 입구에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시비가 세워져 있을 뿐이다.

'죽지(竹旨)'는 진덕여왕 재상 술종(述宗)의 아들이다. 술종이 삭주(지금의 춘천)의 도독부로 부임하러 가는 길 죽령에서 한 거사를 만나 정답게 얘기하고 헤어지는 꿈을 꿨다. 꿈을 꾼 그날 거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술종은 거사가 자기 집에 환생했다고 믿었다. 술종은 훗날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고개의 이름을 따서 죽지라 지었다.

죽령의 남쪽 풍기에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紹修書院)이 있다. 이 터에는 성리학의 대가 '동방주자(東方朱子)' 안향(安珦)선생이 학문을 연마한 숙수사(宿水寺)라는 절이 있었다. 조선중종 37년 풍기군수 주세붕은 숙수사를 없애고, 안향을 제사하기 위해 사당을 세웠다.

소수서원이 세워진 뒤 이곳은 학문에 힘쓴 선비들이 많이 배출됐고 안향 선생을 흠모하는 선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소수서원 터는 신령스런 거북이가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인 영귀포란형(靈龜抱卵形)의 명당이다. 거북이는 알을 아주 많이 낳기 때문에 거북형의 명당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온다고 한다. 소수서원 바로 옆으로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르고 그 물가에는 소담스러운 정자들이 세워졌다.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 덫에 걸린 삶

기말고사 성적을 보고 아내가 아들에게 불만을 얘기한다. 왜 이렇게 국어점수가 좋지 않게 나왔냐는 거였다. 79점이면 썩 좋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내가 아들에게 기대했던 점수는 아니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생각하니 아들이 평소 책을 빨리 읽는 버릇이 있음에 생각이 닿았다. 내가 2~3일 걸려 읽는 분량을 아들은 두세 시간에 읽는다.

사람마다 독서 능력이 다르다는 걸 부인하진 않는다. 빨리 읽으면서도 글쓴이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다. 책을 빨리 읽는 사람의 역량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들이 빠르게 책을 읽다보니 국어점수가 낮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현준아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네가 책을 너무 빨리 읽기 때문에 국어점수가 생각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책을 빨리 읽어서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깊이 있는 맛을 느끼기 힘들게 되지. 천천히 읽으며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까지 파악하면서 네 생각과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져보고 글 속에서 그걸 풀어보기도 하면서 나아가야 제대로 책을 읽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 10권의 책을 속독하기보다는 천천히 정독하며 1권을 읽는 게 더 낫지. 작가와 대화를 하면서 책을 읽어야지 내용만 파악하기 위해 읽는다면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아들은 긍정을 하면서도 못내 얼굴이 굳어졌다.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고 아들을 제 방으로 보내고 나니 어두운 얼굴이 또 못내 마음에 걸린다.

> 아무래도 나 또한 이 사회가
> 만들어놓은 덫에 걸린 모양이다.
> 남 얘기하기가 어렵고 또 어렵다.

내가 아들의 공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에 들어서였다. 아들이 두 아이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내가 알아본 바로는 1학년 때부터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아이와 그 아이와 단짝인 아이, 두 명으로부터 합동공격을 받았다고 했다. 한두 해 전에도 피가 옷에 묻은 채 들어와서 아내가 선생을 찾아갔던 일이 있었다. 주먹을 휘둘러 아이들 위에 올라선 아이는 공부도 잘 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중적으로 학교를 들락거리며 담임선생과 가깝게 지냈고 담임은 그녀의 아들을 유난히 아끼며 추켜세웠다고 한다. "너희 다들 ○○같이만 해라"는 말을 달고 살았고 틈날 때마다 아이들 앞에서 포근히 안아주었다고 한다. 그 반대로, 반에서 어눌해 보이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하는 아이는 툭툭 때리고 밀어 넘기는 등의 차별행위를 했다고 한다. 견디다 못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아이도 있었다. 한 학년 12명이 11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여자와 남자 그리고 때리는 아이와 맞는 아이로 나뉜 게 그때부터였다.

5학년 땐 내가 직접 담임을 찾아갔다. 담임은 아들과 그 아이를 면담도 하고 주의도 주면서 살피며 내게 전화를 주곤 했다. 나는 아이가 당당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 맞지도 말고 패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으나 이미 기세가 꺾인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와 대등하게 자라나긴 힘든 일이었다. 좁은 지역인 탓에 별다른 일이 없다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이어질 판이었다. 내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은 하나였다. 공부만은 앞서야 한다. 공부를 앞선다면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진 못할 게다. 학교에서는 공부 잘 하는 놈이 최고 아닌가? 아들을 붙들고 나는 영어를 아내는 수학을 가르쳤다. 한 학기를 거치면서 아들은 그 아이를 앞서나갔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중학교 일학년도 끝나갈 무렵이다. 아내가 공부 안한다며 아들을 질책할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아들에 대한 공부타령은 아내의 말만으로도 넘치고 있으니 나라도 이제 좀 느긋이 지켜보기로 하자.



그게 쉽지가 않았다. 정규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얻고 남들 위에 서서 살길 바라는 마음이 내게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어찌 생각하면 답답한 그 인생을 나 또한 소원이라도 되는 양 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왜 아들은 틀에 얽매여 살길 원하는가? 아무래도 나 또한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덫에 걸린 모양이다. 남 얘기하기가 어렵고 또 어렵다.

시인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新 제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 고 ·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공예양초



① 밀납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② 밀납 1호 그림 양초 5.9ϕ×18cm
③ 악쑥 1호 그림 양초 5.9ϕ×18cm
④ 악쑥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⑤ 밀납 PC컵 초 5.5ϕ×4cm(연소시간 약 8시간)
⑥ 한봉 금강경 세트 5.9ϕ×18cm

한밀납 양초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생 활 안 내

▷ 문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기도, 성취, 영험 도량**
각종 난치병, 치매, 사업성취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 범패 염불 교육도량**
학인모집 개인지도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 범음범패
사찰 각종 행사대행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 점안식
011-243-3587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범 음 범 패**
실제위주 교육도량
천도재, 49재, 점안식, 수륙재,
영산재, 화청, 바라, 나비무, 명리풍수
각종 불공 행사전문
1학년 무료강의, 학인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예술원)

**태극기를 알면 삶이 행복하다**
국민건강의 지혜가 담긴
한의학, 명리학, 풍수학을
무료 강의합니다. (스님환영)
"스님과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
(돈오견성 체험)으로의
여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열린시민선방
010-3045-0085

**수강생 모집**
철학반 • 무속반
승도반 • 치유반
도건명리학당(불당사)
042)526-1123
010-3452-1123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 분
입종을 환영합니다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567-2(성불사)
총무원 051)204-8494

**신기하고 묘한 인연**
병원에 가도 치료는 안되
고 본인도이해가 안되며
고통의 시간만 보내는 분.
무료체험 : 스님 봉사
송파구 귀 보광사
010-2065-7304

**스님 초빙**
부산, 대구에서
열심히 활동하실 분
가정과 회사방문
기도 및 상담
대불정능엄신주 기도함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대덕 작명 아카데미**
국제작명사 등록번호 : 45832
작명수강생 모집
• 1개월 속성반
• 2개월 전문인반
053)768-4523
010-8574-33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5세,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11-229-5043

사무실 직원
(숙식가능 자) 구함
미국 LA에서
수행하실 스님 모십니다
010-5792-3000

**부산 연화정사**
행자모집
男 • 女 행자 각 0명
(나이 25~45세)
051)819-6665
010-4719-5388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대한불교 구화조계종 총본산 구화사**
함께하실 종도스님,
학인스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
불교 모든 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의식,49재,영산대재, 천도재등
054)977-9733
010-9421-9364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7232-0384

**예언자들이 필히 암기할 비법**
• 천도해야 할 영가 찾는법
• 필히 모셔야할 신 찾는법
• 간단한 매년의 운세 길흉법
• 애인 생기고 결혼하는 시기법
• 일부종사 어려운 사주
• 애인이 않 떨어지는 사주
• 신명제자 신쌀 통변법
010-4799-0713

**청도 알프스 용호산**
**산약초골 달마선원** 입니다.
(신축건물 원룸식)
참선수행 하실 분 환영.
산약초물 마시면서
건강 되찾으실 분
"전화문의 환영"
054)372-9905
010-5875-47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포천
011-9317-918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당 노원구 중계동
▷60세 이하, 출퇴근 가능 하신 분.
02)3391-8523
011-9002-8523

평생을 함께하실
기도스님과 공양주,
화주, 시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41)835-3933
010-8353-3337

사무장 (女)
구합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8954-8033

**영가를 쉽게 찾는 방법**
띠와 생일만 알면 됩니다
보시금 10만원
농협 356-0394-311943 이정화
010-6662-88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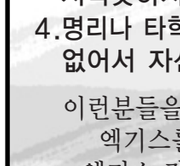
**청소년 빙의**
100% 치유
학업성적향상
부처골 지장선원
www. jijangsw.com
054)383-8553
* 퇴마의식 비법전수 *

**도와 주십시오**
36세 비구니 스님으로 조계종 청암사에 출가하여 승가대학 사직과 재학중 몸이 아파 지금까지 15년간 당뇨, 신장염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투석을 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도움손길 기다립니다.
해진 합장
연락처 : 010-9045-5215

**대방등 신통기도**
●큰서원이 있는 스님은 전화를 하십시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130-1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좋은 인연. 멋진 인생**
▷전통 예술 : 대금,단소, 태평소, 학춤, 한량무 ...
▷불교 의식 : 예불, 범패, 바라무, 법고 ...
▷전통 무예 : 선무도, 봉술...
위 수행으로 불심을 가꾸어가실 동반을 모십니다.
선무도 양산 연수원 010-9314-0950

**東和임영재선생의 氣.수맥.풍수지리이야기**

◆ 수강생모집 ◆
풍수지리,수맥 전문가 양생교육
모집인원: 선착순20명
교육일시: 2011년2월13일 일요일 오전11시 6주코
교육장소: 교대역13번 출구 스타벅스건물 7층
◆ 수맥,풍수지리 상담 ◆
음택, 양택, 재혈,원격감정, tv.출연 이론입증
전화예약 ☎:1644~8457 동화자연지리회 www.dh21.kr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뉴욕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저자 우학스님 직강
화, 금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문의 : 전화 053)474-8228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전화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전 통 침 술 개 인 지 도**
개인지도 내용 . 침구학 기초이론
전통침술 및 사암침술 . 경혈취혈요령과 자침실기
교육기간 : 1주 1회 4시간씩 2개월간 또는 1주 2회 4시간씩 1개월간
교육방법 : 실습을 겸한 개인지도 형식이며, 방문지도 함(전국)
전화 : 010-4054-7110
2개월의 개인지도로 자신있게 침을 놓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blog.naver.com/kppass7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 대 침 술 의 학 연 구 소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심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무림사
• 법 명 : 수민 (임정선)
• 주 소 : 부산 진구 부전동 346-82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대한불교약사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륜사
• 법 명 : 수경 (최점숙)
• 주 소 : 경북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720-1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대한불교불이종 총무원장 법하

**佛敎儀式 (범음, 범패)**
**學 人 모 집**
효타암에서 불교의식 전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천수경, 행선축원,
상단예불 및 각단예불 등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천수바라, 시식 등
• 모집인원 : 약간 명
• 원서접수 :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의식 교육원 효 타 암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경북 군위군 부계면 금륜사
051)524-9406 / 010-6569-1010 (법선)

**공 념 학 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saju79.com

# 불자정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중앙 돌출 500,000 / 하단 먹 7cm 100,000
▷ 마 감 : 매주 월~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평택시 소재
-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
- 평수 4층 70평(법당)
- 6층 70평(요사채) 각층 전체
- 삼존불 (동불) 및 후불탱화, 지장, 신중탱화, 관음지장 , 호신불 108위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상담

031)672-3353 / 031)677-9950~1

##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동해안)
- 법당 : 25평(목조)
- 요사 : 50평(목조)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5천

- 위치 : 경남
- 법당 : 6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20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경북
- 법당 : 60평
- 요사 : 11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2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사찰 및 토굴안내

### 부산 강서 아름다운 절

- 총대지 : 348평
- 법당(신축) 약 40평, 요사, 방3칸 지장전, 산신각
- 주차장 300대, 사찰 뒤편 산
- 가액: 5억

###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 310평
- 법당 3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25평
- 용왕당
- 금정산 솔밭 자락(온천동)
- 가액: 7억 3천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 한 국 불 사

- 서울근교 (APT밀집지역, 재래시장근접) 교통주차 편하고 산세수려함
- 대지 약 160평, 2층 목조법당
- 가액: 1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횡성 근교
- 전망좋고 댐과 접해 있음
- 사찰터로 최고 적합
- 주택2동
- 실평수 1500평, 3000평 사용가능
- 가액: 3억

011-369-4154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종평수: 880평, 대지 380평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CCTV 설치되어 있음.
- 가액: 4억(은행융자 8천만원) 조건부 가격 절충

010-3112-3513

## 절(사찰)요양시설

복 지 시 설

- 경남 산청
- 농장, 약초재배단지 다용도
- 3만 5천평
- 가액:17억 5천만원

02)739-5008

##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영월
- 대지 450평, 법당15평(단청), 객실 현대식: 32평, 객실: 10평 산신각:4평 창고: 7평 화장실: 2개
- 특징: 불수질과 맞은 한국에서최고. 경내까지포장, 주차장에승용차20대주차가능
- 심야전기나무보일러및기름겸용
- 유실수및벚꽃나무,연산홍및여러가지꽃나무300주이상
- 텃밭 • 60년전통사찰
- 가액: 2억5천육백(가격절충가능)

010-2263-9750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광진구 구의동 아리수 정문앞
- 법당 80평, 친견실, 부엌, 산신각, 방3
- 보증금 2천만원, 월 18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8599-9977
010-3596-2538

## 절 터 임 대

- 위치 :경기도 부천
- 대지 340평, 건평 60평 (판넬) 20평
- 가액: 보증금 5천만원, 월 100만원

011-9707-3490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 부지 235(실사용 300평)
- 건평 40평
- 뒤편 산 및 조그마한 계곡
- 가액: 2억 2천만원 (융자 5천5백만원) 가격일부조정가능

010-8550-6552

##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시내인접)
- 대지 약 265평
- 건물 2동, 공양실 별도
- 법당 30평, 요사 30평
- 방 3, 주방, 거실, 화장실 3
- 가액: 4억 5천만원

010-8643-6676

##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포교활동 적지
- 대지 : 149평
- 법당 : 20평 단층기와
- 요사채 기와(2동)
- 가액: 4억 7천만원 (개인사정으로 양도)

011-811-5466

##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6000평, 실등기 5000평)
- 대지(종교용지 )약 700평 어떤행위던 허가 나는 준보전 임야 43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5평), 요사채(약40평) 2동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4억

011-816-9104
010-3815-9104


친환경
삼베타올 SET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 27,000원 (2세트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충남 서산 터미널 뒤편
- 평수 23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8만원
- 시설비 300만원
- 대체의학 하시는 분 환영

010-2864-7284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 3층 건물 중 2층 6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 집기일체양도, 법회 즉시 가능

055)855-5950
010-4867-8977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완비, 80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773-8532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 1억 2천만원 (대출 4,500만원)

011-9393-4965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 평수 46평. 교통편리
- 보증금 4천만원, 월 14만원
- 시설비 2800만원
- 시설일체 완비
- 현재 법회중

010-8631-6333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 부개역사거리 대로변
- 3층건물 중 2층 실평수 35평
- 아미타불,관음세지협시불,지장보살
- 산신탱화, 용왕탱화, 후불흑탱화
- 방2, 도시가스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780만원

011-729-6011
032)614-6011

##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온천동
- 평수 약 5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위치, 시설 A급
- 시설비 1천만원

051)502-7721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개봉동부근
- 평수: 45평. 3층
- 보증금 2천만원, 월85만원
- 시설비 절충

02)2618-0908

## 터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빌산리
- 대지 2,600평
- 절터, 전원주택용이
- 사슴축사 200평 포함
- 좌우로 산을 끼고 있음

016-475-3051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완비, 80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773-8532

##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부안면
- 대지 약 500평
- 법당30평,삼존불 천수천안관세음보살, 칠성,산신탱화
- 포교원최적지임
- 전세금 4천만원

010-4628-3317

## 토 굴 터 안 내

- 위치: 거창군 가북면 중감마을에서 500M
- 현재 묵은 논, 2필지, 1017평
- 남향, 해인사 뒷산
- 깊은 산속 시원한 계곡물
- 가액: 2천 5백만원

011-9393-4965

##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읍
- 2층건물 2층
- 법당 40평중 방3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후불탱,지장탱신중탱화,아미타삼존불 ,집기일체
- 등산로 입구, 아파트 주변 대로변 교통원활
- 보증금 2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010-6556-6431

## 요양 토굴안내

- 위치: 대구시내 두류동 주택2층 독채 (6차선 도로접,주차가능)
- 법당,황토 흙침대방,기타...
- 보증금 2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500만원
- 항암 치료나 당료 합병증으로 병원치료중 면역이 떨어져 힘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스님, 불자께서 요양 하시면 나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010-8524-2460
010-4191-0455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동구 불로동
- 2층 전체 45평
- 법당,방2개,주방, 거실,배란다
- 약사관음,산신, 신중후불탱화 108호신 원불,영가당
- 보증금 3천만원 월40만원

010-7766-6277

##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위치 좋음
- 평수 500평
- 산신, 용왕, 법당, 요사채 각1동
- 심야보일러
- 가액: 3억 3천(조절가능)

011-595-1522

##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보은IC 10분 거리
- 대지 200평, 조립식 법당 25평, 전답 1,6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평당 1만 4천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 토 굴 안 내

- 위치:충북 옥천군 안남면
- 평수12평, 2필지
- 건물 1700만원
- 토지세 1년에 25만원

010-9288-0048

## 포 교 원 안 내

- 위치:부산 온천사거리 부산은행 맞은편
- 평수 58평, 방2, 주방, 화장실2
- 삼존불,아미타불,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모셔져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010-8566-9799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완비, 80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773-8532

##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읍
- 2층건물 2층
- 법당 40평중 방3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후불탱,지장탱신중탱화,아미타삼존불 ,집기일체
- 등산로 입구, 아파트 주변 대로변 교통원활
- 보증금 2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010-6556-6431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5동 3층건물 중 2층
- 약 45평. 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종무실 겸 방2칸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모든시설 완비(시설 A급), 시설비 1천 5백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010-5535-6487/053)522-6487


##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김경현 원장의 **몸·마음 이야기**

# 알코올중독으로 가는 과정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사교적 음주이다. 사교적인 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이때는 어울리는 사람이 없으면 술 마실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간혹은 긴장을 풀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을 마신다.

2단계는 예징단계이다. 혼자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진다. 술을 먹은 사실을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술 마실 건수를 만들거나 찾아나서는 행동을 보인다. 그러나 음주시 의식이 말짱하며 외견상 심하게 취한 행동을 자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끔은 술 먹었을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3단계는 결정적 단계이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알코올중독이 되기 때문에 결정적 단계라고 한다. 일단 술을 마시면 끝장을 보려고 하며, 낮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술이 우선이기 때문에 식사를 소홀히 하고 술 때문에 결근을 하거나 조퇴를 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겪는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금단증상이 나타나지만 며칠씩 술을 마시지 않을 수는 있다.

**지방간 알코올성간염 간경변증 유발**
**술 마시면 뇌, 심장, 고환에 안 좋아**
**과음하면 유해산소 발생 빨리 늙어**
**술 끊으면 지방간 정상회복 가능해**



4단계는 만성단계이다. 음주가 하루의 중요한 일과가 되어 거의 날마다 술을 마신다. 알코올이 들어가야 활기가 생기며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위축되고 무기력한 행동을 보이거나 안절부절 못한다. 취한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지고 외모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무시하고 오로지 술을 위해 산다.

휴식할 틈도 없이 다량의 알코올이 계속 간으로 들어오면 간이 타격을 받는다. 알코올성 간질환에는 지방간 알코올성간염 간경변증 등이 있다. 이중 가장 흔하고 가벼운 지방간은 매일 20~40g(소주 1홉 미만) 정도의 알코올을 수일간만 마셔도 발생한다. 애주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지방간이라는 통계도 있다.

지방간은 일정기간 술을 끊으면 정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간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알코올량은 160g정도이나 실제 간경변증을 초래할 수 있는 양은 이보다 적다. 남자는 하루 40~60g(소주 1.5홉 또는 맥주 1500cc)이상, 여자는 이보다 소량으로 알려져 있다. 매일 소주 40~60g을 마시면 20g정도 마시는 사람에 비해 간경변증이 생길 위험도가 6배이며, 매일 60~80g을 마시면 14배로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다. 알코올의 양이 많고 음주기간이 길수록 간 손상이 증가한다. 짧은 시간에 폭음하는 것도 간에 부담을 준다.

술이 나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술 속의 알코올 성분은 대부분 위장과 십이지장에서 흡수된다. 알코올은 위점막을 손상해 위염 소화성궤양 식도염 등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과음 후 속이 쓰리고 구역질이나 팽만감이 올 수 있다. 췌장염이 생겨 심한 복통이 오거나, 소장점막에 염증을 일으켜 설사가 나기도 한다.

알코올이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생성된 아세트알데히드 등은 체내에 다량의 유해산소를 만든다. 알코올과 알코올대사로 생긴 다량의 유해산소가 온갖 병리현상을 초래한다. 소량의 알코올은 간의 해독작용으로 충분히 처리된다. 그러나 많은 양의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가면 간이 이를 처리하지 못해, 혈액을 통해 다른 신체조직으로 흘러넘치게 된다. 이처럼 흘러넘친 알코올은 신체 조직에 여러 가지 손상을 입힌다.

술에 의한 신체가 손상될 경우 일반적으로 간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뇌, 심장, 고환 등에 훨씬 더 나쁘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기억력 감퇴, 사고이상, 운동기능저하, 심장장애, 성기능 저하 등이 나타난다. 술에 의한 간 기능 이상은 장기간 다량 복용했을 때 나타나지만, 뇌 심장 고환 등의 손상은 더 빨리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과음하면 빨리 늙는다. 술은 약주라고도 해서 건강 ·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다. 과도한 알코올은 체내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유해산소를 발생시킨다. 유해산소는 세포막을 형성하는 성분인 지질의 과산화현상을 불러와 세포막을 파괴하고 단백질 과산화도 초래, 체내 각종 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유해산소는 세포의 핵산도 산화시켜 노화를 촉진한다.



선재한의원
(02) 518-0845



정미화 원장의 **건강한 구강 관리법**

# 부드러운 칫솔모 택하세요

## 입 헹군 후 양치하는 습관들이는 것이 좋아
## 혀만 제대로 닦아도 구취·병원균 걱정 OK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치질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칫솔은 딱딱한 칫솔모 보다 부드러운 모를 고른다. 칫솔의 크기는 머리부가 어금니 2~3개를 덮을 정도의 크기를 고른다. 그래야 잇몸 구석구석을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칫솔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한다.

치약을 짤 때는 칫솔모 사이사이에 치약이 스며들 수 있도록 꾹꾹 눌러 짜는 것이 좋다. 특히 치약을 짜고 물을 묻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치약에 물을 묻히기보다 먼저 입안을 물로 헹군 후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

보통 칫솔질은 '회전법'이라 해서 손목의 회전을 이용해 아랫니는 위로, 윗니는 아래로 쓰러 내리듯 치아를 닦는다. 한 부위 당 10회 정도 반복 후 방금 닦은 부위와 겹치도록 옆으로 이동하며 칫솔질을 한다. 치아의 바깥 면과 안쪽 면을 고루 닦은 후 어금니의 윗면을 닦는다.

잇몸이 좋지 않다면 '바스법'으로 치아를 닦는다. 칫솔모를 45도 각도로 기울인 후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들어가도록 한다. 그런 다음 칫솔을 3~4회 흔들어 진동을 준 뒤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주듯 닦는다. 이 방법은 바스 박사가 고안한 것으로 치아와 잇몸 사이의 세균수를 줄이고, 잇몸 상피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 면역저항력을 높인다. 또한 치은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바스법으로 계속 양치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치면 세균막 지수가 높아져 치은 퇴축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치은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면 회전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치아를 닦은 후에는 구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혓바닥을 닦아준다. 혀만 제대로 닦아도 구취뿐 아니라 입안에 서식하는 각종 병원균을 줄일 수 있다. 닦을 때는 혀의 끝부분만 닦지 말고 뿌리 쪽까지 깊숙이 닦아야 한다.

양치질 전후에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을 생활화 하면 치석은 물론 충치와 풍치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 식사 후 이쑤시개 사용은 치아사이를 벌어지게 해 좋지 않은 습관이다. 그러므로 치아사이가 조밀한 분들을 치실을,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는 분들은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연우치과 (02) 733-1030



Dr. 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 턱을 당기는 습관을 생활화 합시다

## 거북목, 체형불균형 가져와
## 굽은등, 휜다리 증세 유발

거북목은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쭉 나오는 목의 형태를 말한다. 컴퓨터, 핸드폰, PMP 등을 볼 때 고개를 숙이고 보는 습관이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현상이다. 장시간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현대인 누구에게나 나타나며, 과도한 학습, 인터넷 사용을 즐기는 학생들에게서도 급증하고 있다.

바르지 못한 자세 때문에 생기는 거북목 증세는 변형된 목 때문에 계속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게 만들어 더욱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는 결국 다른 연결 부위에 영향을 주어 굽은등, 골반불균형, 휜다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목부터 증세가 시작되는 거북목은 등뿐 아니라 허리와 다리도 함께 변형시키는데, 거북목인 사람이 운동을 하면 허리나 다리가 쉽게 아파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거북목은 단순히 목의 불균형뿐 아니라 전신 체형의 불균형을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한 체크 방법으로 거북목증세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거북목 체크리스트〉

1.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한다.
2. 목을 뒤로 젖히면 아프다.
3. 목과 어깨가 자주 결리고 딱딱하게 굳는다.
4. 등이 굽었다.
5. 몸을 움직이면 각도에 따라 아프다.
6. 자주 잠버릇이 나쁘다는 말을 듣는다.
7. 어떤 베개를 사용해도 편하지 않다.
8. 취침 시, 팔을 위로 올리고 자는 버릇이 있다.
9. 사진을 보면 언제나 목이 기울어 있다.
10. 거울로 얼굴을 보면 귀 높이가 서로 다르다.
11. 목, 어깨를 비틀며 똑똑 소리를 내는 습관이 있다.

5개 이상일 경우에는 목의 불균형이 의심된다. 스스로 바르지 못한 자세 습관을 가지고 있나 한 번 쯤은 체크해 봐야 할 것이며, 증세를 느끼지 못한다면 체형교정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좌)이상적인 목의 만곡과 바른자세
(우)거북목으로 인한 구부정한 자세

위 체크 방법이외에 단순히 위를 보기 힘들다거나, 잦은 어깨 결림이 오거나 혹은 피곤함을 느낄 때 제일 먼저 목이 당길 경우 거북목이 시작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거북목을 예방하는 제일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턱을 당기는 습관을 생활화 하는 것이다. 특히 업무 도중이나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해 자주 하는 것이 좋다.

바쁜 현대인들의 경우 식사를 한 후 10초 정도씩 턱을 당기는 스트레칭을 권유한다.

턱을 당겼다 제자리로 오게 하는 스트레칭으로 목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목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고개가 앞으로 나오는 체형을 바르게 교정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너무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을 피하며, 바른 자세 및 꾸준히 운동하는 생활 패턴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목이 앞으로 너무 많이 나와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거나, 등이 굽었거나, 골반이 비뚤어졌거나, 다리길이가 다르거나, 어깨의 높이가 다르거나 지나치게 처졌다면 체형교정 전문기관을 통해 교정을 받는 것이 좋다.

거북목일 경우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목만을 교정하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목은 허리와 골반, 다리, 발목 등의 관절과도 많은 연관이 있으므로 체형교정 전문기관을 통해 전신을 체계적으로 교정 관리해 주어야 한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1544-9697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분거리 국도 옆)
■ 면 적 : 사찰 전시관 2층(신축) 240평 외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기념품판매장 총 2,200평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 좌불(목불), 국내최대 관음목불입상, 50여점 크리스탈 개금불, 천여점 희귀불상 전시(국내최대전시장), 외관벽 일체 크리스탈 장실 만다라 액자로 장식
■ 연간 5만명 참배, 천도재 월 10건이상
■ 전시관에 전시중인 크리스탈 개금불은 주지스님이 10여년간에 걸쳐 조성한 창작개금불로서 일본으로부터 불교예술의 새 역사를 연 작품으로 호평 받고 있으며, 절대 모방이 불가능한 불상이며 참배하시는분께도 황홀함이 빠져드는 작품으로서 TV방송 등 총 18회 방영된 바 있습니다.
■ 양도가 : 35억 가능
■ 사찰내역은 인터넷상에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십시오.
■ 연락처 : 054)249-1023 휴. 010-4504-0174
■ 자금력 있으신 대덕스님께서 운영하면 대 성공을 확신합니다.

사찰대출안내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할 수 있으며 도와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대출이자는 1억원 대출시 월62만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
2. 대출상환은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개인명의 뿐아니라 단체명의 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상무 이강욱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TEL 063)631-0108 / FAX 063)625-2946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⑱ 청주(靑州) 용흥사(龍興寺)

# 한국불교 초기 교리는 인과



뚝섬 출토 불상. 삼국시대의 불상으로 높이는 4.9㎝의 작은 불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불상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

## 우리나라 최초 불상 중국 북방서 유래
## 1959년 뚝섬서 최초전래기 불상 발견

불교가 우리나라에 수용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당시 동북아시아에 급격히 유행하던 불교가 우리나라에 밀려 왔으리라고 본다. 기록에 의하면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에 공식적으로 나타났다. 전진(前秦) 황제였던 부견(符堅, 338~385)이 고구려에 승려 순도(順道)와 불상 및 불경을 보냈다는 사료를 통해 불교의 전래가 짐작된다.

남은 사료와 유물이 부족해 초기 전래된 불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어떤 식으로 불교를 신앙하게 됐는지 명확히 알 길이 없다. 오로지 몇 줄의 사료를 통해 당시의 상황만을 짐작 할 뿐이다.

372년 순도 스님이 중국으로부터 불상과 불경을 갖고 우리나라에 왔고, 같은 해에 아도(阿道) 스님이 동진(東晋)으로부터 왔다. 이에 초문사(肖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가 지어졌다. 백제는 침류왕(枕流王) 원년인 384년 불교가 수용됐고, 신라는 5세기 초반에 전래 됐지만 6세기 초반에야 공식적으로 불교가 수용됐다.

당시 불교 신앙은 아주 단순했던 것으로 짐작 된다. 전래 초기의 교리는 주로 인과(因果)에 관한 것으로 인과를 통해 화와 복을 받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이런 불교의 인과율은 당시 왕실에도 영향을 끼쳤다. 고구려 고국양왕이나 백제 아신왕은 불교를 믿어 복을 받으라는 내용의 교지를 내렸다. 당시 사람들은 복잡한 교리가 아닌 단순하지만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불교의 모습에 매료됐던 것으로 보인다.

1959년 서울 한강 뚝섬에서는 불교가 이 땅에 전해진지 얼마 되지 않아 만들어진 불상이 발견됐다. 이 불상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수입된 불상인지, 우리 땅에서 만들어진 불상인지, 우리 땅의 불상이라면 고구려·백제 어느 곳에서 제작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다.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가 전래된 당시에는 간다라 양식이나 당시 중국 북방에서 제작된 불상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많다. 뚝섬에서 출토된 불상은 이런 사실을 짐작케 하는 사례이다.

이 불상은 5호16국 시대에 유행하던 사자좌상(獅子座上)의 선정불 양식으로 제작됐다. 얼굴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있으며 두 손은 깍지를 낀 듯 놓여 있다. 높이 4.9㎝의 이 불상은 선정에 잠긴 부처님의 법열을 표현하고 있다.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해 군데군데 녹슬었지만 깊은 명상에서 얻어지는 희열이 얼굴에 녹아 있다. 이 시기의 불상이라면 거의 석가모니불상으로 추정된다. 당시 중국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유행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불상의 대부분은 석가모니불이었을 것이다.

어느 시대·지역에서 제작됐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 북방에서 유행하던 선정의 흐름이 불상 안에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대 선불교와는 다르다. 인도로부터 서역을 거쳐 중국 땅에 들어온 선정은 불교의 중요한 수행방법이자 중요한 신앙의 형태로 여겨졌다. 북위시대 많은 승려들이 맥적산에서 선정 수행을 했다. 이런 선정수행 중심의 불교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됐다고 불상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63

#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산을 내려가면 큰절이 있잖아요? 큰절 아래로 내려가면 또 뭐가 있죠?" / "사바세계." / "사바세계?" / "스님은 사바세계에서 왔어요?" / "그럼. 해진이도 거기서 왔지." / "큰스님두?" / "응." / "왜 모두가 사바세계에서 왔죠?"

20여 년 전에 개봉됐던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에서 어린 해진 스님은 후원 부뚜막 앞에 앉아 저녁을 짓고 있는 기봉 스님에게 그렇게 물었었다.

이태 전, 영화를 찍었던 영산암에 갔었다. 기봉 스님 대신 한 스님이 영화 속 요사로 나왔던 송암당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장작불 위로 해진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모두가 사바세계에서 왔죠?" 그날도 암자에는 모두 사바에서 온 사람들뿐이었다.



사진부 차장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 제25도 불설아미타경

삼화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경〉을 설하시니 사리불과 모든 비구, 일체 세간의 천인, 아수라 등이 설법을 듣고 기뻐해 수지하고 예배하며 물러갔다는 내용을 도상화한 것이다.

화면 오른쪽에는 구름에 싸인 전각이 있고, 그 앞에는 설법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비구와 천인과 아수라 등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 앞에는 무릎을 꿇고 설법을 듣는 사리불이 배치돼 있다. 다음은 칭명염불자(稱名念佛者)들이 극락왕생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내용은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니, 사리불과 여러 비구들, 모든 세상의 하늘사람, 사람과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이 믿어 받아서 예배하고 물러갔다[佛說此經已舍利佛及諸比丘一切世間天人阿修羅等聞佛所說歡喜信受作禮而法]"고 말하고 있다.

우익 대사의 〈아미타경요해〉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정토의 가르침은 불가사의하다. 그것은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아무도 부처님께 그것에 관해 물어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지혜로써 상황을 보시고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조건이 무르익었음을 아셨다. 이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질문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정토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중생들이 진리를 들음으로써 혜택을 입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행을 해 혜택을 입고, 악행을 피해 혜택을 입고, 그리고 무상의 진리를 체험해 혜택을 입도록 하셨다. 부처님의 정토법문은 때맞게 내리는 비와 같아 듣는 사람들이 '즐거이 믿어 받았다' '즐겁다'는 것은 그들이 몸과 마음에서 즐거움을 느꼈다는 말이다. '믿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의심이나 의문이 없었다는 말이다. '그들이 모두 예배했다'는 것은 그들이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에 감격해 그분에게 의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러갔다는 것은 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수행하고 결코 물러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 내용을 통해 부처님이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비로서 때맞춰 내리는 단비와 같이 설법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 설법을 모든 중생들이 즐겁게 받아 지니면서 모든 의심을 끊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됐으며, 부처님의 자비에 의지하게 됐다는 뜻이다.

이러한 아미타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물러나지 않고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임을 또한 새길 수 있다.

선학 스님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제25도 덕주사판, 1572년간행, 반곽(半郭) 28.2×21.0㎝.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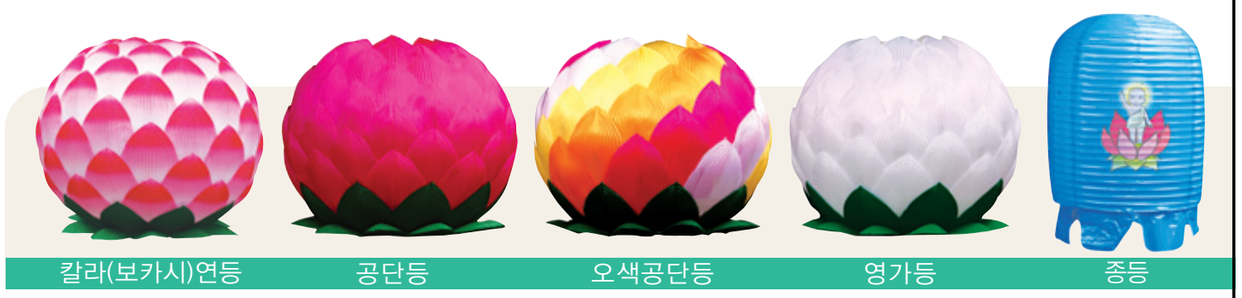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 종 류 | 일반전구 | 찬덕 LED 전구 |
|---|---|---|
| 소비전력 | 10W | 2W |
| 효율 | 10 lm/w | 50 lm/w |
| 연간전기료 | 2146원 | 429원 |
| 수명보장 | | 30,000 시간 |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 맷돌에도 심봉을 꽂아야 이탈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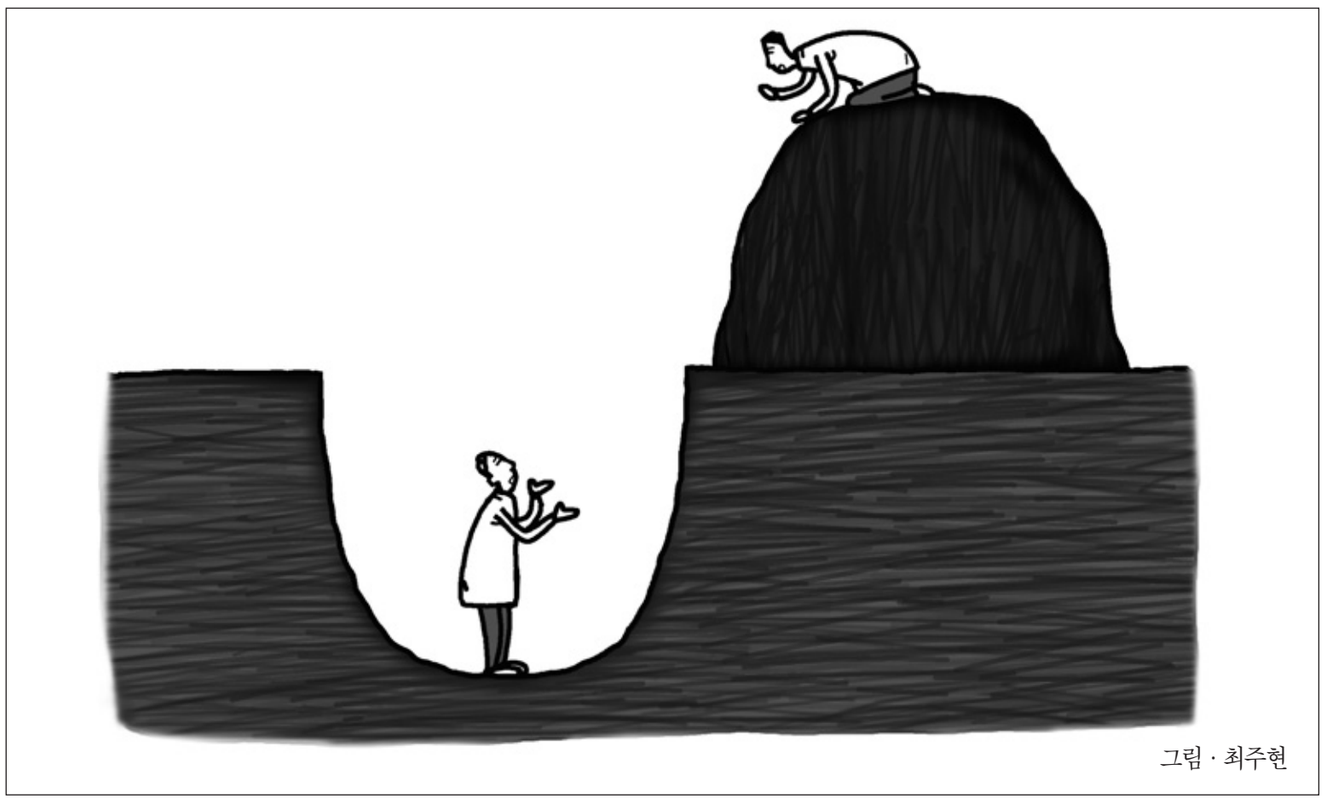
**문)**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말이 참 무색한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서로를 해치며 살아가는 게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답)** 그러게 말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만 그 말과는 달리 잘못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사람이며 만물의 영장이며, 또 바로 진짜 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자유인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재료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큰 모터를 돌리려면 전력을 크게 끌어야 하고 쪼끄마하면 쪼끄맣게 끌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력을 쓰듯이 나한테 주어져 있는 재료를 마음대로 끌어서 쓸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예를 들어 맷돌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봉을 꽂아야 아래 위가 딱 맞으면서 돌려도 이탈을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물건을 넣어도 갈려 나옵니다. 심봉을 꽂지 않고는 그 맷돌이 이탈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넣어도 갈려 나올 수가 없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배울 때는 심봉을 꼭 꽂아라 이겁니다. 즉, 심봉이 주장자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모든 걸,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를 한 구멍에다 뭉쳐 놔라 이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모든 걸. 거기서 모든 게 생산이 돼서 나오니까. 헌쇠를 용광로에다 넣는 작업만 해도 새 쇠가 생산이 돼서 그냥 나오듯이. 그것을 알면 곧 자기를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발전소로 화하죠. 용광로였는데 나중엔 자가발전소로 화한단 말입니다. 둘이 아닌 공부 하는 도리가 자가발전소로 다시 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맷돌이라고도 그랬지만, 그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말하면서 우리가 알면서, 과거의 숙명통을 알면서 이렇게 전부 그게 한데 돌아가니까 여러분은 그저 거기에다가 오는 대로 재료를 놓기만 하면 생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안되는 게 있다 이럴 때 '아하! 이거는 안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되게 할 수도 있다. 내 주인공밖에 없어!' 몸이 아프더라도 30%는 의사나 딴 손을 빌려야 하지만 70%는 우리가 충당해야 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또한 우주 천지 삼라대천세계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 돼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살림살이는 천체가 다 인간의 마음 근본에 직결 돼 있다. 가설이 돼 있다 이겁니다, 전기 가설 돼 있듯이. 그러니 한 가정에서도 "아유, 저놈 저놈! 왜 저렇게 잘못만 하는지, 사람 되려면 아직도 멀었나. 이러한 짓만 하니." 하고 그렇게 속썩는 일이 있더라도, 그 자식이 바깥에서 자고 들어오거나 뭐 별짓을 다 하고 들어오더라도 부드럽게 평등한 말을, 부드럽게 말을 해 주면서 이 주인공에다 맡긴다면, 죄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는 게 가설이 돼 있고, 엄마라는 게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불을, 스위치를 올리면 거기도 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이거는 우리가 현실로서 서로가 이익 하고, 내 중생도 이익 하고 모든 중생과 더불어 부처도 한 자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현실이 없다면 우리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죽어서 천당에 가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어디 있나요?

내가 오늘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구덩이에 안 빠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덩이에 빠졌다 하더라도 '아, 이 구덩이에 빠진 것도 내 주인공으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심부름을 잘못했든 잘했든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맡겨 놓는다면 어느 누구의 손을 빌려서라도 내놓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만이 여러분을 이익 하게 하고 이끌어 가고 형성시켰고, 또 병고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통 안에서 즉, 오신통 안에서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를 마음대로 굴릴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자기를 건강하게 해 나갈 수도 있거니와 또 식구들을 기쁘게 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식구들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공부를 하고부터 가정에 부지깽이 하나라도 늘어 가고, 사람이 돼 가고, 애들도 공부를 잘해서 걱정을 없게 하고 이렇게 가정이 다복해진다고들 합니다.

그러니 몸 건강하게 살 겸, 화목해질 겸, 또는 내가 나를 알 겸 살아 있을 때 이 공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내 몸 없어지면 부딪침이 없어서 공부 못 해요. 그러면 죽어서 또 태어나고 또 죽어서 또 태어나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뱀 소굴이나 까치 소굴이나 또는 짐승의 소굴로 들어가기 직경 쉽죠. 내가 살아서 눈을 못 뜨고 귀를 못 뜨면 죽어서도 그 부부지간에 사는, 살 대고 사는 그 의식만 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소굴에나 들어가요. 만약에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 모습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 습이, 그 관념이 배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복에 젖고 그저 욕심에 젖고 아상에 젖고 아만에 젖고 나라는 데 고만 젖고, 하여튼 그냥 젖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몸뚱이가 자기라는 거죠. 몸뚱이가 뭐가 자깁니까? 자기 운전수, 운전수가 자기고 우리 몸뚱이는 차예요, 비유하자면. 운전수가 끌고 다니는 차란 말입니다. 운전수가 가자고 그래야 일어나지 가잔 말 안 하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뭐가 여러분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을 끌고 다닌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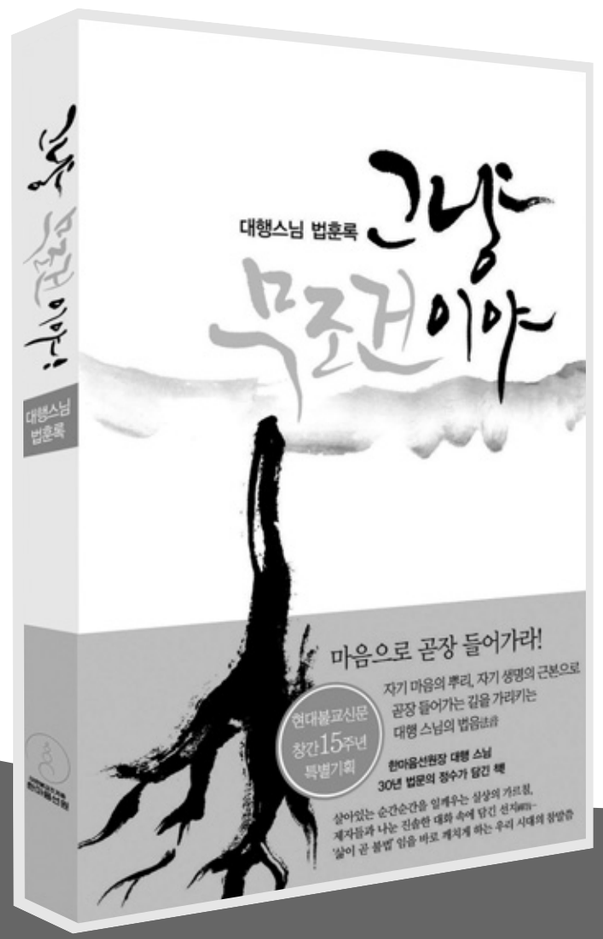
여러분은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진화돼서 쫓고 쫓기면서 죽고 살면서 이렇게 여기 인간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면의 소리를 들었어요**

**문)** 저는 매일 아픈 곳과 씨름을 합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여러 군데가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의 경험을 했습니다. 여행을 갔을 때 어떤 광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면에서 '거기 아픈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하는 소리가 나면서 순간 어떤 빛을 보게 됐고, 그 순간은 안 아팠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요 근래에 와서 조금씩 조금씩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거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제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요.

**답)** 빛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 한 구멍에다 뭉쳐 놔라

☞ 25면에서 계속

그것은 댁에서 이 깊은 마음속의 자기, 즉 말하자면 수없는 과거를 형성시켜 오고 진화시켜 온 그 장본인에게 통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즉 말하자면 의식 속에서 화해서 들리는 소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떤 형상이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부처님이 바로 앞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말하자면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집착할 게 없죠, 생각 자체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 들리는 것도 댁을 가르치기 위해서 빛으로 보여 주고 환으로 보여 주고 그렇게 걱정 마라 이러는 것도 들려 줬는데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일임하고 '감사하구나' 하지, '아, 내가 이렇게 저거 했으니까 뭐 좀 알려나 보다.'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거는 주인공에서 화해서 오는 그런 소리니까요. 그리고 이 몸속의 이 모습, 그 의식들이 그렇게 아프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내 집 식구가 아닌, 내 집 식구라도 내 집 식구처럼 하지 않고 딴 식구로 변경이 돼 가지고 나를 압박을 주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임을 맡아 가지고, 위의 소임을 맡았든 장의 소임을 맡았든 대장, 소장, 척수, 척추 이런 데로 다 맡아 가지고 있는 소임자들이 어떤 때는 간신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몸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전부 다스리는 바로 자기 주인공에다, 모조리 다스리는 그 주인공에다, 자기 영혼도 다스리고 자기 그 생명들의 의식들도 다스리고 그러는 자기 참주인공, 거기다가 다 맡기세요. 거기다 맡기시면요, 그것이 체험이 되고 알아질 겁니다.

### 조부모님 산소를 이장하다…

**문)** 얼마 전에 조부님 산소를 선산으로 이장을 하다가 어머님이 불편해지는 일을 당해서 스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이제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선원에 다닌 지는 오래 되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음알이로만 공부를 해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체를 내 몸과 같이 볼 수 있어야만이 내 가족과 내 조상을 손색이 없이 모실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스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답)**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이 혈(血)을 볼 때,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지금 각본대로, 운명대로 좋으면 좋은 거, 언짢으면 언짢은 거, 자기가 한 거만치 그대로 받게 됩니다. 또 토질 · 혈 · 맥(脈)이 나쁜 것만치 생태들이 나빠지고 나무들이 나빠져서 열매가 작아지는 수도 있고 커지는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다 묘를 써도 그 마음에 따라 잘되고 잘못되고 그러죠.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각본대로 받게 돼 있거든요, 팔자 운명 이런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각본대로 나오는 걸 나오는 그 자리에다가 다시 놓으면 이전에 테이프에 감긴 것이 다 지워집니다.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업보대로, 각본대로 나오지만 다 녹아서 지금 현상에서 영원토록 참자유인이 돼서 살면 영원토록 미래 과거도 없이 자유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 **과거의 업보대로, 각본대로 나오는 걸 나오는 그 자리에다가 다시 놓으면 이전에 테이프에 감긴 것이 다 지워집니다**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그 모든 혈맥을 끊기 위해서 산에 큰 쇠말뚝을 많이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빼러 돌아다닐 필요도 없다. 한생각이면 두루 전체를 그냥 몰락 뺄 수가 있다. 또 그게 들어 있어도 몰락 뺄 수 있다는 점은 혈(血)을 끊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건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혈을 끊을 수가 있겠느냐? 한꺼번에 몰락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쇠말뚝은 박혀 있되 쇠말뚝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묘지를 쓰고서 식구가 잘못되고 죽고 이러는 분란이 일어났으니, 묘지를 어디로 이장을 해야 할 텐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지망년(至亡年)을 당해서 이장할 돈도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알겠노라고 했는데, 그 '알겠노라' 고 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령만 들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묘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혼백(魂魄)만 들어내면 되죠? 그래 승천시키면 되죠.

그런 법도 있고 이런 법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다. 그러니 자유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입니까? 이렇게 싱그러운 이런 묘법을, 우리가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산의 혈(血)이라는 것도 모두 우리 몸체의 혈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유마힐 거사가 "중생들이 병이 나으면 내 병이 낫노라"고 말을 했다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내 몸을 이루는 이 몸 안에 중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말입니다, 많은 그 생명들이 한데 합쳤기 때문에 유마힐 거사가 나았단 말입니다. 나았는데 유마힐 거사가 '그 중생들이 나아야 내 병이 낫는다' 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내 태초의 모습이 내 배 속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전부 나 아님이 없어요. 내 혈을 타고 전부 세포마다 있는 이 자체가, 지리에 관한 것도 거기에서 조금조금 방법만 틀리지 전부 똑같습니다. 혈의 맥이나 서로 통신하는 거나 통하는 거나 전부, 전체 일체를 다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한 점의 마음입니다. 한 점의 마음이 우주의 섭리를 한 세트로 갖다 놓고선 하나하나 닥치는 대로 쓰듯이 그것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고 찰나찰나 나투는 그 묘법을 우리가 두루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쪽짜리 나라가 됐습니다만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해 나왔더라면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하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계발을 못하고 계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져오겠습니까? 역사나 우리나라의 형편이나 이런 것을 이 공부하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나 통일적으로나 또는 국방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나 공업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전체 국민적으로나 내 몸으로나 전체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바람도 생명이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혀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낼름 집어먹을 수도 있어요. 사람도 그냥 낼름 집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생명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라면, 그 모습과 내 모습이 둘이 아니라면, 그 용(用) 쓰는 거와 나와 둘이 아니라면, 그게 바로 나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또 그뿐입니까? 어떤 혹성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병고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도 그렇고 한쪽에만 퍼지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모습 없는 모습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이끌고 가실 수 없다면 가정을 어떻게 끌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사회를 끌고 가며, 국가를 끌고 가며, 통일을 바라보며, 어떻게 세계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를 조절 못한다면 우주를 어떻게 조절하겠습니까? 이 한 점에, 한 점도 내놓을 수 없는 한 점에, 이 마음에 달렸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너무도 고차원적이라고 하겠지만 고차원적도 아니고 고차원적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섭리가 그대로 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입니다.

### 깨달음에도 차원이 있는지요

**문)** 깨달으면 그 경지가 다 똑 같을 것 같은데 혹자는 깨달음에도 차원이 있다는 소리를 하기에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정말로 깨달음에도 차원이 있는지요?

**답)** 네.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죠. 통달한 사람한테는 없는 거고요. 나를 깨달았다 하면 금방 낳아 놓은 어린애와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낳아 놓은 어린애. 그래서 '깨달았어도 깨달았단 말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어도 깨달았단 말 하지 말고 다시 뭉쳐 놓아라!' 그런 게 있고요. 또 나를 깨달았다고 해서 어린애가 사회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애가? 그러니까 어린애가 성장을 해야만 되는 것이 점수고, 점점점 자라는 것이 점수고 딱 자라서 다 된 사람이 돈오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 돈오는 둘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에게도 그 차원이 있습니까?' 할 때 깨달은 사람도 그렇게 점수와 돈오가 있는데 그 점수와 돈오가 둘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자라는 것도 옳고 다 자란 것도 옳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엔 옳다 옳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것도 없고 그것도 없다.' 그러니까 '무(無)' 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이론으로다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면의 세계의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인과가 된 그 뭉쳐진 업보, 악업 선업이 다 한데 뭉쳐서 있는 그 의식들, 그것이 막 그냥 솟구쳐서 나오는 대로 끄달리지 마시고 지켜보라 이겁니다. 모든 걸 자기 자신의 주인공에게 맡겨 놓고 거기서 나온 거니까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탁 놓고선 지켜보는 게 관한다는 겁니다. 그럭하고 줄창 생활하시면서 어떤 게 안되더라도 거기다 그냥 맡겨 놓고 '안되게 할 수 있는 게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나올 수 있다.' 그러곤 탁 맡겨 놓고 믿으세요. 믿고 지켜보세요. 하나하나 그렇게 지켜보고 나가세요. 이론으로 따지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위 법문은 1994년 12월 11일 국내지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정스님 선묵 달력, 2011년〈신묘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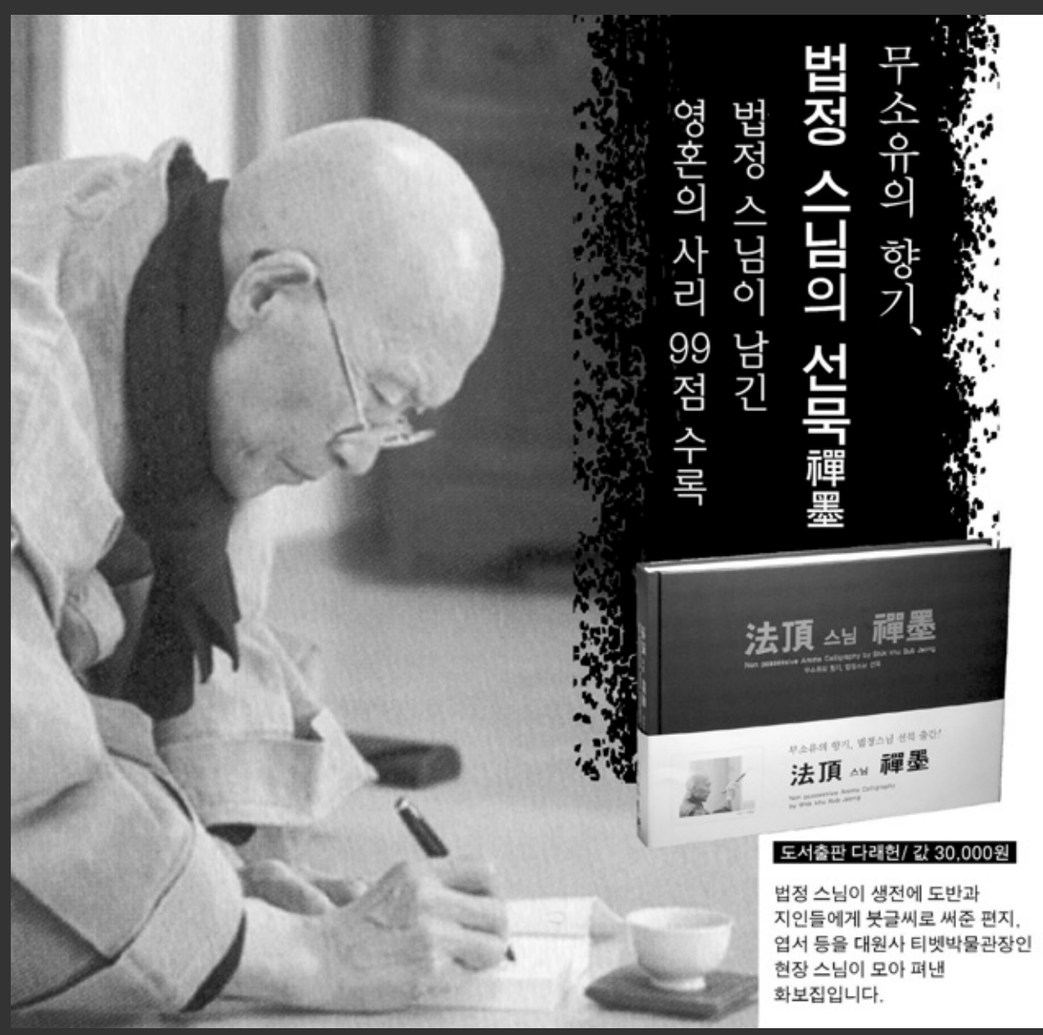
〈사철용〉 500부이상 2,000원

〈일반용〉 5,000원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도서출판 다래헌 / 값 30,000원

법정 스님이 생전에 도반과 지인들에게 붓글씨로 써준 편지, 엽서 등을 대원사 티벳박물관장인 현장 스님이 모아 펴낸 화보집입니다.

부처님의 향훈을 따라가는

불교성지순례



한국불교 2000년 최초의 가이드북!

12년간 인도-네팔의 불교성지 순례와 7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완성된 책으로 단순한 가이드북이 아니라 성지와 유적들에 대한 내용과 역사적인 배경을 사진과 함께 실었다. 직접 인도-네팔을 오가며 자료들을 수집한 스님의 노력 덕분에 이 책 한권이면 인도-네팔에 성지순례를 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다.

대연스님 | 국판변형 | 컬러 | 382쪽 | 20,000원 | 이스트워드

산사에서 배우는 불교

산사를 속속들이 알려주는 불교입문 교과서!



전국의 유명사찰 108곳을 정해놓고 5천여 불자들과 함께 매월 순례를 다니면서 신행문화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스님이 '불교입문 교과서' 로 불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책을 펴냈다. 불상과 전각 등 각 주제를 설명할 때마다 한국불교를 대표할 만한 관련 사진을 풍부하게 실어 불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선묵 혜자스님 | 신국판 | 컬러 | 519쪽 | 25,000원 | 연중출판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www.unjusa.com

불자 세상보기

# 통큰치킨과 소비자운동



전승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2010년은 기업형 수퍼마켓, 이마트 피자, 롯데마트 통큰치킨 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기업과 중소자영업의 상생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1년이었다. 이 논쟁과 관련하여 어떤 이는 대기업의 치킨이나 피자 판매가 전체적인 시장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소비자 가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반면에 대기업이 자본의 힘을 앞세워 중소자영업자들의 전통적인 사업영역까지 진출하는 것은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 상생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논쟁이 증폭되면서 국회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및 '상생협력촉진법'을 통과시켰다. 필자도 국제 무역관계에서도 자국의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제도가 있듯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의 붕괴를 막아줄 법안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규제법안들이 상생의 필수조건이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이해 당사자들은 시장자본주의 원칙 또는 강력한 규제법안 마련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상생을 위해 대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선 대기업의 경우, 사업이나 품목을 확장할 때, 단기적인 매출 증대만이 아닌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브랜드 가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브랜드 가치가 기업의 성패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광고나 홍보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당한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킨 이마트 피자는 '이마트' 브랜드에 혹시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필자는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롯데마트는 '통큰치킨' 판매 개시 얼마 후, 사회에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자 바로 이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선언하였다. 회사 측에서는 아마도 '통큰치킨' 판매로 인한 롯데마트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염려했을 것이다. 대기업이 브랜드 가치 증진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중소자영업자의 경우도, 자신의 생존을 규제 법안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선정하여 대기업 진출을 자제시키고자 하지만, 법안으로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소비자 가치들의 전부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대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소비자 가치를 포착하고 개발시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의 특수한 목적에 맞춘 개인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생산자조합이나 지역화폐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소비하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중심 소비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서 자영업자 스스로가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다양한 지역문제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에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재래시장, 동네 수퍼, 동네 카페와 같은 지역상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에서 피자나 치킨까지 판매한다고 비판하면서,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모순된 소비행위이다. 이는 마치 환경보호를 외치면서 편리를 이유로 일회용 컵과 접시만 사용하는 것과 같다. 최근 지역과 환경을 중시하는 '착한 소비' 또는 '지속가능한 소비'가 새로운 소비자 운동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는 과거 온 국민 모두가 동참한 국산품애용운동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다. 이 운동은 국내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제 소비자들은 지역자영업자 애용운동을 벌여야 할 시기이다. 소비자들이 이런 운동이라도 벌여 대기업과 자영업자 모두가 상생하는데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사부대중 칼럼

#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도각 스님
前 태고종 종무조정실장
자연치유학 박사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학습을 하면서 그 학습의 기억들과 새로이 접하는 상황들을 잘 조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학창시절 기억들 중 나의 사고와 일상생활 속에 가장 깊숙이 젖어 들어온 몇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중학시절 MRA경북(대구 포함) 지도자였던 유모 선생의 "약지로 상대방을 지적할 때, 아래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알라"는 연설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 1년 때, 불교관련 서적으로 처음 구입하여 읽은 〈선가귀감〉의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는가(誰怨誰咎)"라는 어귀이다. 이 둘을 지금도 잊지 않고 나의 멘토(Mentor)로 삼고 있다.

불교수행의 목표는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인연이라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각자 자신의 알 수 없는 무명업연이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회전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아져서 점점 더 흡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업연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수행정진으로 득력을 얻는 것이다. 득력을 얻어서 깨달으면 마침내 영혼의 휴식인 해탈의 경지, 즉 유여의 열반(有餘依 涅槃)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무여의 열반(無餘依 涅槃)에 들기 때문에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가 있는 붓다(Buddha)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나무 그늘에 모여서 명상수행을 하다가 깨달으면 붓다가 되고, 붓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 집단이 형성됐다.

이런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집단을 이끌기 위해 야전사령부격인 출가승단과 후방지원부격인 재가불자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출발된 불교의 수행모습이 오늘에 와서는 많이 변화됐다. 출가승단은 수행에 전념해 깨침을 구하려는 노력보다 법을 구하고자 하는데, 멀리 모든 성인에게 미루고 부처를 이루고자 하면서, 마음을 살펴 관하지 않는다. 마치 깨달음을 전매특허 받은 것처럼 권위체가 돼가고 있다.

태고종도 마찬가지이다. 총무원 권한이 점차 비대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중앙종회의 권한 또한 막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그 운영주체인 승단도 당연히 사회변화를 이끌어 가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이번 제104회 정기 중앙종회가 보여준 파행에 가까운 행태는 앞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도 승단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학습을 지속하는 노력 없이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부연하자면 종회 구성원 선출부터 법납 위주 또는 종무원 할당으로 만 할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정한 덕행을 겸비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승가를 중심으로 그 인원수를 대폭으로 증가해야 한다. 중앙종회 의원으로 선출된 후에도 일정기간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승단의 부단한 자기계발프로그램을 만들어 전통 불교수행과 신학문의 학습을 겸비하는 선구자적 성직자로 거듭나야 한다. 일찍이 모 종단에서도 중앙종회 도중에 갑자기 위험한 미물투척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스님의 행위는 잘못됐지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은 한마디로 불교계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이다.

이번 중앙종회의 파행을 보면서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역할도 못하면서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하고, 종단의 백년대계에 큰 장애를 가져온 것인지 각자가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 그에 따른 책임도 질줄 아는 현명한 판단이 무엇인가 묻고 싶다. 태고종도는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동안 손가락질 했거나 불협화음을 일으켰던 것은 선가귀감의 수원수구(誰怨誰咎)의 뜻을 다시 새기는 계기로 삼아 서로 수용하며, 용서하고 대화합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시점에서 한국불교의 새벽을 외쳤던 원효 성사의 무애자재와 제종포섭을 하신 태고 국사의 원융사상 및 불교유신을 주창했던 만해 선사의 자주독립과 애민애족정신이 그립다.

사 설

## 조계종의 자주화 선언을 지지한다

조계종이 정부·여당의 2011년도 예산안 날치기 통과와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을 계기로 일대 쇄신을 선언했다. 한마디로 자주화 선언이다. 원로회의에서도 "정법으로 삿됨을 뚫고 정진하라"는 유시를 내렸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 인사말을 통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다 보니 신도들의 십시일반에 기반한 불사와 신도교육은 소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예산에 의존하다보니 정부와 지자체에 아쉬운 자세, 부탁하는 자세로 살아왔다.… 불교가 세상과 같이 했는가는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쉬움과 불이익을 감내하고서라도 변화해야 한다. 개인과 특정 본말사의 이익이 아니라 종단 이익을 위해 긴 호흡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종단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될만한 선언이다.

본사주지스님들도 결의문을 통해 자주화 실행 의지를 확인하고 "민족문화를 외면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한 이명박정부 및 한나라당을 규탄함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 민족문화의 보존, 전승 및 발전에 필요한 자구적인 노력을 국민과 함께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고 5개 항을 결의했다. ▷우리는 정교분리의 원칙하에 종교적 사명과 사회적 역할 증진을 위해 전력한다 ▷이명박정부 및 한나라당 인사들과 개별 접촉하지 않을 것이며, 사찰 출입을 거부한다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의 정신을 저버린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불교의 자주권과 자율권을 규제하는 각종 국가 법률을 반대한다 ▷수행, 교육 및 포교 등 종교본연의 활동과 민족문화 보전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조계종의 자주화 행보를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이에 따른 후속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현해나가기를 기대한다.

##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고도 안하무인이다. 법정기일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하지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최근에는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독거노인 집을 방문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내년에는 선거가 없고, 연말연시와 추위 속에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잦아들 것으로 계산했다면 오산이다. 지난 4월 지자체선거에서 국민들은 천안함 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여지없이 부숴뜨리지 않았는가.

이명박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도 법정 기일 준수를 내세워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는 법치를 가장해 법을 우롱하는 처사다. 야당의 반대의사를 표시할 권리조차 빼앗은 반민주 퇴행이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왜 여론의 비난을 받을 날치기 통과를 했는지 그 의도를 알지 못한다. 날치기 이후의 정부·여당의 행동을 보면 국민들은 그저 구경만하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외면한데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과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0. 12.18(토) 오후 1시 부터 ~ 12.19(일) 오후 6시 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화제의 신간
선(禪)이란 무엇인가?
카르마의 소멸
● 맑은 기가 나오는 책 ●
이보다 더 진솔한 禪의 체험은 없다.
불교의 종지는 無我요, 보살의 종착도 無我다.
禪은 목적이 없다. 목적이 없는 것이 목표다.
깨달음을 얻을려면
분별심을 버려야한다.
악(惡)도 버리고 선(善)도 버려라.
사람들이 선(善)을 취하고 악(惡)을 버리고
공(空)을 관하고 정(定)에 들어가면
그것들이 올바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인위(人爲)의 조작에 속하는 것으로
무위(無爲)법과는 거리가 멀다
- 마조선사 -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312쪽 / 정가 1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上권·下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재혈이란, 서기어린 땅의 생기가 감돌아 서리는 명당터를 정확히 짚어서 찾아내는 일이다.
많은 사람은 '한국의 재혈풍수'를 왜 주목하는가! 처음 시도된 한 분야의 전문적 질문에 응하는 답은?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上)권 高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下)권 高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육표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핫키퍼 발열내의

국제공인인증기관 한국의료시험연구원(KATRI)시험검사필

# 난로보다 훨씬 낫다 온몸이 후끈후끈~

## 입기만해도 뜨끈뜨끈 3.3℃~5.6℃까지 상승시켜주는 기능성 발열내의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운데 겨울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다.

골프나 등산, 낚시, 조깅 등의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추위에 민감하다. 이런 계절에는 사람들의 옷은 두꺼워지고 여러 난방 기구들을 준비하지만 출, 퇴근 시간에 뼛속까지 파고드는 찬바람은 좀처럼 피할 수 없다.

겨울철에 내의를 입게되면 체감온도가 1℃~ 2℃까지 올라가지만 움직임이 둔하고, 뚱뚱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잘입지 않으려고 한다.

### 첨단기술로 특허 받은 발열내의

핫키퍼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자체 기능성 발명특허(특허번호: 10-0863991)원단을 소재로 만들어져 입고 있기만 해도 체감온도가 3.3℃~ 5.6℃까지 상승하며 뛰어난 신축성과 초경량의 무게로 신체의 유연성까지 확보해 주는 발열내의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주)MFT에서 출시한 '핫키퍼 3.3'은 순수한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9년간 연구개발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기적같은 발열섬유로 이슈화된 상품이다.

'핫키퍼3.3'은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발열 기능성 조형물로 인체에 무해한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이 피부와 접촉하여 혈류량을 높이고 미세한 기모가 피부와 마찰하면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온열을 지속적으로 보온해 주기까지 한다. 또한 내구성이 우수해 세탁에도 발열 기능성이 오래 유지된다.

### 입은듯 안입은듯 얇고 가볍고 뛰어난 신축성

또한 스포츠 의류의 경우 운동시 발생하는 땀을 즉시 건조, 배출시켜 신체의 온도를 조절해 주어야 하는데 '핫키퍼 3.3'은 통기성이 좋고 땀흡수력이 뛰어나며 자체 항균기능이 있어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안심할 수 있다. 콜라겐과 포도씨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핫키퍼3.3'은 50여가지의 피부테스트를 거쳐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아도 아무런 자극이 없다.

국내 최초 발열 기능성 조형물 부분특허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의 시험성적서를 통과하여 검증된 '핫키퍼 3.3'은 입기만 해도 난로를 품고 있는 것처럼 체감온도를 높여주고 99%이상의 자외선 차단효과와 정전기방지 효과, 원적외선 효과까지 있어 겨울철 야외활동에 큰 도움이 되며 디자인이 뛰어난 본래 기능인 내복으로 입어도 좋고 멋스러운 부츠에 레깅스로 센스있게 연출할 수도 있다.

일상생활은 물론 움직임이 많은 스포츠나 아웃도어 활동 시에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 겨울철 야외활동을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매일 출, 퇴근하는 직장인, 건설현장, 노점상, 택배기사 등 추위와 싸우며 일하는 사람들이나 스키, 골프, 등산 등 겨울철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 부모님효도선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방한복과 맞먹는 체감온도 상승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발열내의 '핫키퍼 3.3'은 상의와 하의세트를 **파격가 69,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2세트 구입시 130,000원**에 추가할인된다.

**특허번호 : 10-0863991**
국내 최초 발열 기능성 조형물 부분 특허

• 색상 : 검정색, 진회색(S, M, L, X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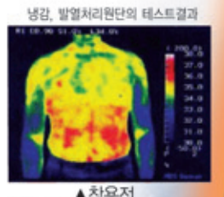
■ 구입문의 : 080-840-7000
■ 농협 : 317-0002-3339-31 (주)오투넷

현장근무, 군인, 경비, 시장상인
부모님 효도선물
등산, 낚시, 골프, 야외활동에 안성맞춤
• 기업납품 및 단체주문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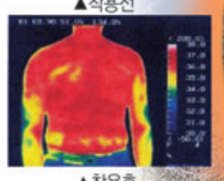


상·하의 세트
**69,800원**
〈택배비 무료〉

냉감, 발열처리원단의 테스트결과



▲착용전



▲착용후

**FUJIKA** 추워지면 생각나는 브랜드!! 40년 전통 그명성 그대로 난로 전문메이커

2011년 최신형

인터넷주문 www.nanronara.com

# 후지카온풍겸용명품전기히터

## 고유가시대! 기름대비 60~70% 연료비절감!




2011년 FUJIKA STOVE 正品 MADE IN KOREA

### 초강력 온풍기능의 강력난방, 촘촘한 2중 안전망




360° 열전달!!

**360°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 强者!**

**FUJIKA** S-3600(온풍) 15~20평형 59.4㎡
▶정격접압 : AC220V/60Hz ▶중량 : 12kg
▶소비전력 : 3,300W ▶사이즈 : 465×465×690mm
(업소 및 사무실용)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3.1㎾×8=1,683원
**특별할인가 188,000원**

### 따뜻한 겨울, 후지카와 함께 하세요~

올 겨울은 엄청난 추위가 몰려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지카 히터가 그 해결책입니다!
절전형 설계로 전기세 절감은 물론 상황에 맞는 온도설정 기능으로 평소에는 약하게, 추울때는 강하게 온도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교거부! 후지카는 다릅니다!"

- 2단계/3단계 온도설정으로 전기세 절약형 전기히터
- 동급최강의 성능(우수한 발열력과 열효율을 자랑)
-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3중 안전망 /화재 안전장치 장착
- 무연,무취,저소음의 웰빙 청정난방 기능
- 탄소섬유 가열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100% 국내생산 제품으로 항시 A/S 가능

간단한 다이얼 조작으로 손쉽게 강/약조절 가능




**FUJIKA** A-1800 5~7평형 19.8㎡
▶정격접압 : AC220V/60Hz
▶소비전력 : 1,800W ▶사이즈 : 365×365×710mm
(업소 및 가정용) ▶방식 : 세라믹코일방식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8=978원
**특별할인가 98,000원**




**FUJIKA** AF-3000 12~15평형 42.9㎡
▶정격접압 : AC220V/60Hz
▶소비전력 : 3,000W ▶사이즈 : 365×365×710mm
(업소 및 사무실용) ▶방식 : 세라믹코일방식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3.0㎾×8=1,630원
**특별할인가 148,000원**




• 탄소히터란?
동급전기히터에 비해 2배의 열효율이 발생되며,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 방출량은 기존히터에 비해 약 3배 많은 최첨단 발열체입니다.

고효율 탄소관램프를 사용하여 열전도율을 극대화 했습니다. 기존의 원적외선히터나 할로겐히터에 비해 열효율과 열전달율이 더욱 좋습니다.

간단한 다이얼버튼으로 손쉽게 온도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온도를 조절해서 사용하세요.

탄소관이 타업체의 8mm 제품과는 달리 12mm대용량으로 더욱 따뜻합니다.

**FUJIKA** SA-1800 5~7평형 29.7㎡
▶정격접압 : AC220V/60Hz
▶소비전력 : 1,800W ▶사이즈 : 365×365×710mm
(업소 및 가정용) ▶방식 : 탄소섬유발열방식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8=978원
**특별할인가 148,000원**

**무소음! 무냄새! 무연료!**
용량은 같아도 난방효과는 2배!

삼성화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이런 곳에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사무실, 가정,식당, 교회, 사찰, 골프장, 스키장, 공장, 학교 카센타, 야외시설, 체육관, 유치원, 학원, 병원, 미용실, 약국, 새벽시장, 피부관리실, 포장마차, 지하상가 등 난방이 필요한 곳

**※멀티탭을 사용하지 마시고 콘센트에 직접 꽂으세요.**

**A/S 100%국내생산과, 확실한 A/S보장!**
생산부터 검수 판매까지 논스톱 시스템으로 최저가보장!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탄생한 완벽한 제품 후지카 믿고 구입하십시오!!!

**주문전화: 080-840-7000**
• 전국무료배송 입금계좌 : 농협 317-0002-3339-31 (주)오투넷